

홍원사 회주 동주 원명 스님
"범패는 팔만대장경의 골수만 뽑아서 만든 '소리'"
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2월 23일) · 주간

제934호 2013년 4월 3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유마경〉

생사의 세계에 물들지 않고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이다.

지역·분야 맞춤 포교… 자생력 가져야

조계종 전법단 3년, 의미와 과제

4월 30일 조계종 전법단의 출범 3주년을 앞두고 재가자들을 포함한 지원조직 활성화와 CMS 등 장기적인 후원체계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일선 현장의 네트워크와 시대변화에 맞춘 포교 진흥을 위해 창설된 조계종 전법단은 그동안 병원(단장 성범), 경찰(단장 도문), 군(단장 덕현), 대학생(단장 남전), 교정교화(단장 혜원), 장애인(단장 도륜), 체육(단장 퇴휴) 등 7개 직능분야 전법단과 광주·전남(단장 효진), 성남(단장 성행), 대구·경북(단장 허주), 대전·충청(단장 선일) 등 4개 지역 전법단이 구성된 상황이다. 전법단은 2년이 넘는 짧은 기간이지만 사각지대에서 포교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경북전법단은 대구지방경찰청과 청소년 교화와 학교폭력 예방 활동인 117감시신고단 활동을 펼치기도 했으며 병원전법단의 경우 사찰음식 강연회, 불교임상지도자 심화교육과정, 명상치유 순례 등을 통해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또 대학생전법단은 1사찰 1대학 결연맺기 사업을 펼쳐 봉은사와 서울대·서울 교대 등 5개 대학 결연을 맺도록 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에도 포교 일선의 활동가들은 개선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법단은 스님들로 구성된 지도법사단과 포교사를 비롯한 재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법지원단, 일반신도들로 구성된 후원전담조직인 전법후원단으로 이뤄져 있다.

문제는 총 11개 전법단에 소속된 지도법사 스님들은 총 384명인 반면 스님들의 활동을 보조하거나 취약부분을 보완해 줄 전법지원단은 97명에 불과한 것. 전법지원단 단원이 대부분도 포교사들이지만 포교사단과의 연계활동이 미흡한 점도 지적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법단 활동이 스님들의 친목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로

장애인, 체육, 병원 등
포교사각지대 활동 늘어

지도법사 지원조직 적어
활동가 저변확대 과제
CMS 등 재원 마련도 관건

스님들 위주로 전법단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재가단체나 하부조직 구성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스님과 재가자가 함께 활동에 나서야 한다. 대중의 역량 결집이 되지 않으면 결국 포교활동이 한계에 닥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생력 확보를 위한 후원조직 확보도 전법단의 장기적인 활동의 과제로 꼽힌다. 11개 전법단 중 종단 예산 외에 CMS 정기후원체계가 도입된 곳은 교정교화전법단이 유일한 상황이다. 종책 변화에 따른 예산책정 여부에 전법단 활동이 영향받지 않으려면 소액후원 등 일반 불자들의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

손윤흥 교정교화전법단 사무과장은 "CMS 도입 후 활동하는 스님과 지원단들도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후원자들도 기본계좌 당 2000원씩이기에 비교적 많이 호응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확실한 활동영역이 있는 직능분야와 달리 활동 분야가 모호한 지역전법단에 추진과제가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응철 교수는 "병원전법단 등 직능분야는 호스피스, 간병인 등 재가자들의 참여영역이 있기에 비교적 후원이 잘돼고 봉사활동 등 참여율도 높다. 지역전법단도 지역 사안과 연계해 방과후학교, 지역불교대학 운영 등 장기적 사업목적을 선정해 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법단에서는 전법단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대중 참여를 이끌기 위해 소식지를 발간하고 정기 워크샵을 개최해 포교사업 연계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전법단장 계성 스님은 "전법단과 다양한 포교단체 간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법지원단과 전법후원단을 활성화해 전법활동이 자생력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어린이청소년전법단 출범준비회의를 열고 3주년을 맞은 4월 30일 어린이청소년전법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단장에는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성행 스님(의왕 청계사 주지)이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봉축위, 연등회 포스터 배포





불기2557(2013)년 부처님오신날과 연등회 포스터가 일반에 공개됐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가 3월 25일 발표한 부처님오신날 포스터는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라는 봉축 표어와 함께 자주빛과 푸른빛 연꽃이 함께 표현돼 있다.

지난해 중요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 포스터도 눈길을 끈다. 노랑과 검정의 보색대비로 연등사진과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되는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 행사가 소개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부처님오신날 포스터는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 어릴 때 읽은 책 한 권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맑고 깨끗한 동심에 봄날 씨앗을 뿌리듯 부처님 가르침을 심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큰 숲이 될 것입니다.

- 본지와 조계종 포교원은 공동으로 전국의 사찰, 사부대중과 함께 새학기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까지 어린이 불서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전법은 불자의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교원장 스님 등 '어린이에게 불서를…' 캠페인 동참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송묵스님과 포교원 교역직 스님, 종단협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이 캠페인에 동참 금일봉을 희사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원 스님
포교원장


송묵 스님
포교부장


법상 스님
포교연구실장


노휴 스님
포교국장


덕산 스님
신도국장


혜안 스님
연구실 사무국장


진관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이기흥
조계종중앙신도회장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

■ 문 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8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어린이 불서를 법공양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3월 28일 조계종 사회부가 개최한 외국인 스님 교육에 참가한 스님들이 한국어 전통 의식으로 입재식을 갖고 있다.

"한국불교 이해 도와드립니다"

조계종 사회부, 3월 28일 외국인 스님 교육 실시

조계종 사찰들의 초청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들에게 한국불교의 이해와 체류 기간 편의를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부(부장 법광)는 3월 28일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서 '2013년 외국인 스님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에 초청돼 체류 중인 외국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종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류 중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부장 법광 스님은 "지구촌이라는 말은 오래됐지만, 세계 불제자들의 공동 의식은 아직 부족하다. 세계 불제자들은 불법을 실천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며 "한국불교 대표 종단으로서 세계 각국의 스님과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한국불교 소개 영상 감상, 출입국 관리업무 안내, 스님들의 활동현황 조사 등이 진행됐으며, 교육 후에는 지율스님의 환경 다큐 '모래가 흐르는 강'을 관람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무형유산 보존 법적 토대 마련

조계종 관련법안 입법예고

조계종은 3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안은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통적인 불교가치를 지키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및 전승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안에 따르면 전승되고 있는 불교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종목은 예비목록으로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지정한다.

유산 신청은 종무원 문화부에서 담당하고 지정고시를 거쳐 성보보존위원회가 심의한다. 지정에 대한 결정은 총무원장이다.

한편,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4월 15일까지 서면과 이메일을 통해 받는다. 02)2011-1773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934호 INDEX

종합 2·3
홍천사 '사격 찾기' 불사
BBS 이사장 해임안 발의
법정 스님 출판물 중지 요청

시방세계 5
고려대장경연구소 20년

함께가요 강의실 8
불교와 물리학-양형진 교수

봄맞이 템플스테이·축제 12

해외 18
불법이 경영가치 英 메타엔진사

2013년 친환경 초의차 선금 할인 행사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초의차

최고의 품질, 순수한 무공해 친환경 초의차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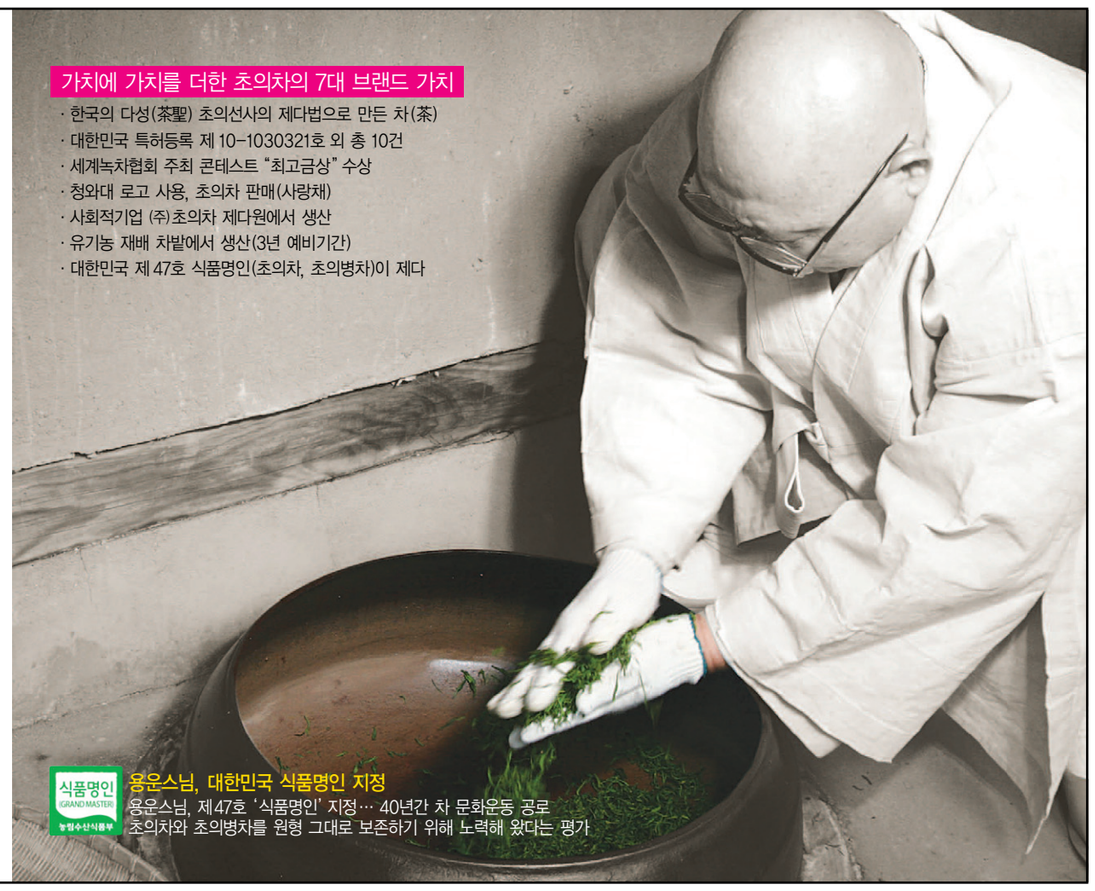
유기농 초의차는 지난 7년간 방치해서 웃자란 차나무를 밑둥까지 베어내어 갱신을 한 차나무에서 생산한 차입니다. 방치한 동안 자연 유기농 상태가 되어 그대로 관리하여 최상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량만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시기도 조금 늦지만 9년만에 생산하는 무공해차라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친환경 초의차와 함께 차향 그득히 몸도 마음도 힐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9년만에 생산하는 첫차라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판매가	할인가	수량(선착순)	선금주문기간	배송기간
첫물차	150,000원	60,000원	300통한정	4월10일 까지	5월10일까지
두물차	100,000원	40,000원	500통한정	4월20일 까지	5월20일까지
세물차	50,000원	20,000원	800통한정	4월30일 까지	5월30일까지

● 주문방식 : 온라인 www.choyeetea.co.kr / ☎ 061)285-0301~2 주문도 가능
※10만원 미만 택배비 3,000원 있습니다.
● 계좌번호 : 농협 301-0100-9481-71 / 국민 796201-01-453893 (예금주) 주식회사 초의차

사회적기업 (주)초의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초의길 30



가치에 가치를 더한 초의차의 7대 브랜드 가치
· 한국의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제다법으로 만든 차(茶)
·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 10-1030321호 외 총 10건
· 세계녹차협회 주최 콘테스트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로고 사용, 초의차 판매(사랑채)
· 사회적기업 (주)초의차 제다원에서 생산
· 유기농 재배 차밭에서 생산(3년 예비기간)
· 대한민국 제 47호 식품명인(초의차, 초의병차)이 제다

식품명인 GRAND MASTER 농림수산식품부
용운스님,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용운스님, 제47호 '식품명인' 지정… 40년간 차 문화운동 공로
초의차와 초의병차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적개심은 전생의 악업에 의한

윤회계 환영일 뿐

증오와 적대심을 사랑과 자비로 변화시켜라.

명백한 이유없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일들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티베트인들을 해친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전생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력으로 대항하면, 고통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소중한 무언가를 훔쳐갔다면, 화내거나 우울해 하지 마시고, 분노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복수나 앙갚음은 잊어버리세요. 마음 속으로 도둑이 무엇을 가지고 갔건 관용을 베풀고,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증오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오직 사랑입니다. 붓다의 전생담 중에 인욕이 얼마나 완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왕이 숲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가 그늘에서 쉬는 동안 숲 속의 빈터에서 사는 현자의 발 밑에 왕비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은둔 수행자는 '인내의 대가'라 불리는 '크샨티바딘'이었습니다. 그가 인내의 대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를 시험해 보려고 화나게 만들려 했습니다.

첫째는 그의 두 팔을 잘랐고, 다음에는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역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사랑과 자비 이외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현자는 훗날 그가 부처가 되었을 때 왕과 왕비가 그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흥천사, '도량 정비' 통해 사격 찾는다

2011년 사찰 운영권을 되찾은 서울 정릉 흥천사(주지 정념)가 도량 정비를 통한 '사격 찾기'에 본격 나선다.

흥천사는 "경기 포천시 소재의 토지 17㎡와 마을 도로의 10㎡, 서울 북악스카이웨이에 편입된 8필지를 '공용수용 및 부당이득금 소송'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처분 승인을 조계종에 최근 제출했다.

이들 자투리 토지는 과거 내홍 당시 흥천사가 토지를 수차 매각 처분하거나 도로 등으로 수용된 것들로, 그간 사실상 맹지(盲地)로 방치돼 있어왔다.

흥천사는 자투리 토지 처분 적립금을 도량 정비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흥천사 삼층석탑 앞 192㎡가 국유지로 돼 있기 때문이다. 흥천사는 국유지 사용료로 매년 4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삼보정재의 낭비를 막고 도량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매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종단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흥천사 도량 정비를 위한 자투리 토지 처분 승인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투리 토지 공용수용 처분

사찰 내 국유지 매입 계획

일요 · 어린이 법회도 활성화

"실용적 정비로 문턱 낮출 것"

행정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아 김봉석 변호사는 "흥천사 소유 토지들은 모두 자투리 토지라 환수 처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삼층석탑 앞 국유지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빠른 매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흥천사 주지 정념 스님은 "그간 방치됐던 흥천사의 사격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많다. 이번 자투리 토지 처분은 흥천사의 사격을 찾기 위한 방편"이라며 "이를 통해 사찰의 역할인 포교, 수행, 교육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량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흥천사는 다양한 법회와 프로그램으로 지역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흥천사는 초하루, 보름 법회뿐만 아니라 일요 정기법회,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일요법회의 경우 기존의 법회 방식을 탈피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정릉 산책과 108배 등 문화와 신행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주야간 불교대학(매주 수요일), '명상과 힐링' 강좌(매주 화요일)를 운영해 불자들의 전문적 수행을 이끌고 있다. 불자들의 자비심을 고취하기 위한 봉사활동도 년 10회 가량 운영하고 있다.

정념 스님은 "처음 운영 정상화가 됐을 당시 정기 법회에 나오는 신도가 손에 꼽았지만 이제는 150명 가량이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며 "아직도 신도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다. 도량을 실용적으로 정비해 누구나 편안히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사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이주 여성 자립 기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3월 28일 종로다문화가족센터를 자비나눔 방문해 결혼 이주 여성들의 원만한 정착과 자립을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장인수 종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의 소개에 따라 센터 및 직원 현황에 대해 전해 들었으며, 종로구와 중구의 다문화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스님은 결혼 이민자들이 함께하는 자조모임에 참석하여 베트남 전통 음식인 짜조 만들기 요리체험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은 센터 운영비 5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주 여성 자녀들에게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간화선 중흥 위한 법회 · 서화전 열린다

(재)선원수좌복지회, 4월 24일~ 5월 9일 조계사서

종정 진제 스님 시작으로

선지식 9명 릴레이 법문

(재)선원수좌복지회(이사장 의정)가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간화선 중흥을 위한 대선사(大禪師) 법회를 연다.

(재)선원수좌복지회는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 동안 매일 오전 10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간화선 중흥을 위한 대선사 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24일 입재법회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법사로 나서고, 이어 25일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26일 월탄 스님(원로의원), 27일 대원 스님(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28일 무여 스님(축서사 문수선원장), 29일 설정 스님(덕숭총림 방장), 30일 현기 스님(상무주암 수좌), 5월 1일 도문스님(원로의원)이 법문을 설한다. 마지막 회향법회날인 5월 2일은 고우스님(원로의원)이 법상에 오를 예정이다.

법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는 수좌 수행복지 기금 조성을 위한 선서화전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선서화전에서는 경봉 청담 서옹 성철 월하 혜암 탄허 원담 석주 월산 스님 등 한국 근현대 불교를 대표하는 선승들의 글씨와 그림들이 출품된다. '걸레 스님'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의 그림도 걸린다.

또한, 지난해 입적한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佛畵匠) 석정 스님의 작품 400여점과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장 송담 스님의 선서화도 함께 선보여진다. 신중일 기자

4월 15일 국민행복법회

종단협 이사회서 결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3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2차 이사회를 열고 4월 15일 대통령 초청 '한반도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 대법회'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반도와 국민행복을 위한 기원대법회에 대해 종단협 관계자는 "봉축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개최되는 법회다. 이때 박 대통령을 초청하고자 결정을 했지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광화문 점등식 △호국불교를 위한 청계천 전통등 행사 △봉축분담금 종단별 후원금 결정 등의 사안을 결의했다. 정혜숙 기자

범어사 율학대학원 인가

지난해 11월 총림으로 지정된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주지 수불스님)의 율학승가대학원이 설립 인가를 받아오는 4월 개원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3월 28일 열린 133차 교육원회의에서 범어사의 율학승가대학원 설립을 공식 인가했다.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은 앞으로 사찰승가대학원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경분별, 법망경 및 대승계경 강독, 불교윤리학, 작법(수계의식)등을 교육하게 된다. 신중일 기자

봉 행

고승대덕 초청 보살품계 수계의식 및 영산 대법회

(사)한국불교조견종(照見宗) 창종 기념 한마음 전국 노래자랑

▶ 불기2557(2013)년 4월 28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

고승대덕 보살품수 수계의식

7증사 증명 법주 큰스님으로부터 보살 품수를 수계받은 자야말로
진정한 불자로 거듭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인연이 있어야 한다. 무늬만 불자이고 절에만 가면 무조건 불자라고
생각 하지만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날 비로소 거듭 새롭게 불자로 태어나는 것이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이길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 준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불싱으로 승화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부처님의 계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특전 - 자신의 수행을 큰스님으로 부터 점검받고 보살 법계를 품수 수계함.
(의식 후 고가의 소원성취 기념품 전원 증정)

※ 당일 혼잡하오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소리 한마음 전국노래자랑

스트레스 우울증 화병 100%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100세 수명장수 심리힐링 인연의 장!!!

☞ 당신도 음성공양으로 전법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상 내역 : 최우수상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우 수 상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인 기 상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참가자 전원 고가의 소원성취 기념품 증정

❀ 찬조출연가수 : 가인, 소정 외 다수 / (사)한국불교조견종 문화예술전속무용단 MC / 한국연예인협회 부회장 안종남

❀ 응시자격 : 음악을 통해 예술적, 예능적 소양과 소질을 개발하고 삶의 진실을 찾아 진리를 배우고 익히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

❀ 특전 : 소질과 성량이 뛰어난 자는 우선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이수 후 조견종 전법가수로 활동 방송음원 제작 및 행정적 재정적 후원함.

- 신청접수기간 : 2013년 4월 1일부터 28일 당일접수까지
- 신청접수전화 : (예약) 010-3365-9185 / 010-9228-0622
경기 파주시 파주읍 향양 2리 214-4번지 (사)한국불교조견종 대본산 선화사

신청인	성별	나이	주 소	신청곡 및 가수 이름

● 주 최 : (사)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 ● 후 원 :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종교세계신문사

오시는 길 (버스) : 703번 (서울역,구파발) / 33번 (김포공항,일산) / 14번, 12번 (문산버스터미널)
017번 (마을버스 문산버스터미널 앞) : 오전 7시 5분, 10시 5분, 12시 5분. (금촌 주내 - 절도착, 절출발) : 2시 20분, 4시 20분, 6시 20분.

“동조여래입상은 반환 후 환수해야”

제자리 찾기, 1일 기자 회견

일본에서 도난된 뒤 국내에 반입된 국보급 불상 2점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문화재제자리찾기가 불상 1점에 대한 일본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4월 1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상 2점 중 하나인 동조여래입상의 일본 반환을 촉구했다.

혜문 스님은 “원래 소장처가 충남 서산 부석사로 밝혀진 금동관음보살좌상과 달리 동조여래입상은 불법적 유통경로를 입증할 기록이 전혀 없다”며 동조여래입상의 일본 반환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조여래입상이 ‘양심과 진실’의 힘에 의해 일본으로 되돌려진다면 식민지 시기 일본이 우리 민족의 품으로부터 빼앗아간 ‘민족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화엄사 주지후보에 영관스님 선출

3월 28일 산중총회서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 주지에 영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제19교구 화엄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서)는 지난 3월 28일 경내 화엄원에서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제20대 주지후보에 영관스님(천은사 주지)을 선출했다.

이날 주지후보 선출은 최근 변경된 종헌 제91조 및 산중총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처음 실시된 선거로, 2차 결선 최종 개표결과 영관 스님은 전체 140명의 투표자 중 89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유효득표 중 80표를 얻었고, 결선에 나선 종두 스님은 8표, 무효가 1표였다.

영관 스님은 개표가 끝난 후 “문중스님들 잘 모시고, 교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영관스님은 1984년과 1988년에 범어사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으며, 화엄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나왔다. 현재 화엄사 부주지와 구례 천은사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방송 사태, 어디로 가나

이채원 사장 해임안건이 상정됐던 불교방송이사회가 이사장 영담 스님의 해임안을 발의했다. 불교방송이사회는 3월 28일 서울 가든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 80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영담 스님 해임안을 발의하고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재소집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이사장 영담 스님의 해임요청은 대한불교진흥원측 재가 이사들 중심의 11명 이사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날 재적 과반수가 요구한 차기 이사회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정관상 이사장 해임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어, 이사장 영담 스님의 해임여부에 교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총 22명 이사 중 공석인 중앙승가대총장과 종상 스님(불국사), 춘광스님(천태종) 등을 제외한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이날 이사회의 뜨거운 감자는 이채원사장 해임안과 소위원회의 활동 보고였다.

오후 2시부터 6시가 넘은 4시간여 걸쳐 진행된 이사회 후 브리핑에 나선 김윤수 이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는 “소위원회 활동보고는 이채원 사장의 해임사유는 없고, 뮤지컬 원효나 불교방송후원금 사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이어 김 이사는 “특히 뮤지컬 원효 제작 당시 불교방송 모금액 7억1천7백만원을 포함한 총 제작비 10억 1천7백만원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이사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는 영담 이사장 스님 해임 안건 상정 배경에 대해 “법인운영과 뮤지컬 원효 제작비 문제가 주 사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채원 사장 해임 사유 없다” 결의
이사 11명 이사장 해임안 발의
뮤지컬 제작 등 이사장 문제 제기
15일 內 이사회 소집 후 결정

특히 이사장 영담스님 해임안은 이날 이사회에서도 거론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에 참석했던 모 이사는 “소위원회 보고 결과에 대한 영담 이사장의 반박 발언 직후, 진흥원측 이사 3명이 즉석에서 이사장해임 안건 상정을 발의했지만 이사장이 거부해 무산됐다”고 이사회장의 상황을 전했다.

사실상 이날 이사회 결의만 놓고보면 불교방송 이사회가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채언 사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진흥원측 이사들이 포함된 재가 불자 이사들이 현재 겪고있는 불교방송의 경영난과 스님 진행자 사퇴 등의 파행 운영 책임을 이사장 영담 스님에게 묻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번에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한 불교방송 임시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차기 이사회는 4월 13일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된다. 또한 모든 안건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결정된다. 만일 총 22명 이사중 과반수인 11명의 이사가 참석하면 이사회가 성원되는 셈이다. 또한 이중 6명이상이 찬성하면 이사장 해임안도 가결된다.

이날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 등으로 역공을 당해 오히려 해임 위기에 처한 영담 스님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임원(감사) 선임의 건,감사 보고의 건,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사장 해임의 건, 방송파행 및 경영혼란에 대한 사장 징계의 건 등이 상정됐으나 결의된 사항 없이 모두 차기 이사회로 미뤄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정전 60년’ 한반도에 평화를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운영위원회(봉행위원장 자승, 상임운영위원장 수불)는 3월 26일 부산 범어사에서 ‘한반도평화기원 수륙재’를 봉행했다.

이날 수륙재에는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해인사 주지 선혜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등 각계인사와 시민불자 3,000여명이 참석했다.

글 · 사진= 박경수 부산지사장

입학예배 대광중 특별 장학 실시

‘종평위’ 요구… 서울시 교육청, 시정 조치 진행

입학식을 예배 형식으로 진행해 물의를 빚은 서울 동대문구 대광중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이 이뤄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광중의 입학 예배에 대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조계종 종평위) 시정 조치 요구에 회신 공문을 3월 27일 보내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3월 7, 8일 2회에 걸쳐 대광중을 상대로 특별 장학을 실시해 학생의 자율적 참여 하에 종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3일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위해 종교 과목 편성 시 교양 성격의 타과목을 복수편성해야 하며, 종교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침을 안내했다”고 시정 조치 사안을 설명했다.

조계종 종평위는 일반 학교인 대광중 입학식이 예배형식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3월 7일 서울시 교육청에 ‘해당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학교 내 종교편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종교차별 예방교육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신중일 기자**

“후배 스님에게 초기불교 바른 이해를”

초기불전연구원, 승가대학 필수 교과목 교재 출간



승가대학 표준교육과정 중 필수교과인 초기불전 교재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과 대림 스님이 번역해서 엮은 〈니까야 강독 Ⅰ,Ⅱ〉를 승가대학 교재로 출간했다.

〈니까야 강독 Ⅰ,Ⅱ〉는 조계종 교육원에서 추진 중인 승가대학 표준 교과목에 맞춰 출간된 것으로 초기 불교에 대한 종단 교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교재는 각 권마다 ‘출가자의 길’과 ‘교학과 수행’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학인 스님들에게 필요한 초기경전의 경구를 부제 맞춰 경전을 선정했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묵 스님은 “‘출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니까야 강독1〉을 엮었다. 그래서 부제도 ‘출가자의 길’로 정했다”며 “책의 1편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경전을 모았으며, 2편은 출가자의 자세를 설한 경전을, 3편은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와 관련된 경전을, 4편은 ‘계 · 정 · 혜’를 주제로 출가자가 닦아야 할 삼학에 관련된 말씀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교학과 수행’이 부제인 〈니까야2〉에 대해 “초기불교 교학의 기본 주제인 5온 · 12처 · 18계 · 4성제 · 12연기를 주제로 경전을 선별했으며, 초기불전에 정리된 37보리분법과 사마타, 위빠사나에 관계된 경전들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각 주제별 경전에는 짧은 해설도 덧붙인 것도 특징이다. 또한, 승가대학 교재이지만 일반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정 스님 관련 출판 더 이상 허용 안돼”

맑고 향기롭게, 스님 서적 판매 및 관련 출판 중지 요청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던 법정 스님의 유지가 일부 서점과 출판사로 인해 바래지고 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3월 27일 “법정 스님의 유지를 따르기 위해 스님의 글과 사진을 인용해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출판사와 스님의 저서를 판매하고 있는 일부 서점에게 중지를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스님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스님 관련 출판물이 계속 무단 발행, 배포된다면 법정스님 유언의 뜻을 저버리게 되며,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유언 내용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맑고 향기롭게는 현재 소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적 중개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재고서적에 대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법정 스님 관련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정스님 관련 출판물 자진신고는 출판사명, 출판물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신중일 기자**

손에잡히는참선, 지혜의체험 금강단식
3,6일간의깨달음
왜 참선인가! 몸과마음. 이대로 두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몸과마음. 바꾸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깨달음이다. 완전무결한 본래자신으로 돌아가는 길
금강단식 면역성 피부미용아토피 금연금주즉각해결 고혈압 당뇨 성인병 정신 우울증 예방치유 다이어트1일최고3kg 한달25kg
참선 수련회 6일 4월19일금~24 5월 3일금~ 8 선회 3일 4월19일금~21 5월 3일금~ 5 깨달음이란? 머리가 둔하면 둔한대로 머리가 흐리면 흐린대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단식
단기출가:30일,50일,100일
행복제작소 제주원명선원중앙선방 활인선원 ☎1644-5266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비봉산
자세한 내용은 www.hwalin.n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일 주 문



청소년 집중명상 지도자 연수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4월 27일까지 청소년10분 집중명상 지도자 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02)445-8484



국제선수행대회 '길없는 길' 개최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4월 16~18일 수덕사와 백제의 미소길 일대에서 국제선수행대회 '길없는길 2013'을 개최한다.



제36기 단기출가학교 모집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10일 까지 제36기 단기출가학교 행자를 모집한다. 단기출가학교는 5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다. (033)339-6616



난치병어린이 위한 3000배 정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은 4월 27~28일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난치병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한다.



약사여래대불 조성 기공식

서울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은 3월 30일 경내 대불광장에서 18미터 높이의 세계 최대 약사여래대불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02)577-5800



인천청소년문화원 개원 법회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은 4월 7일 청소년문화원 개원법회 및 석가모니부처님 점안식을 연다.



부평 부개성당서 공연

성악가 정율 스님은 3월 30일 부평 부개성당 부활절 전야미사에서 향심과 아베마리아 등을 공연했다.



동국대 일산 바이오관 착공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3월 28일 일산 바이오메디캠퍼스에서 바이오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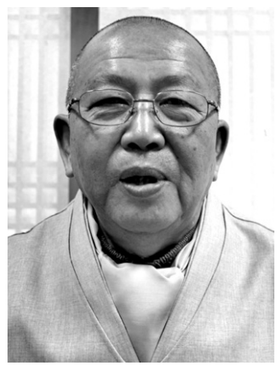
〈인사〉 대구불교방송 사장에 장적 스님



대구불교방송 제 6대 사장에 장적 스님(불교방송 이사)이 선출됐다. 이는 3월 26일 대구불교방송 운영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장적 스님은 1977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과 대구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조계종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방송 본사 이사,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등을 맡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충담 스님 소신공양 가르침 이을 터"

충담스님 탄신100주년 기념
1천원불 조성 불사하는 지성 스님



4월 18일 감로사서 원불 조성 법회
점토로 빚은 불상에 직접 점안해
탄신 1백주년 사업, 수계식 등 다채

"올해는 충담 대종사 탄생 1백주년과 열반 15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의 가르침과 수행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호명산 가평 감로사에 원불 조성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문 조각가가 청자 빛는 점토로 기본틀을 만들어 놓으면 원불 조성을 원하는 불자들이 직접 부처님의 상호를 완성하는 형식으로 펼쳐집니다. 정성껏 내 손으로 조성한 원불은 신심을 고취시키고 충담 스님의 향훈을 이어받는데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충담 스님의 제자인 가평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사진〉은 4월 18일 오전 11시에 '충담스님 탄신 1백주년 및 열반 15주년 기념 원불조성 개원법회'를 봉행하는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성 스님은 "태고종 승정을 지내신 충담 스님은 살아생전에 희견(喜見)보살은 육신으로 공양을 서원하고 몸을 태워 불은에 보답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원력을 세워 실현하겠다고 틈만 나면 후학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원력을 실제로 이곳 감로사에서 15년전 스스로 몸을 태워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통해 열반하시며 몸소 보여주셨습니다."라며 "스님은 비록 우리곁을 떠나셨지만 원불조성을 통해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증득하신 대종사의 큰 뜻을 기리고자 불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원법회부터 5년동안 1천불 조성을 목표로 불사를 전개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지성 스님은 또 충담 대종사의 수행 일화도 함께 소개했다. "대종사께서는 80세때부터 장좌불와를 하셨고, 태양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아미타 염불수행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이러시다가 눈이 멀 수도 있을 것 같아 선글라스 안경을 사다 드렸더니 치우라며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노구에도 수행에 철저한 선지식이셨지요."

지성 스님의 이번 불사는 감로사의 독실한 신도인 비움(空白)의 조각가 노재승 前 성신여대 미술대학 명예교수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감로사에 기도를 하러 왔다가 자신의 손으로 원불을 조성하면 불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란 아이디어를 지성 스님에게 건넨 것이다.

이에 지성 스님은 수락했고, 노 교수와 춘천 소양강 처녀 및 유관순 열사 동상을 조각한 남상연씨가 팔을 걷어 부치고 80프로 정도 완공단계인 기본틀을 제작해 놨다.

지성 스님은 "인도전역을 통일한 아쇼카 대왕도 전생에 어린시절 친구들과 소꿉놀이로 진흙 불상을 만들고 모래로 밥을 지어 부처님께 예배 공양한 공덕으로 위대한 불교를 전파한 전륜성왕이 됐듯이, 이번 대작불사를 통해 모든 불자님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길 발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원불 조성 사업이외에도 지성 스님은 1백여 충담 스님 문도회 회원들과 함께 충담 스님 열반일인 6월 12일에 △대승보살계 수계식 △영산재 시연 △소신공양 관련 사진전시회 △학술세미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명예교수가 '충담 스님의 소신공양'을 주제로 학술 강연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성 스님은 "온중생의 번뇌를 태워 버리는 대원행(大願行)을 보이신 충담스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도 육신을 태우는 결기와 절실함으로 부처님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청불회장에

4월초 조계사서 취임식… 봉철 스님 유발상좌



청와대 불자모임인 청불회 신임 회장에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추대됐다.

청와대불자회 구성을 위한 실무를 맡고 있는 최상화 청와대 춘추관장은 "3월 27일 새 정부 첫 청와대불자회장을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불회장 취임법회는 4월 초순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됐다.

유 수석은 영주 양백정사 봉철 스님의 유발상좌로 대학생 시절부터 봉철 스님에게 번역 등을 맡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철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은사인 前 총무원장 정대 스님과 함께 전강 스님의 문하다.

유 수석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분과 간사로 발탁돼 청와대에 들어갔다. 인수위에서 현 정부 조직을 설계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상공부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나 이후 학계로 진출해 행정학자로 명성을 쌓아왔다. **노덕현 기자**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스님

3월 22일 취임… 종단의무교육 과제로



(사)대승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암)은 3월 22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3대 총무원장 혜암스님 취임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은파 스님, 종회의장 만송 스님 등 종단임원 및 종도 300여명이 동참했다.

혜암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도와 함께 생활불교 실천을 위한 심신치유의 선명상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종단 사무실 확충과 종도의무교육 상설화, 종단 납골사업 추진등을 당면과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혜암 스님은 이날 총무부장 도일 스님 등 부·국장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종정 은파 스님은 법어를 통해 "화합하는 종단으로서 승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자"고 당부했다. (051)527-5431 **노덕현 기자**

동국대 법학과 동창회, 장학금 전달



동국대 법학과 동창회(회장 김용길)가 3월 27일 법학대학 장실에서 법학과 소속 재학생 8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법학과 동창회는 2010년 6명에게 총 600만원을, 2011년 7명에게 총 7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올해는 8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년 수혜 규모를 늘려오고 있다.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김용길 법학과 동창회장과 김상겸 법과대학장, 장학생 8명 등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간담회 열어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3월 26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포교사단 지역단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흥 중앙신도회 회장을 비롯해 임희웅 포교사단 사단장 및 포교사단 지역단장 20명이 참석했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은 포교사단 단장들에게 신도회 산하 신행단체와의 활발한 연계활동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광진복지관 2013동아리 축제 개최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3월 26~27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 17개 동아리가 참여하는 2013 동아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복지관 내 풍물패 등 다양한 동아리에 소속된 어르신들이 흥겨운 한때를 보냈으며, 신규 동아리 회원 모집 등도 진행됐다. (02)466-6242 **노덕현 기자**

종 헌 개 정 공 고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 울산사무소에서 개최된 중앙종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종헌이 개정됨을 선포한다.

제 5 장 중앙종회 제 23 조 임기 중앙종회의원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보궐의원은 전임의원에 잔여기간으로 한다. 에서
제 5 장 중앙종회 제 23 조 임기 중앙종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단, 보궐의원은 전임의원에 잔여기간으로 한다. 로 개정

제 7장 총무원 제41조 임기 1항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총무원장책임제로써 각원과 부서는 진퇴를 같이한다. 에서
총무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총무원장책임제로써 각원과 부서는 진퇴를 같이한다. 로 개정

2013년 3월 29일

대한불교원효종 총 무 원 장 향운
중앙종회의장 원봉


고려대장경연구소 20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을 들고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고려 대장경 가치 세월가면 더 빛날 것”

고려대장경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봉행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300여 대중 발원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 · 전달식도

“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정보화 시대 불교도 변해야 합니다. 대장경의 디지털화는 불교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 등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전산화 작업을 해온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창립 20돌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3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및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 ·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법회에는 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을 비롯해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 스님, 경국사 주지 정산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과 이태녕 서울대 교수,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 300여 대중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격려사, 각계 축사, 공적기 및 감사기 전달, 표창장 수여, 초조대장경 복간본 봉정의식 및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은 기념법회에서 “좋은 생각을 하는 만큼 새로운 불교가 만들어 진다”며 “통합대장경 발간, 인지과학과의 연계 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문화부장 진명 스님 대독을 통해 “고려대장경 전산화와 연구 작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성과”라고 치하하며 “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정보화 시대에 맞춰 디지털 대장경을 우리 손으로 개발했기에 문화선진국으로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여겨진다. 원형이 모호해진 인터넷 상에서 고려대장경의 가치와 우수성은 세월이 가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화부 차관 재임 당시 대장경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장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당시 불교는 현재의 한류역할을 했으며 대장경은 그 문화를 집약한 것”이라며 “한국 전통문화를 육성하는 근간에 대장경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축사했다.

이날 대장경 사업의 공적을 담은 공적기는 이태녕 교수, 한용의 삼성문화재단 사장, 이어령 前문화부 장관, 소흥렬 교수, 랭카스터 교수 등에게 전달됐다. 또 남권희 교수 등 대장경 사업에 참여한 연구진들에게 감사기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교장 전산화·검색 시스템 재정비 새 10년 불사”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 스님



“대장경 연구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문화재로서의 불교 뿐만 아니라 정보와 콘텐츠로서 활용돼 불교와 사회를 바꾸길 바랍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사장 종림 스님은 지난 20년과 새로운 20년에 대한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종림 스님은 “근대화 과정에 불교가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한자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당시 종단은 혼란기였다”며 “이런 시기에 대장경을 전산화하는 것이 불교를 바꾸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종림 스님은 “해인사 대장경은 누구나 자랑하는 세계적 보물이지만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진행 중인 통합대장경 사업은 중국 · 일본 · 속장경이 진행됐으며 티벳과 범어대장경 정리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종림 스님은 “대장경의 활용을 위해 인지과학 등과 연계해 검색체계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크게 보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인쇄술과 목판기술, 건축 등 학문이 모인 대장경학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민족문화 발전에 전국민 참여해야”

각계 인사 축하와 향후 과제 밝혀

대장경 전산화 사업에 힘을 보탠 각계 인사들은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창립 초기부터 연구사업에 힘을 보탠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3년 대장경 전산화가 시작됐을 때 맨바닥 수준이었다”며 “이렇게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데에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다. 새로운 세대에 찬란한 불교문화와 정신이 전해질 수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용의 삼성문화재단 이사장도 “대장경 사업이 원만히 진행된 것은 2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진한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런 성과가 1000년 후에도 전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교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에서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


한용의 삼성문화재단이사장


루이스랭카스터 버클리대교수

루이스 랭카스터 美버클리대 명예교수도 “경판을 목판으로 새기기 시작한지 천년이후 최신기술과 방법으로 그 가르침을 옮기는 중요성은 재상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며 지면을 통해 의미를 전했다.

‘디지털 불교 산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걸어 온 길


1990년대 전산화 모습

1993년 3월 1일 발족해 1994년 4월 1일 공식 창립한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설립 3년만인 1996년, 세계최초로 81,258판의 고려재조대장경을 전산화 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재조대장경 영인본과 초조대장경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으며, 1998년 〈고려대장경 해제〉, 1999년 〈고려대장경 용어사전〉, 2000년 〈고려대장경 이체자전〉을 발간하고 전산화했다.

전산화 결과물은 CD로 배포된 〈고려대장경2000〉, 〈고려대장경2001〉, 〈고려대장경2004〉 등이며 2008년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돈황프로젝트를 진행해 초조 및 재조 고려대장경 이미지DB와 돈황 문헌 이미지DB를 연동하도록 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주기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성과물을 장경학술총서로 펴내는 한편 ‘화엄사 화엄석경 보존복원사업’, ‘돈황 프로젝트’, ‘한일 공동 초조


2004년 초조대장경 DB구축사업 당시 모습

대장경 디지털DB 구축 및 영인본 출판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일 공동 고려초조대장경 복원간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01년 〈팔만대장경 선역본〉과 〈대장경 남북번역 용례 및 통일안〉을 발표하는 등 남북한 통일 대장경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에도 나서 1994년 해인사에서 ‘제2차 세계전자불전협의회’를 주최했으며 ‘불전통합목록프로젝트’ ‘전자문화지도협의회’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고려대장경 연구소는 ‘고려 교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대장경학회 창립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인지과학 등과 연계해 검색 시스템을 재정비중이다.

1993년 3월 3일
해인사대장경 연구소 발족 및 1차세미나 개최

소식지 〈장경도감〉 창간호 발행

1994년
금강경 일자생성 프로그램 개발 및 금강경 일자색인집 발간

1995년
〈고려대장경판 교육자료집〉 CD집 발간 및 인터넷 서비스

1998년
‘디지털 팔만대장경 불사’ 캠페인 (본사 공동)

1999년
고려대장경 검색서비스 실시

2000년
고려대장경 2000 전산화본 발표, 이체자전 출간

2001년
〈팔만대장경 선역본〉 (북한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간) 출간

2002년
대한불교진각종 〈소의경전 전산화〉사업 시행

2003년
화엄사 화엄석경 보존 복원사업 추진

2006년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 구축사업 시행

2007년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포식

2008년
고려대장경과 돈황문헌 비구연구시스템 구축

2011년
고려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 및 특별전

2012년
초조대장경 이운퍼레이드 및 기념식

2013년
창립20돌 기념법회 · 교장 학술발표회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동방칠성교주,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72길 ☎ 전화 010-7415-0803 / 051)343-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선(禪)심리상담으로 마음치유 하세요

동국대 국제선센터, 3월부터 '선 심리 상담서비스' 제공

"시험에서 낙방한 후 불확실한 진로 때문에 우울감이 들어요."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 위축되고 제 자신이 싫어집니다." "선(禪)이란 무엇인지, 명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취업준비와 진로문제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는 대학생들이 많다. 각종 매체에서는 '명상' '힐링' '치유' 열풍이 분다고 말하지만 정작 대학생들은 스펙 쌓기와 아르바이트에 열중해 치유 받을 시간은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국제선센터(원장 수불)가 진행하는 '선(禪)과 심리 상담서비스'가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해 눈길을 끈다.

국제선센터는 올 3월 초부터 대학생, 교직원을 비롯한 일반 시민에게 무료 심리상담과 선(禪) 수행에 대한 길안내를 해 주고 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4시까지 예약제로 진행되며, 참선수행을 오랫동안 해온 동국대 학인 스님과 선(禪)심리상담사가 상담자로 나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명의 내담자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6~7명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1:1 상담 및 참선수행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국제선센터는 "교내에서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을 비롯해 불교와 참선수행을 배우고 싶은 사람 등 의지처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전문 심리상담사가 미술치료도 함께 병행한 상담을 제공하며, 개인에 따라 15분 정도의 선수행 체험을 하도록 돕는다.

대학생 · 일반인에 모두 개방
전문상담사, 스님이 상담지원
표정 밝아지고 자신감 얻어
불교 알리는 가교역할 톡톡

상담이 진행되기까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동국대 대각전 법당 내부에 있는 국제선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미리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를 골라 전화 예약을 한 뒤 상담지원을 요청한다.

상담시간은 기본 1시간이며 심리상담의 경우, 선(禪)심리상담사가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미술치료도 병행한 상담을 제공하며, 수행에 관심을 보이는 내담자에게는 선수행에 대한 길안내를 해주고 있다.

선(禪)심리상담은 법사인 상준 스님이 부처님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한 삼법인,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등의 교리로 상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선 수행을 지도한다.

지금까지 동국대 국제선센터를 방문한 내담자는 동국대 재학생을 비롯해 대학교 직원, 지역주민, 불자들이다. 이들은 진로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 자살충동, 인간관계 및 진로문제와 수행법에 대한 문의 등 상담내용을 들고 국제선센터를 찾는다.

이정은 상담사는 "상담을 받는 학생 중에는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있다"며 "불교나 수행에 관심을 보이는 내담자에게는 선(禪)수행에 대한 길안내를 하고 정기 간화선 수행 모임인 '법등회'나 방학 때 진행되는 간화선 집중수행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담자들은 '선(禪)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후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동국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윤 모씨(여 · 30대)는 "인간관계와 진로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상담선생님이 마음 깊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줘 보다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아 안정감을 느낀다"며 "내 속의 나를 찾는데 도움이 됐고 내면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동국대 재학생인 최 모씨(남 · 20대)는 "학교에서 불교 교양 수업과 템플스테이로 수행체험을 할 수 있었지만, 스님과 함께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참선 수행을 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랫동안 참선 수행에 빠졌다. 아직 기간이 짧지만 분명 삶의 자세에 참선이 좋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자주 들를 생각이다"고 말했다.

국제선센터는 내담자들에게 우선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선수행에 대한 길안내를 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동국대 국제선센터 과장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내담자들도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어 첫 출발이 좋다"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상담을 끝내고 나가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도 한다.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적 · 물적 자원이 확보되면 '선(禪)심리상담서비스'를 지속해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혜민스님 신발 등 아름다운가게에

LG유플러스 "광고촬영 소품 8000만원 상당 기증"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혜민 스님(美 햄프셔대 교수 · 사진)이 LG유플러스 광고촬영 때 착용했던 신발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해 눈길을 끈다.

LG유플러스는 3월 24일 "U+LTE 광고촬영에 활용했던 8000만원 상당의 의상 및 소품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하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되는 물품은 2012년 TV광고 제작 시 활용했던 것으로, KBS 개그콘서트의 '불편한 진실', '네가지', '용감한 녀석들' 출연진과 탤런트 조정석, 싸이편에 출연한 배우 고원희 등이 착용한 의상 및 소품 약 300점이다.

이 가운데 개그맨 신보라의 흰색 페도라, 박성광의 레게 가발과 혜민 스님의 스님신발 등 소품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6일 아름다운가게 강남구청역점에서 '아름다운토요일' 행사를 개최하고, 기증한 물품을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증된 물품은 원 가격대비 8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나눔 사업에 사용된다.



LG유플러스 측은 "광고소품은 일회성으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의미있게 활용해 나눔을 실천하고, U+LTE에 대한 고객의 관심과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혜민 스님은 2012년 4월 LG유플러스 광고 출연료 전액을 사회공헌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혜민 스님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며 4000만원을 쾌척했다. 이나은 기자

교계 현직자와 비전공유 한다

대불련, 4월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공청회 진행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는 올해 50주년을 맞아 '선재! 붓다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회(운영위원장 임동주)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4월 5일~5월 3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전법회관 지하 1층 회의장에서 대불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대불련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 그에 대한 해결점을 서로 이야기 하는 자리다.

4월 5일에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스님 및 실무 종무원을 초청해 '종단에서 바라보는 대학생 포교 그리고 대불련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4월 12일에는 현직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및 동문들이 모여 '자신의 활동경험,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불련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 △4월 19일에는 중앙신도회, 교불련(교수불자연합회), 대불청, 파라미타 관계자들이 '불교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대불련'을, △4월 25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연대단체가 '오래된 새길!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기'를 △5월 3일 대학생 단체 및 연구그룹이 모여 '새로운 사회의 대안, 청년 불교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는다.

대불련은 "대불련에 깊은 관심을 주는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무료특강 삼세번' 개최

풍경소리, 월 3회 진행

전국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법음을 전하는 풍경소리(대표 혜자)가 심리학 · 불교상담 · 자애명상 · 아비담마 등을 주제로 '무료특강 삼세번'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한 가지 주제로 월 3회 진행되는 것으로 1~3째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풍경소리 대강의실에서 진행된다.

4월 주제는 '날마다와 함께하는 성격이야기'로 이윤정 마인드코칭연구소장이 '에너지로 성격 이해하기' '성격 콜라주 만들기'를 생활 속 사례공유와 함께 4월 4일, 11일, 18일에 진행한다. 참가희망자는 선착순 25명 풍경소리(www.pgsori.net)로 전화 신청 받는다. (02)736-5583 이나은 기자

명상 배우고 인증서 받자

파라미타, 청소년수련 진행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입시와 학업으로 지친 청소년들에게 명상프로그램을 접목해 참나를 찾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진행한다.

행사는 4월 6일, 13일, 2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봉은사 내 수련원에서 만13~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아탐색' '관계의 이해' '자존감 향상'을 주제로 명상, 호흡명상 등 명상 기초, 내면탐색, 글쓰기 등을 배우게 된다.

참가희망자는 파라미타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는 국가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확인서 발급(여성가족부장관) 받게 된다. (02)723-6166

이나은 기자

제13대 불레협 회장 혜만 스님 취임

"불레협 법인화, 전국 네트워크 형성 할 것"

제13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으로 혜만 스님(동두천 자재암 주지)이 취임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 이하 불레협)는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제12 · 13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불레협 율동리더와 경기북부연합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삼귀의, 불레협 소개 및 경과보고, 내빈소개, 임명패 수여, 협회기 전달, 공로패 수여, 이임사, 취임사, 부회장 임명장 수여, 축사, 선불남성합창단 축하공연, 사홍서원, 연회 및 공양 등으로 진행됐다.

혜만 스님은 취임사에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애민하듯이 불자들도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바른 전법에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며 "불레협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단체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고 지역포교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해 여러 종단과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불레협 부회장으로 부명 스님(백령도 몽운사 주지) 귀영 스님(양주 대승사 주지) 법농 스님(서울 한성사 주지), 유광옥, 정기자 씨 등이 선임됐다.

한편 법회에는 선묵혜자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 정수 스님(봉선사 주지), 송묵스님(포교원 포교부장), 중앙종회의원 장적 스님, 퇴휴 스님(법장사 주지),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임희웅 포교사단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나은 기자



이 · 취임 법회 후 불레협 회장 혜만 스님을 비롯한 부회장 부명 스님, 귀영 스님, 법농 스님 등 사부대중이 기념촬영을 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3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4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행복한 가정 꿈꾼다면 가족교육 받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실시 불교계 6곳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교육사업들. (사진제공=건강가정지원센터)

사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학교폭력, 패륜범죄 및 강력범죄의 범행 배경을 살펴보면 피의자 또한 가정불화로 정서 ·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불화 및 폭력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기가정뿐 아니라 일반가정도 상담과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각 단위 구청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한 동국대, 위덕대가 서울 영등포구 · 종로구 · 중구 · 중랑구와 경기도 김포시, 경북 포항시 등 6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가족돌봄나눔사업, 돌봄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대외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가족기능 강화 △가족문제 예방과 감소 및 위기 치료 △가족 잠재력과 자립능력 개발 △세대별 욕구충족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들

가족교육사업은 말 그대로 가족생활을 잘하는 법을 갈쳐주는 곳이다. 좋은 가정 꾸리기를 희망하는 예비부부와, 임신을 한 신혼부부, 경제활동으로 가정에 소홀한 아버지, 노인부부 등이 참여대상이다.

센터는 특히 생애주기별로 가족의 형성과 확대 축소에 따라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단계에서 해내야 할 과업들에 대한 교육을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가족상담사업은 예비부부, 신혼기, 중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문상담가는 가족이 겪는 문제의 일시적 대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도와준다.

가족문화사업으로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캠페인, 가족이 함께 여가보내기, 가족봉사단활동, 가족합창제 등 가족단위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 센터는 가족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특히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을 통해 개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을 가진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이면 된다.

가족과 함께 사회와 이웃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가족돌봄나눔사업에 참여해보자. 가족돌봄나눔사업은 돌봄의 대상을 본인 가족으로 국한하지 않고 이웃과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확장해 활동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가족봉사단 활동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나 이웃을 돕고 토요가족돌봄나눔으로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두가족품앗이 활동이나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며 이웃의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장을 나눌 수 있다.

이밖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 위기사건 경험가족, 조손가족들의 위기지원과 가족역량을 강화하기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

이런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은 저소득계층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또는 심층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 등 경우에 따라 소정의 상담료를 받기도 한다.

시간이 나면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해보자. 현재 전국에 150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www.familynet.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화(1577-9337)로도 가능하다.

또한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가족건강 교육을 필요로 한다면 문의해도 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 어린이집, 교육센터 등과 협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인수 사무국장은 "가족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가정들이 많지만, 가족문제 외에도 학교부적응, 우울증,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상담 문의도 들어온다"며 "건강한 가정을 위해 예방도 중요하지만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해당지역 주민 외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한국마사회, 영통복지관에 8천만원 전달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으로 9년간 5억원 지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수안 스님(왼쪽)과 길영필(오른쪽) 한국마사회 수원지사 지점장이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관장 수안)은 3월 28일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지점장 길영필)로부터 저소득 생활기금을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노인생애체험센터' '내 꿈을 디자인하다' 등 4개의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한다. 한국마사회 수원지사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2005년부터 저소득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왔으며, 이번 8천만 원 전달까지 합하면 9년간 약 5억 원의 복지사업기금이 지원됐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이번 지원기금으로 저소득 어르신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서비스', 청소년 효(孝)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노인생애체험센터',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내 꿈을 디자인하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두드림' 등 4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한국마사회 수원지사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수원 전 지역의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위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소년과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봉사단 'WE CAN'을 조직했다.

청소년 · 대학생 봉사단 'WE CAN'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지역사회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 노인 ·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 및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관은 3월 23일 'WE CAN' 2기 발대식을 진행하고 중고등학생 25명과 멘토로 활동할 대학생 6명이 참여해 1년간 진행하게 될 인식개선 봉사활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031) 201-8300

이나은 기자

1366경북센터, 운불련 · 영남대와 협약

위기여성위한 차량 · 법률지원 강화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센터장 진원)는 지역 불교연합회 및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위기여성을 돕는데 박차를 가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는 3월 28일 직지사에서 김천시 운전자불자연합회(이하 운불련)와 기관 이동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진원 스님은 "운불련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동홍보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기관을 널리 알리고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 여성 및 결혼 이민 여성들의 폭력피해 상황 구조 및 인권 향상과 위기 여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366경북센터는 29일 김천시 파크호텔에서 경상북도상담소시설협의회,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피해 및 위기여성과 결혼이민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 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들의 폭력피해 상황 구조와 법률정보제공, 상호 연대 및 보호체계 강화로 위기여성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된다. (054)439-1367

이나은 기자

광진구 어린이, 지역 건강지킴이로 나선다

자양복지관, 11월까지 '튼튼해가 떴습니다' 실시

놀이를 통해 신체불균형 한 저소득가정 아동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한국암웨이 뉴트리라이트 건강지킴이 사업에 선정, '튼튼해가 떴습니다! season3'을 실시한다.

2013년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건강지킴이로 활동해 건강 문화를 선도하고 확산하는 건강 코칭 사업으로, 아동들은 놀이를 통한 영양 교육을 받고 신체활동을 하게 된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2011 · 2012년 광진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과 건강지킴이 활동을 통해 건강 문화를 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은 "2011, 2012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긍정적인 건강 변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에도 건강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02)458-1665

이나은 기자



양양군노인복지관 실버기자단 어르신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양군노인복지관, 실버기자단 발대

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양양군노인복지관(관장 우성)은 3월 28일 실버기자단 '실버 디제이 스타(Silver DJ Star)' 발대식을 열었다.

실버기자단은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3년 배분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10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됐다.

실버기자단은 4월부터 소양교육을 시작으로 사진 · 컴퓨터 · 작문 등 양성교육과정을 거쳐 복지관 소식과 정보를 알리는 소식지 제작, 홈페이지 관리, 방송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우성 스님은 "앞으로 양양군노인복지관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복지관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033)673-2685

이나은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제15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대한불교진각종은 진각종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 발전을 위해
'제15회 진각논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공모분야 및 주제

분 야	공모편수	주 제		비 고
		지정주제	자유주제	
진각종 교학	2편	1. 등상불(等像佛)과 무상불(無相佛) 2. 밀교 부법(付法)의 역사와 유형	제한 없음	- 지정 주제 내용 지정 주제 공모 취지 www.jingak.or.kr 진각논문대상 공모 광고에서 다운로드
불 교 일 반	2편			
밀 교 일 반	2편			

▶공모분야별 지정주제 응모자에게우선 선정권을 부여합니다.
▶응모자격 : 제한 없음
▶전형방법 : 논문계획서 1부 및 인적사항 1부 (소정 양식 : 진각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공모일정 : 접 수 마 감 - 2013년 5월 24일(금)
당선작 발표 - 2013년 6월 28일(금) 예정
당선 논문발표회 - 2013년 12월 12일(목) 예정
▶당선작 상금 : 최우수 1편 (500만원), 선정 6편 (편당 250만원)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타 논문 공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7 우편번호(136-865)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승우
인터넷홈페이지 : www.jingak.or.kr / E-mail : jingakrcsr@hanmail.net
전화 (02) 913-0136 / 핸드폰 010-4011-5786

대 한 불 교 진 각 종 교 육 원

불교와 과학은 一味… 큰 산 오르는 다른 방법

불교포럼 강연 - '과학과 불교, 적인가 동지인가'

양형진 교수 (고려대 과기대 물리학과)

불자 지도자간의 네트워크인 '불교포럼'은 3월 27일 양형진 교수(고려대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다.

양형진 교수는 '과학과 불교, 적인가 동지인가: 불교와 물리학'을 주제로 인류의 문화자산인 불교와 과학의 관계가 무엇이며 불교의 세계상과 과학의 세계 이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양 교수는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불교의 세계관이 과학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의 요지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양형진 교수는 …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 물리학 박사로 양자정보이론을 전공했다. 주요저서로는 〈산하대지가 참 빛이다: 과학으로보는 불교의 중심사상〉〈양형진의 과학으로 세상보기〉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과학의 합리성〉 등 다수가 있다.

물리학이 보여주는 세계의 연기 구조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소와 산소라는 물의 요소들이 서로 의존해 연관의 관계를 맺으면서 물 분자를 형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물 분자의 요소인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를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그들이 서로 의지함으로써 성립되는 물 분자의 성질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안에 물 분자의 성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 분자의 성질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각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서로 의지하고 연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물 분자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수소와 산소 원자가 서로 의지하고 연관되는 인연의 성립에 의해 물 분자의 존재가 드러나고, 물의 관념이 형성되고 물의 명칭이 생겨난다. 경에서는 이를 '바퀴' 등의 부분이 모여 '수레'를 이루게 되는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바퀴' 등의 부분이 모이고 서로 의지하는 인연에 의해 '수레'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수레'라는 관념이 생겨나게 되며 '수레'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다고 했다.

이렇게 연관과 의존의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성질이 창조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원자가 모여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모여 생명물질이 만들어지고, 생명물질이 모여 세포가 만들어지며, 세포가 모여 근육 조직, 신경조직 등의 조직이 만들어지며, 조직이 모여 순환기관 소화기관 등의 기관이 만들어지며, 다시 기관이 모여 생명체가 이루어진다. 그 생명체 중의 하나인 인간이 모이면 사회를 이루고, 문화와 문명, 역사 등을 만들어낸다. 그 각각의 단계에서 연관과 의존의 관계를 형성되면서 이전에 없던 특성이 발현된다.

그러므로 노경에서 말하는 '갈대의 묶음'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갈대' 셋이 단순히 모인 것 이상의 어떤 존재, 하나의 갈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성질을 지닌 존재이다. '하나의 갈대'를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서로 의지해 서있는 '갈대의 묶음'이라는 존재가 그 자체로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자에 의해 분자가 만들어졌지만 분자가 원자로 환원되지 않고, 인간에 의해 역사와 문명이 이루어졌지만, 역사와 문명이 인간 개개인의 생명체로 환원되지 않는다.

바퀴 등의 요소가 모이고 연관되는 인연에 의해 수레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고 수레라는 관념이 생기고 수레라는 명칭이 생기는 연기 현상을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다양한 세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

우리는 오감을 통해 객관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낸다. 그리고 나에게 붉은 사과가 보인다면 붉은 사과라는 실체가 그 곳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오감을 통해 나에게 무언가 감지되었을 때, 나에게 그런 감각 경험을 일으킨 어떤 실체가 과연 그 곳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시각과 관련하여 무지개에 대해 알아보자. 굴절과 반사,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의 굴절률이 다르다는 물리학적인 설명만으로는 무지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이 완결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은 우리의 시각 기능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일곱 가지 색의 무지개가 우리 눈에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의 물리학적인 설명에 더하여, 우리가 빨강색에서부터 보라색에 이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빛만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다면 무지개는 7가지 이상의 색으로 보일 것이다. 또 빨강색만을 감지할 수 있다면 무지개는 빨강색만으로 이루어진 원호일 것이다.

바닷물이 왜 짠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바닷물에 오랜 기간 동안 무기염류가 농축되고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짠맛을 내게 한다는 것만으로는 바닷물이 왜 짠지에 대한 설명이 완성되지 않는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우리가 느끼는 그 짠 맛을 감지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물리적인 설명에 더하여 우리가 염화나트륨의 성분을 맛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추가돼야 한다. 염화나트륨 성분이 있어서 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짠 맛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닷물은 짠 맛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자.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과 태양광선, 광선의 경로에 대한 물리 법칙만으로 무지개에 대한 설명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에 우리의 시각경험에 나타나는 무지개의 본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물방울은 변하지 않는 무지개의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방울에는 무지개의 자성이 없지만, 여러 가지 제 요소가 무지개가 나타날 수 있게끔 인연이 어우러짐으로써 무지개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무지개라는 관념과 무지개라는 명칭이 생겨난다. 어떤 물질의 표면이 매끄럽다는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끄럽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의 화합으로 우리는 그 물체를 매끄럽다고 느끼게 되고, 매끄럽다는 관념과 매끄럽다는 명칭을 얻게 된다.

불교의 연기적 구조 세계관
현대 물리학의 논의보다 명확
과학문명의 폐해 극복 탐색 가능

감각 경험은 그 대상이 그러한 감각 경험의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각 경험이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의 신체와 그 대상, 그리고 물리법칙과 같은 그 외의 모든 요소 (세계의 존재 방식)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 세계는 객관 세계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이 주관과 관계하면서 비로소 완성된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안식(眼識)은 그 안식을 생기게 하는 실체가 객관 대상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 대상인 색(色)과 주관인 안(眼)이 어우러지는 인연이 이루어지면서 안식이 형성된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 이렇게 객관과 주관 사이의 어우러짐, 객관과 주관 사이의 연기이다.

찰라멸하는 무상의 세계

"모든 것이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별리하면 허망하게 멸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생과 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그 존재자의 고정 불변하는 '자성(自性)'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내 앞의 책상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제행무상일 수 있는가. 제행무상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자.

우주의 다양한 물질은 100여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은 양성자나 중성자의 내부에서도 무수한 미립자들이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한다. 이 미립자들의 전형적인 생명은 10~23 초이다. 이 미립자들의 생명을 가령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1초로 늘린다면, 우리의 1초는 1023 초가 되는데 이는 약 300조년에 해당한다. 이는 지구 역사의 60만 배, 우주 역사의 20만 배나 되는 시간이다.

미립자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생겼다가 소멸한다. 생성되는 순간에 바로 소멸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미립자들에 의해 원자가 이루어지고 그 원자에 의해 우리의 세계가 이루어지니,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찰라에 생멸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찰라 생멸에 더하여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생과 멸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의 상호연관성이다. 한 입자의 생성, 한 입자의 소멸, 다른 입자의 생성, 다른 입자의 소멸은 결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미립자 전체의 긴밀한 상호 연관의 맥락 위에서 일어나는 무한한 과정의 한 단면이다. 이러한 과정은 한 입자만을 본다거나 생성이나 소멸의 어느 한 면만을 보아서는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입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한 입자의 생성과 소멸은 다른 입자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사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입자의 생멸이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는 모든 생멸하는 미립자가 자성이 없이 상의상대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성주괴공의 주의 기간 동안에도 존재자는 모두 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존재자가 무상인 것은 그 자신이 자성을 지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니, 또한 무아일 수밖에 없다. 이 무아이고 무상인 존재자가 모여 세계가 나타난다.

하나의 세계

과학과 불교는 아주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의 모습과 구조가 어떤지를 파악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과학이 세계에 대한 탐구라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부처님도 또한 세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세계의 연기적 구조를 설명하셨다. "마치 목재에 연하고 풀에 연하고 볏집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가옥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것처럼, 뼈에 연하고 근육에 연하고 피부에 연하고 공간에 둘러싸여 신체란 명칭을 얻게 된다"는 것이나, "가전연아, 이 세간은 유와 무의 두 가지에 의지하게 되어있다…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모임을 관한다면 세간에 무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바른 지혜로 여실히 세간의 멸을 관한다면 세간에 유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를 가리켜 양변을 떠나 중도를 설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설명함으로써 연기와 중도를 말씀하신 좋은 예이다.

세계의 모습을 바르게 관찰할 수만 있다면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고 연관된다는 인연에 의해, 즉 연기적 구조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논의하였던 세계의 계층적 구조나 무지개 등의 감각경험과 같이, 과학을 통해 세계의 연기적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 반드시 현대물리학이 동원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대론이나 양자역학 등 현대물리학의 논의를 활용하면 세계가 무아와 무상의 연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다 근원적이고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무아이고 무상인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서로 의지한다는 인연을 만들어 냄으로써 법계가 성립한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전 우주적 상호 투영이라는 무진 연기가 전개되는 마당이다. 제석천궁의 보배그물에 달려 있는 하나하나의 보석이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그럼으로써 하나의 보석 안에 전체 보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우리 우주의 모습이고 구조이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존재자에게 세계의 모습과 세계의 구조가 다 드러난다면, 그리고 이런 모습과 구조를 현대과학이 보다 더 명확히 드러내 준다면 이는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와 과학은 큰 산에 오르는 두 가지의 다른 방법인지 모른다. 헬기를 타고 산 정상으로 날아가는 방법과 밑에서부터 한 걸음씩 걸어서 올라가는 서로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산 정상에 올라갔지만, 정상에 이르고 나면 서로 같은 장소에 있음을 알게 되는 두 사람처럼, 불교와 과학은 하나의 세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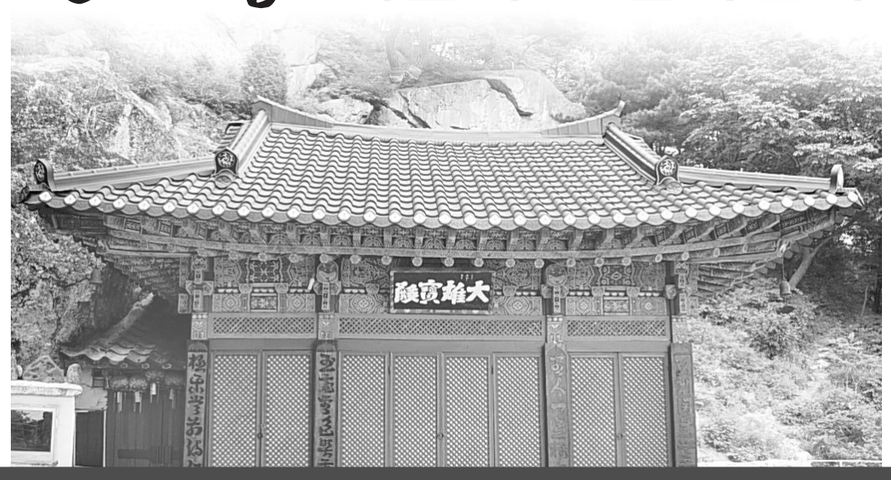
부처님은 "일미의 진리는, 마치 큰 바다에 모든 강물이 다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모든 법의 맛도 그 이름이나 수가 다르지만 물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으니, 만일 큰 바다에 머무르면 곧 모든 강물을 일미에 머무르게 하고 곧 모든 맛을 포섭한다"고 하셨다. 불교와 과학도 일미(一味)다.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고려 교장, 10세기 동북아 지식 총람”

고려대장경 ‘교장 학술세미나’서 한 목소리
김성수 교수 “불교저술 일목요연 분류”
남권희 교수 “중국 · 일본 전해져 간행돼”
최종남 교수 · 라정숙 박사 “경전 연구 도움”


김성수 교수


남권희 교수


최종남 교수


라정숙 박사

고려대장경연구소가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 교장학술세미나에서는 고려대장경의 교장(教藏)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김성수 청주대 교수는 ‘교장총록의 체계성과 국제성’ 발표를 통해 “의천 스님은 초조대장경이 완성된 1087년 훨씬 이전인 1073년(19세) 때부터 장소의 중요성을 깨닫고 20년 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 거란 · 일본 등 동북아 전체 국가에서 불교연구저술을 수입했다”며 “고려교장은 1000년 전 동북아 국제사회의 지식총람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교수는 이어 “의천 스님은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면서 자신의 교학관이라 할 수 있는 원융의 문, 종돈의 지, 시교의 종, 소승의 설 등 분류체계로 나누었다”며 “이는 당대 불교지식을 분류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불교를 일목요연하게 알리기 위한 시도였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진행하는 교장의 디지털화 사업은 후대에 당시 지식정보를 전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우리말 국역 사업 및 영역 사업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학 분야 전문가인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간행본 교장의 서지분석’에서 “교장은 의천 스님이 중국을 다녀온 후 간행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편찬하고 이에 따라 1092년부터 1102년 사이 이뤄졌다”며 “당시 사업에는 궁중과 사찰의 글 잘 쓰는 사람들과 승려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저본의 일부는 송나라에서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도 있다”며 “이후 의천 스님의 교장이 12~13세기 중국과 일본으로 전해져 번각이나 간행, 필사의 형태로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남 교수는 “교장의 대상문헌 중 추가된 문장과 이체자 등이 발견되는 만큼 서지적 분석과 원문대조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는 ‘광교원본 〈성유식론술기〉 권6의 판본대조연구’에서 “당시 광교원에서 판각된 〈술기〉 권 6을 분석해 보면 광교원본은 어느 대장경, 혹은 판본을 저본으로 교감 및 판각된 것이 아님이 드러난다”며 “광교원본은 교감자인 혜덕 왕사의 발원과 지도에 의해 판각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판각 과정에서 교감자는 일부 내용 중 문장 건재과정과 원할한 문맥흐름을 위해 단어를 추가하기도 하지만 혜덕 왕사는 의도적으로 단어와 문장을 추가했으며 이후 오기, 오류 및 오각으로 규기가 찬술한 〈술기〉의 원의미를 잃게 했다”고 분석했다.

라정숙 고려대장경연구소 박사는 ‘신출교장 자료연구’ 발표에서 〈신편제종교장총록〉에 포함된 〈원각 예참약본〉에 주목했다.

라정숙 박사는 “〈예참약본〉은 끊임없는 참회를 통해 업장을 소멸시키고 계율을 잘 지켜 불도를 성취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예불용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각종 제불보살의 칭명이 하나씩 들어가 당시 칭명염불 수행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 대장경 꽃 〈고려교장〉은?

제종교장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대장경에 들어간 경율론에 대한 각 종파의 장소(章疏)들을 결집해 간행한 불교주석서 문헌의 총서다.

의천 스님은 초조대장경 결집이 일단락 된 후 장소 결집을 서원하고 송 · 요 · 일본 등 주변국으로부터 자료를 모아 정리했다.

하지만 1232년 제2차 몽골 침입때 교장 목판이 소실됐으며 간행본 일부만 전해졌다. 교장총록에 의하면 제종교장은 총 1,010종 4,886권에 달한다. 현재 자료조사에 의하면 108종 950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술 · 문화재소식

“화순 운주사 석불 풍화현상 심각”

조선대 연구팀 조사…보존처리 시급


풍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화순 운주사 석불.

화순 운주사(雲住寺) 석불이 바람에 의해 심각한 풍화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승 조선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3월 28일 한국암반공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화순 운주사 석조문화재의 풍화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운주사 석불의 풍화현상을 살폈다.

강 교수팀은 화순 운주사의 불상 70여 기 중 1기를 대상으로 저주파 결함 탐지기를 활용해 바람에 의한 풍화현상을 연구했다.

석불의 왼쪽, 오른쪽을 120차례씩 나눠 측정한 결과 석불 왼쪽 부분의 72%가 풍화현상이 진행됨이 드러났다.

강 교수는 “취약한 부분에서부터 풍화가 진행되고 이어 균열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운주사 석불에 대한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 운주사는 석불과 석탑이 각각 1000기씩 있었던 우리나라 유일한 사찰로 유명하다. 1481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운주사가 천불산에 있으며 절 좌우 산에 석불 석탑이 각 1000천기씩 있고 두 석불이 서로 등을 대고 앉아있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석탑 21기, 석불 90여 기만 남아있다. 노덕현 기자

제15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5월 24일까지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제15회 진각논문대상을 5월 2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등상불과 무상불’ ‘밀교 부법의 역사와 유형’로 이 밖의 자유주제로도 응모가능하다.

진각논문대상은 진각종 교육원이 교학 확립과 불교 및 밀교연구의 발전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 학력과 전공 제한은 없다. 진각종 교학 2편과 불교일반 2편, 밀교일반 2편 등 분야별 6편을 채택하며 당선된 논문 중 최우수 1편에 500만원, 선정 5편에 250만원씩의 상금이 수여된다. 당선작은 6월 28일 발표되며 12월 12일 발표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선논문은 2014년 6월 발간 예정인 〈회당학보〉 제19집에 게재된다. 노덕현 기자

“티벳어역 본 등 참조해 경전 보충해야”

장규언 금강대 HK연구교수, 불교학연구회 봄 논문 발표회서

장규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는 불교학연구회가 3월 30일 개최한 봄논문 발표회에서 〈해심밀경소〉의 티벳어역의 가치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심밀경(解深密經)〉은 사람의 심층심리를 체계적으로 꿰뚫은 경전이면서 논집으로 설한 경전이다. 유식사상(唯識思想)의 근본경전으로 〈해심밀경〉에 대한 다양한 주석서 중 현존하는 것이 신라 원측 스님이 당나라에서 지은 〈해심밀경소〉다.

장 교수는 이날 9세기 초 최둡(chos grub, 法成)에 의해 번역된 원측 스님의 〈해심밀경소〉의 티벳어역 (이하 SNST)가 인도 및 티벳불교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읽히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해심밀경소〉의 현존 한문본은 많은 부분에서도 오자, 탈자 등 텍스트 상 문제가 존재한다. 티벳어역 역시 불안정하긴 마찬가지이지만 비교적 한문 원전에 충실한 직역으로 9세기 초반 전래된 한문 사본의 모습이기에 상호대조작업을 거치면 온전한 한문 교정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SNST에 의거해 통째로 결락된 〈해심밀경소〉제10권 전체와 제8권의 첫머리의 품명(品名) 주석의 한문 복원이 진행됐으며 근래에는 기타 부분의 교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끝으로 “향후 SNST를 비롯한 티벳어역 등을 활용해 대장경 등의 교정과 보충 등의 사상연구가 본격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마해륜 고려대 철학과 박사는 ‘홍주종의 작용즉성설 비판과 무심’을 통해 황벽 희운 선사가 〈전심법요〉를 통해 임제종이 홍주종의 역사를 재편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치로 공식화 시킨 과정을 살폈다.

노덕현 기자

“소통하는 불교학 이끌 터”

조은수 신임 불교학연구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제8대 회장에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조은수 교수는 “불교학연구회는 한국 불교학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 중 하나로서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며 연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 교수는 “‘소통하는 불교학’을 모토로 하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바의 새로운 불교학 연구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각종 스터디 모임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외 불교학계의 근황과 정보를 모으고 알리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불교학연구회는 이에 따라 3월 30일 봄 논문발표회 외에도 5월 25일 춘계학술대회, 여름워크숍, 9월 8일 가을논문발표회, 11월 10일 추계학술대회 등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학과 융합학문과의 관련 등 최근 불교학계의 트렌드를 반영한 학술 진흥행사와 좌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불교학연구〉도 연간 총 4회 출간한다.

조 교수는 “지난 2년간 박경준 前회장이 많은 애를 써 재정이 더욱 튼실해진 것은 물론 여덟 차례나 되는 학술 행사를 내실 있게 잘 치렀다. 신진학자 발굴을 비롯해 학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소개하도록 하겠다”며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연구소, ‘한국불교사연구’ 제2호 펴내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제2호를 펴냈다.

‘분황 원효 연구의 몇 가지 과제들’을 기획논문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분황 원효 저술의 서지학적 검토(고영섭) △교체설 · 체용론과 원효의 언어관(이도흠) △원효 일심의 정의와 의미(김원명) △화쟁사상을 둘러싼 쟁점 검토(박태원) 등이 실려 있다.

또 특집논문으로는 △광해군의 대외정책 재론(한명기) △광해군의 불교인식(고영섭) △임진왜란 의승군의 봉기와 전란의 충격(황인규) 등이 게재돼 있다.

노덕현 기자

진흥원, ‘Buddhism and Culture’ 17호 발간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한국불교 세계화와 국제 포교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영문잡지 ‘Buddhism and Culture’ 2013년 제1호(통권 17호)가 발간했다.

이번 ‘Buddhism and Culture’에서는 한국 불교사상과 문화적 가치와 사회병리 현상을 심리치유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Experiencing Korean Buddhism and Culture(찾아가는 한국불교, 문화), Encountering Buddhist Ecology and Practice(만나보는 불교생태 & 수행), Empathetic Buddhism and Beyond(공감하는 불교, 그 너머)의 3개 섹션으로 구분됐다.

반년간지 ‘Buddhism and Culture’는 해외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지역도서관, 불교 관련 학자를 비롯해 해외 사찰, 불교 수행센터 등에 배포한다. (02)719-2606 신중일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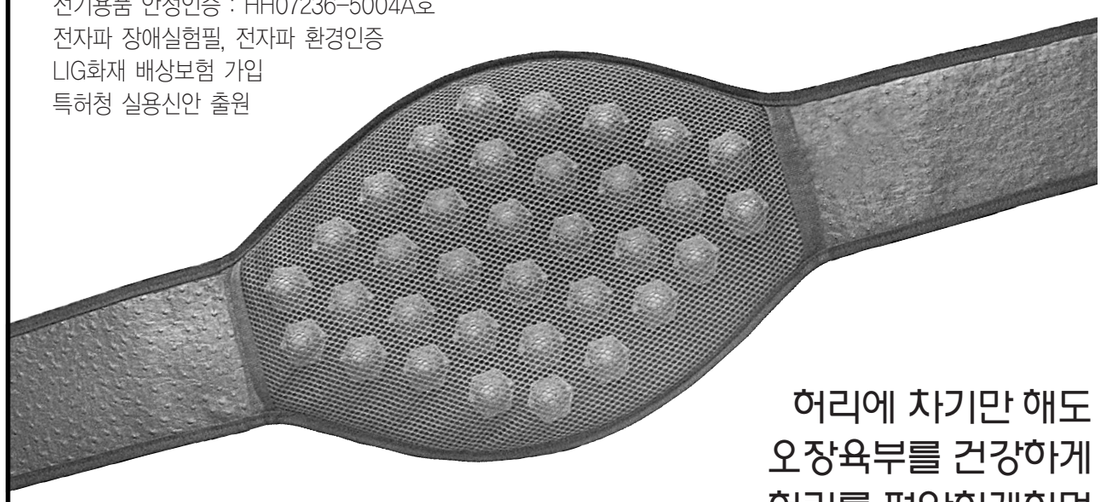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눈길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2013년 프로그램 발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2013년 광주전남지역에서 다양한 어린이 · 청소년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 부설 청소년공동체 나무숲은 2013년 어린이생태학교, 자따마따(자연따라 마음따라) 1박2일,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선재역사문화탐방 총 10차례에 걸쳐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총 7차례에 걸쳐 1박 2일 동안 어린이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먼저 3월 23~24일까지 김제 금산사에서 시작한 행사에는 어린이 45명, 지도자 1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어 4월 27~28일에는 남원 실상사, 5월 25~26일에는 영암 도갑사, 6월 22~23일에는 순천 송광사, 9월 7~8일에는 부안 내소사, 9월 28~29일에는 강진 백련사, 10월 26~27일에는 완도 신흥사에서 어린이생태학교와 자따마따 1박2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 에코트레킹, 숲 탐방, 빈그릇운동, 건강한 먹을거리 강의 및 실험, 통일 바로알기, 공동체놀이(전래놀이), 108배 절 명상, 문화재 탐방, 각종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생태학교 및 청소년캠프가 진행된다. 8월 2~4일에는 구례 화엄사에서 어린이 여름생태학교, 8월 9~11일 지리산 달궁야영장에서는 제2회 청소년 지리산마음캠프가 개최돼 지리산을 온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호연지기의 장을 키워간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히말라야왕국 네팔로 제5회 선재역사문화탐방이 눈길을 끈다. 선재역사문화탐방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동력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세계 각국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자신과 세상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세상의 당당한 주인으로 올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자연과 숲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불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행사를 준비하는 임수연 사무처장은 "아이들에게 산중 사찰에서의 소중한 체험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으며, 자연과 전통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아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등 10개 행사

히말라야 문화탐방 등 해외 체험도



3월 23일 금산사에서 진행된 자따마따 1박2일 프로그램에서 참선하고 있는 아이들

자따마따 및 어린이 생태학교 일정

날 짜	장 소	내 용
4월 27~28	남원 실상사	제8회 자따마따 1박2일
5월 25~26	영암 도갑사	제11회 어린이생태학교
6월 22~23	순천 송광사	제9회 자따마따 1박2일
8월 2~4일	구례 화엄사	어린이여름생태학교
8월 9~11일	지리산 달궁야영장	제2회 청소년 지리산마음캠프
9월 7~8	부안 내소사	제12회 어린이생태학교
9월 28~29	강진 백련사	제10회 자따마따 1박2일
10월 26~27	완도 신흥사	제11회 자따마따 1박2일
겨울방학기간		제5회 선재역사문화탐방

수산스님 열반 1주기 추모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을 지낸 수산 스님 열반 1주기 추모재가 봉행됐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3월 26일 백양사 대웅전에서 지난해 3월 7일 입적한 수산 스님 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는 수좌 지선 스님을 비롯해 前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등 문도 및 신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이 계실 때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부끄럽다"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백양사가 하루 빨리 안정되고, 한국불교의 큰 수행도량으로서 제 모습을 찾기 위해 사부대중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수인 스님도 인사말에서 "스님이 지금도 계신 것 같은데 벌써 1주기가 됐다"며 "앞으로 스님의 말씀을 거울삼아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원각사 지장보살, 명부시왕 점안식

도심 속 포교도량 광주 원각사(주지 도요)는 3월 22일 원각사 지장보살과 10대 명부시왕, 지장탱화, 관세음보살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현고 스님(원각사 회주), 현조 스님(前 송광사 유나), 도요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현조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많은 법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찰과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원각사는 도심에 있는 좋은 도량으로, 많은 신도들이 늘 와서 기도하고 불교신행 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도요 스님은 인사말에서 "많은 분들의 수희동참으로 불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며 "지장보살과 명부시왕을 통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의 평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한 지장보살과 좌부보처인 도명존자, 무독귀왕을 비롯해 명부시왕(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오도전륜대왕) 그리고 지장보살 후불탱화는 대웅전 맞은편에 위치한 지장전에 봉안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발전에 불교계도 동참 한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이 고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고창사회복지시설은 3월 25일과 28일 고창군 청보리밭 축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권익증진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고창사회복지시설은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음면 학원관광농장에서 열리는 청보리밭 축제에 고창의 차(茶)문화를 알리고 시음할 수 있는 다도 체험장을 마련하고, '청보리밭 도깨비 이야기길' 주제로 한 인형극,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난타, 생활체조, 합창, 태극권 공연 등 지역아동과 성인, 어르신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노인권익증진사업은 사기, 자살, 학대 등 지역 어르신들의 인권 및 권리상실 예방을 위한 노인교육과 캠페인 등이 진행되며 복지관 이용자 대표로 구성된 13명의 전문위원단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관장 도완 스님은 "복지관 프로그램이 지역을 알리는 축제와 함께하며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노인 권인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 순간 온전히 즐기며 신심있게 살아야"

정목 스님, 증심사 명사초청법회서 호남불자들에 당부

"이제 호남불자들은 절에 다니면서 수행을 할 때입니다"

2012년 광주 불교계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던 '무등산 증심사 명사초청법회'가 3월 26일 불교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을 첫 법사로 모시고 2013년 강의를 시작했다.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진행되는 증심사 명사초청법회는 출 · 재가를 아우르는 33인의 선지식을 초청하는 대중법회다.

정목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몸은 현재에 살면서도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다면 행복하기 힘들다"며, "지금 가족과 세상에 살고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서 살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증심사 신임 주지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계절의 봄은 이미 온 것 같다. 사찰에서도 부처님의 많은 말씀을 통해 신도들이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목 스님에 이어 4월 24일 법인 스님(조계종 교육부장), 5월 24일 강운태 광주시장, 6월 23일 서광 스님(미국 서운사 주지), 7월 22일 진화 스님(봉은사 주지), 8월 30일 진오 스님(구미 대둔사 주지), 9월 28일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10월 19일 방송인 김혜옥 씨, 11월 각묵 스님(초기불전 연구원) 등이 차례로 강사로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중학교 축구부 창단

김제 동국대 사대부속 금산중학교(교장 조영석)가 축구부를 창단했다.

금산중학교 축구부는 3월 29일 금산중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창단식은 축구계 인사들과 학생, 학부모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 U-15팀의 일환으로 창단된 금산중 축구부는 전북현대의 글로벌 인재 육성팀의 지원으로 이미 18명의 선수가 훈련과 주말리그를 소화하고 있다.

감독에는 전북현대에서 선수와 U-12 코치, 감독 등 프로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두루 경험한 안재석 감독이 선임됐다. 또 전북현대에서 프로생활을 거친 올림픽 대표출신 안대현 코치와 유재석 GK코치가 코칭스태프에 합류했다.

금산중학교 조영석 교장은 "축구부를 창단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 선수들이 운동에 더욱 전념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창단 소감을 밝혔다.



이철근 전북현대 단장은 "앞으로 이 선수들이 전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문 구단들의 유소년 시스템의 벤치마킹과 지도자 초청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문의 : 02-466-1207 아침단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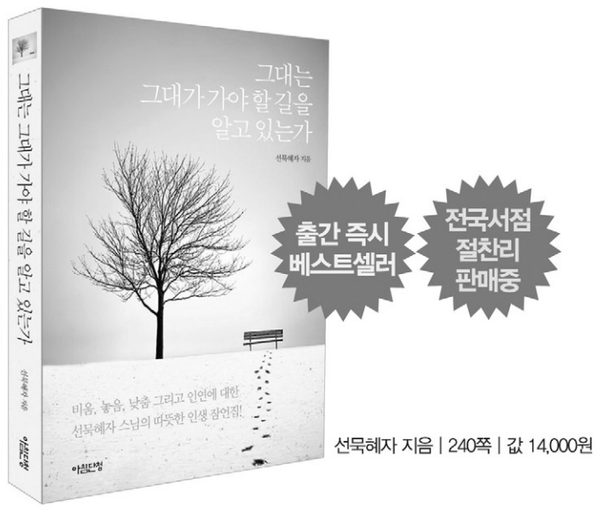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은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를 7년째 이끌고 있으며,
농촌사랑 홍보대사로 우리농촌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법회 때마다 무지개가 뜬다고 해서 '무지개 스님'이라고도 불리운다.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책!

★ 독자들의 찬사 ★ 이 책은 고요하다. 그리 어려운 문장도 없고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럽다. 참으로 편안하다. _li**x00 | 우리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 _ksy**30 | 책을 읽고 난 뒤 저절로 반성이 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힘들 때마다 펼쳐보면 큰 위로가 될 것 같다. _we**l |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진정한 큰스님의 글이다. _js**em2002 | 잔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감동을 주는 책! _dk**14



선묵혜자 지음 | 240쪽 | 값 14,000원

우리는 모두 10억 통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은 빈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10억 통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 비밀번호를 모를 뿐.
그 비밀번호는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 본문 중에서

“부산연등축제 시민과 함께”

부산코모도호텔서 봉축결성법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가 3월 26일 부산연등축제를 알리는 결성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회장 수불 스님이 연등축제 기획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모습.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 스님)는 2013년도 부산연등축제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봉축결성법회를 개최했다. 3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고문 통합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 이윤희 범어사 신도회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 등 시민불자 500여명이 함께 했다.

회장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대회사에서 “한국전쟁 정전60주년, 부산시 승격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부산연등축제가 불자는 물론 부산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신바람 나는 연등축제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월 27일 부산역광장서 봉축점등식
5월7일~12일까지 부산여등문화제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 어두운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밝히는 연등축제의 취지를 잘 살려 부산불교가 시민들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대회장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 정사는 “대동화합의 부산연등축제를 만들고, 부산 발전과 부산불교 중흥에 이바지하는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2013부산연등축제는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이라는 주제로 2013년 4월 27~5월17일까지 부산시내 전역에서 개최된다.

봉축기간동안 축제의 사전홍보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간 동안 광복로에 대형 봉축탑과 장엄물, 청사초롱을 설치한다. 4월 27일 부산역광장에서 봉축점등식, 5월7일~12일까지 용두산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부산여등문화제에는 전통등 전시와 체험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연꽃문화제, 제6회 B-Boy 경연대회, 자비의 무차만발 공양, 호국영산대재, 대북 난타와 전통국악 한마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된다.

특히, 행사의 피날레가 될 5월11일에는 구덕운동장에서 봉축대법회, 구덕운동장-대청로를 잇는 제등행진, 대청로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동회향한마당이 진행된다. 제등행진은 브라질 샴바축제와 같이 장엄등과 복식을 갖춘 연희단과 함께 행진해 부산시민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반행진군은 사찰,단체 구분없이 자유롭게 함께 어울려 행진한다. 제등행진이 끝나는 대청로에서 대청로 600M구간 5차선 전차로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대동회향한마당이 진행된다고 주최측은 전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자비의 동전쌍기’가 제등행진 출발장소인 구덕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사용된 동전은 제3세계 국가와 소외계층에게 후원할 예정이다. ‘아마추어사진 공모전’도 개최된다. 사진공모전은 2013부산연등축제 전과정을 촬영하여 축제홈페이지(bba48.or.kr)에 올리면 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삼대화상 기리는 문화축제 열린다

회암사, 4월 27일 삼대화상문화제

지공화상, 나옹화상, 무학대사가 수행했던 사찰로 알려진 양주 회암사(주지 혜성스님)가 4월27일 ‘삼대화상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삼대화상의 수행 도량인 회암사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삼대화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공·나옹·무학 스님 정신 계승
다례재 · 음악제 등 행사 다채

회암사는 “지공화상, 나옹화상, 무학대사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 3대 화상으로 존경받았던 스님이다. 스님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암사지박물관 특설무대와 회암사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회암사에는 나옹화상의 행적을 새긴 회암사지선각왕사비, 지공화상 부도 및 석등, 무학대사홍융탑 등 관련 문화재가 보존돼 있다.

회암사는 문화제 메인 행사인 전통다례재를 비롯 △회암사 문화재를 탐방하는 ‘회암사 문화재를 찾아라’ △다도시연 및 시음회 △사찰음식 체험 △연등 만들기 △탁본 등의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삼대화상 장학금 및 자비의 쌀 전달식, 지역 노인과 이주 근로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진료 등 자비나눔도 진행된다.

음악예술제 또한 주목된다. 클래식과 현대음악, 전통과 종교음악이 어우러지는 음악예술제에는 양주시립합창단과 회암사연합합창단, 법고시연과 퓨전국악그룹 ‘락음국악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정혜숙 기자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

거창군삶의쉼터(관장 은산)는 3월 20일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거창군수 및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등 114여 명이 참석했다.

관장 은산 스님은 “평가원이 시행한 2012 전국노인종합복지관 대상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최우수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다”며 “이번 일자리 사업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운 스님(경남남부지사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은해사서 개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장면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3월 28일 경북 영천 은해사에서 열렸다.

주지협의회는 회의에서 최근 중앙종회를 통과한 ‘법인법’과 ‘승적 특별대책법’ 등 종단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교구 본사간 화합을 다졌다. 이날 회의에는 군종 특별교구를 포함한 전국 25개 교구 본사 주지 스님 가운데 16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불총 정기 이사회

관등놀이 등 사업 확정

대구불교총연합회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대불총은 3월 27일 문화웨딩에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불총은 5월 9일~11일까지 전통등을 주제로 한 시민축제 ‘형형색색 달구벌 관등놀이’를 개최하고 10월에는 ‘환경연합 대법회’를 열어 환경보존 운동에 대한 시민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자연 해치는 불사 이제 그만

최근에 여러 사찰에서 그 절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된 매력요소를 도입하여 다른 사찰과 차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구절초를 절 주변의 산에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꽃차까지 만들어 마실거리까지 풍성하도록 만든 사찰, 절 주변의 산에 부처님교화 공원을 만들면서 철따라 아름다운 꽃을 피도록 하여 이곳을 찾는 불자들에게 꽃보시로 눈을 즐겁게 해주는 사찰, 절 주변의 밭에 연지를 만들어 연꽃의 아름다움과 진한 연향을 선물하는 사찰, 비료를 주지 않은 유기농 농산물로 만든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불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사찰, 절 주변에 찾아오는 철새들의 신비로운 생태를 만날 수 있도록 만든 사찰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

사찰이 불법승 삼보를 모시고 수행과 기도와 재를 올리는 사찰 고유의 기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현대인들의 취향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벌써부터 있어왔다.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자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매력요소들을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자들이 스스로 사찰에 찾아오게 만드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생활불교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드는 작업이며, 훌륭한 포교의 방법이 된다.

그런데 불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마실거리, 쉴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요소를 과도하게 도입하여 사찰이 가진 자연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산이 가진 생태적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자연성을 훼손하기도 하고, 연지를 만들면서 연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지나치게 많은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연꽃의 아름다움보다는 목재데크의 인공성이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며, 철새를 보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공시설을 도입한 결과 철새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자연은 나름대로의 질서와 순환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이러한 생태환경에 인간의 손길이 닿게 되면 자연이 지닌 본래의 질서가 무너질 위험성이 높아진다.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의 사찰에서 자연성을 훼손하는 불사를 한다는 것은 불교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팽개쳐버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찰에 새로운 매력요소를 창출하는 것은 현대불교에서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연성을 해치는 불사는 경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과도한 인공시설물의 도입은 자연을 해치게 된다. 경기도 ㅂ사찰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1권
전생투시론
지금까지는 전생(前生)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론이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사주를 토대로 획기적인 방법으로
전생에 어디에 살았으며, 무엇 이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현생에 고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영혼투시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면요법이 절대 아닙니다.
또 빙의가 되었는지, 어떤 조상영가가 지금 고통을 주는 것인지도
알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제1권 345쪽 | SET가격 300,000원

사차원운명둔갑술 백초귀장술 특비판 / 제2권
십자성래점술
사람의 운명의 길흉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는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아서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성래점술은 만세력으로 사주를 뽑지 않고도
상담자가 묻는 질문의 답을 알 수 있고, 된다 안된다와 하라
하지마라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 비법을 공개합니다.
인도의 점성술 천궁도와 귀장술의 12신궁으로 만들어진 12궁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면 됩니다.
青山 白超 스님 著 | 신국판/양장본/ 제2권 350쪽 | SET가격 300,000원

화제의 신간!

◆ 책 구입은 서점으로 배포되지 않고 백초율력학당에서만 판매합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041)943-6882 / 010)3813-4443
百超律曆學堂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예금주 : 김경석

산사가 봄꽃 향기로 물들면 우리들은 추억에 취하네


미황사의 매화. 흐드러진 봄꽃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봄축제와 함께 가볼 만한 사찰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봄이 왔음을 알리는 것은 봄꽃이다. 4월, 전국 산천에는 아름다운 봄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산사의 봄 절경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시기다. 지금 전국 산사에서는 봄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진행되는 '봄맞이 특별 프로그램' 들이다.

오는 3월 말부터 5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산중 고찰에 펼쳐진 아름다운 봄꽃 전경과 함께 다채로운 산사체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화전, 야생꽃차 그리고 산사

경기도 화성 용주사는 '꽃달임 템플스테이' 를 통해 진달래 꽃길 걷기 명상과 화전 만들기로 산사의 봄을 연다. 또 경북 포항의 보경사는 숲의 풋풋함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편백과 나' 프로그램을 통해 편백나무 숲 걷기, 편백 향주머니와 브로치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봄철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강원도 강릉 현덕사는 쑥차와 오색화전 만들기, 우리 메주로 간장 담그기 등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가져올 수 있다. 현덕사는 주변 산천의 변화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경북 성주 심원사도 야생 꽃을 이용한 차 만들기와 스님과 함께 하는 차담을 통해 고즈넉한 산사의 봄을 즐길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선석사는 '봄바람, 그리고 화전향기!' 프로그램을 통해 화전놀이와 사찰식 봄나물 만들기 등 쉽고, 재밌는 사찰음식 체험을 진행한다.

문화유적과 함께 하는 풍류 여행

조금 더 특별한 문화체험을 하고 싶다면 산청 대원사의 '대원사 봄, 꽃달임' 프로그램을 만나보자. 3월부터 5월까지 지리산 야생화가 가득한 시기에 화전놀이와 소나무에서 채취한 송차, 일곱 가지 몸에 좋은 재료를 이용해 만든 칠보차를 마시며 시(詩)를 짓는 풍류를 만끽할 수 있다.

경남 하동 금봉사는 아름다운 사찰 전경과 함께 야생 벚꽃길 포행, 지리산 문화유적 답사까지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화성 용주사 등 전국 사찰
봄맞이 템플스테이 진행
화전놀이, 사찰음식 체험
봄꽃 사진 콘테스트도

사찰음식 대가 시연회 등
용문산 산나물 축제 '눈길'
마곡사는 신록 축제 개최

화엄사는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를 선보인다. 국내에서 가장 진한 홍매화로 붉게 타오르다 못해 '흑매' 로 불리는 화엄매는 구례 화엄사의 상징. 또 지역 매화마을 탐방과 스님과의 차담이 함께 어우러져 봄날의 풍경을 사진에 담고 싶은 이들에게 적격이다.

경남 창원 대광사는 벚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진해 군항제와 편백나무 숲걷기, 매듭공예 등 풍성한 봄맞이 여행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여수 흥국사, 화순 쌍봉사, 해남 미황사 등에서 진달래 화전놀이와 꽃길 명상, 야생화 차담 등 봄의 흥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산마다 펼쳐지는 봄 축제 향연

전국 각지와 명산에서도 봄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전남 여수의 영취산이다. 영취산은 전국 3대 진달래 군락지 중 한 곳으로 매년 진달래가 절정인 때에 맞춰 축제가 열린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영취산 진달래축제는 오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돌고개와 흥국사 등 영취산 일대에서 여행객들을 맞이한다. 사찰 대웅전 뒤의 영취봉과 진달래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진달래가 온통 연분홍으로 물들 때면 상춘객들의 인파는 절정에 이른다. 진달래축제는 첫째날 산신제를 시작으로 진달래 음악회, 산상문화공연, 템플스테이 체험, 화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용문산 용문사로 유명한 경기도 양평도 산수유 축제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다. 올해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개군면 산수유꽃마을 내리와 주읍리 일원에서 열린다.

봄 입맛을 돋우는 산나물 축제도 빼 놓을 수 없다. 비빔밥에 재래식 고추장과 참기름 그리고 용문산 산나물을 넣고 쓱싹 비벼 먹으면 입안을 봄기운으로 한가득 채울 수 있다. 산나물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용문산 산나물 축제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양평 용문산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정관 · 대안 · 선재 · 우관 스님 등 사찰음식 대가들의 사찰음식 시연 · 강연회와 양평군이 자체 개발한 뽕밥 시연, 전통 산나물꾼 재현, 산나물 뜯기 행사 등이 진행된다.

봄을 맞은 산사들이 진행하는 봄 축제도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사찰 봄 축제를 꼽으면 마곡사 신록축제를 들 수 있다. 오는 4월 27~28일 마곡사 일원에서 열리는 신록축제는 명상길 걷기 체험과 템플스테이, 전국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봄맞이 특별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역	사찰명	제목	주요 프로그램	일정	기간
경기도	용주사	꽃달임 템플스테이	진달래 꽃길 걷기 명상, 스님과의 차담, 화전 만들기	1박 2일	4.20~4.21
강원도	현덕사	봄 향기 속으로	쑥차 만들기, 우리 메주로 간장 담그기, 스님과의 차담	1박 2일	3.30~5월
경상도	대광사	'군항제' 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군항제 참가(자유일정), 편백나무 숲 걷기, 매듭공예	2박 3일	3.30~4.10
		편백과 나	편백나무 숲 걷기, 편백 향주머니, 브로치 만들기	1박 2일	3월~6월
	심원사	마음꽃 피우기	야생 꽃차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1박 2일	3월~5월
	보경사	가족과 함께 하는 봄 템플스테이	진달래꽃길 걷기, 화전만들기, 감자심기, 염주 만들기	1박 2일	3월~4월
	선석사	봄바람, 그리고 화전향기!	화전/봄나물 사찰음식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1박 2일	3월~6월
	옥천사	봄내음 템플스테이	차담, 아침고요 명상, 봄내음 걷기명상, 소원염주 만들기	1박 2일	3.30~3.31
	금봉사	야생벚꽃 문화축제	스님과의 차담, 야생 벚꽃길 포행, 지리산 문화유적 답사	1박 2일	4.1~4.20
	대원사 (산청)	대원사 봄, 꽃달임	지리산 야생화 만나기, 화전놀이 송차와 칠보차를 곁들인 시 짓기	1박 2일	3월~5월(초)
	쌍계사	꽃맞이 템플스테이	화개장터 나들이, 쌍계사 벚꽃 트레킹, 매화차 명상, 불일폭포명상	1빅 2일	1차: 4.6~4.7 2차: 4.13~4.14
전라도	화엄사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각황전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매화마을 탐방, 스님과의 차담	1박 2일	4.6~4.7
	대원사 (보성)	봄맞이 벚꽃축제 템플스테이	예불체험, 스님과의 차담, 벚꽃길 걷기, 벚꽃 축제 탐방	1박 2일	4.12~4.14
	쌍봉사	진달래 꽃길 명상 템플스테이	진달래 꽃길 명상, 진달래 꽃 화전놀이, 야생화 차담	1박 2일	4.1~4.28
	흥국사	진달래 축제 템플스테이	도솔암 산행, 영취산 진달래 꽃길 명상, 스님과의 차담	1박 2일	3.29~4.18
	미황사	봄맞이 템플스테이	화전놀이, 달마산 꽃길걷기, 별보기, 스님과의 차담	1박 2일	4.6~4.7

봄맞이 전국 지역 · 산사 축제

지역	축제명	일시	장소	주요 프로그램
경기도	양평 산수유 축제	4.6~7	개군면 산수유꽃마을 내리	장학금전달식, 주민 동아리 공연, 가족 노래 자랑 등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	5.9~12	용문산 관광지 일원	사찰음식 대가 스님 초청 시연회, 자체 개발 뽕밥 시연, 주막거리, 전통 산나물꾼 재현 등
충남도	마곡사 신록 축제	4.27~28	마곡사 일원	명상길 걷기 체험, 템플스테이, 전국학생 그림그리기 대회 등
전남도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4.12~14	영취산, 흥국사 일원	진달래 음악회, 산상문화공연, 템플스테이, 화전 만들기 등


봄꽃 아래에서 스님과의 차담은 봄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2012년 용문산 산나물 축제 현장. 산나물 비빔밥이 맛깔스러워 보인다.

생태사회와 불교
생명살림을 위한 불자청규

생태적 삶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든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앞에 놓은 발우. 불교사상에 담긴 생태적 삶의 실천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다.

1. 승재가공동체의 불자청규

청규는 부처님 가르침을 수승히 따르고 여법한 수행을 하기 위해 승가공동체가 지켜야할 규칙으로 당나라 백장청규 이후 지금까지 선방총림서 만들어 지켜왔다. 불자라면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飮酒) 등 5계는 반드시 지켜야할 계본이다. 그러나 이제 승재가를 포함해 생명을 살리고 생태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자로서 지켜야할 삶의 규범으로 8가지 청규를 제안하고자 한다.

① 모든 생명은 나와 한몸임을 깨달아 공경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

천지자연은 수많은 생명들로 이루어졌고 우리 인간도 이들과 더불어 자연을 구성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그래서 우리도 뭇 생명들과 한 몸임을 깨닫고 이들을 나의 부모, 형제 처럼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공경하며 섬기도록 한다.

따라서 모든 생물, 무생물은 우주적 생명의 합작품임을 깨달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소중히 생각하며,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실천한다. 이뿐아니라 자연의 생물을 보호하고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육식위주의 식사를 삼가고, 자연에 피해를 주는 농약, 살충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미래세대와 뭇생명 미래를 고려해 자연을 이용한다.

자연은 인간이외의 많은 생명들이 함께 이용하고 앞으로 미래세대가 이용해야 할 터전으로 우리는 잠깐 사용하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을 이용할 때는 미래세대와 생명을 배려해야하며 그들과 형평성이 고려된 사회가 구현돼야 하며 서로 살리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하는 행위는 꿀벌이 꿀을 따듯 서로 도움이 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자연은 미래세대와 많은 생명들이 함께 쓰는 것, 그들의 의사를 반영한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자연은 지역주민들이 이용의 주체이며 이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용돼야 한다. 또한 자연은 충분한 조사과정과 피해에 대한 대책이 준비될 때까지 함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살리는 공생의 삶을 산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끼리도 대립과 경쟁의 상대가 되어서도 안된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은 서로를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살리며, 땅을 살리고 이웃을 도우며, 인간과 다른 생물 사이의 평화를 이루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나무와 숲을 가꾸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키고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능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다. 또한 전통과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을이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실천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라를 돕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선다.

④ 소욕지족(少慾知足)의 삶을 통해 아름답고 소박한 삶을 산다.

보다 많이, 보다 크게, 보다 빠르게 하려는 인간의 마음이 경쟁과 전쟁, 폭력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화려한 의복과 맛있는 음식, 큰 집을 고집하는 것은 불자된 자세가 아닌 것을 알아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지 않고 작고 소박한 아름다움, 단순하고 멋스러움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한다.

그리하여 큰집, 큰 물건의 사용을 줄이고 작게 사는 삶, 자발적으로 청빈한 삶을 산다. 그리고 충동구매하지 않고 계획구매하며 최대한 적게 소비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한다. 또한 맛에 탐닉하지 않고 각종 첨가제나 오염에 찌들린 식품을 만들거나 먹지 않는다. 그리고 물을 절약하고 에너지를 최소로 이용하되 대체할 만한 에너지를 찾아 사용한다.

⑤ 항상 자신을 살피며 마음 닦는 수행의 삶을 산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욕심에 휩쓸리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산다. 항상 명상과 기도, 참선 등의 수행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의 풍요를 누리며, 이웃과 자연과 일체임을 깨닫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명상과 기도, 참선 등의 수행을 하도록 한다. 또한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움을 유지한다. 그리고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은 바로 나의 고통임을 알아 타인의 필요를 위한 삶을 산다. 또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것을 마음자리 밝히는 수행으로 삼는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공생의 삶' 살아야
생태사회는 불편 즐기며 천천히 사는 것
쓰레기 없는 일상이 완전순환의 삶
나누며 살면 자신에게 더 큰 행복 줘

⑥ 분별의 삶을 내려놓고 다양성을 풍요로움으로 여기는 삶을 산다.

깨끗함과 더러움, 소중함과 하찮음, 좋음과 싫음은 실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마음이 일으킨 분별이다. 따라서 익충과 해충, 흑인과 백인, 여성과 남성 등을 분별하지 않고 차이를 차별로 대하지 않고 다양성을 풍요로움으로 여기는 삶을 산다.

따라서 좋고 싫음을 구별하지 않고 더러운 것, 하기 싫은 것을 흔쾌히 내손으로 한다. 그리고 일체의 경쟁하는 삶을 중단하고 서로 살리며 공생하는 삶을 산다. 또한 여성, 어린이, 장애자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차별하지 않고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한다. 그리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사회적 풍요로움으로 생각한다.

⑦ 불편함을 즐기며, 천천히 사는 삶을 누린다.

자신만의 편리함을 추구해 온 것이 바로 생명파괴의 주된 원인이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한편에서는 산을 무너뜨리고, 쓰레기 더미가 쌓이며, 화학약품 등이 버려지고 있다. 목표에 집착하여 서두르지 않고 절차와 과정의 소중히 하며 천천히 일궈나가는 삶을 산다.

그래서 과도한 청결은 금하고 천천히 사는 삶, 불편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한다. 또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한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즐거움을 누린다. 또한 마을과 사찰을 잘 가꾸고 지역의 자연을 살리는 활동에 참여한다.

⑧ 잘 썩는 삶, 순환적인 삶을 산다

모든 것은 순환하여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이치를 알아,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맞지 않는 인공적인 물건을 생산하거나 소비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물건을 아껴 끝까지 쓰고 적절히 불편을 즐기는 삶을 산다.

따라서 썩지 않는 물건, 자연 분해되지 않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보다, 아름다운 자연을 비롯한 삶과 행동을 물려주는, 잘 썩는 삶을 산다. 또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생활은 한다. 그리고 쓰레기가 없는 생활, 버리는 것이 없는 생활양식을 통해 완전 순환되는 삶을 산다.

2. 불자들의 사회적 켐페인 (3S+3S의 삶)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life is Beautiful)

불자들의 삶은 결국 '작게 사는 삶(Small Life)'을 사는 것이다. 큰 것(大)과 많은 것(多)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오늘날 위기를 초래하고 개인 간, 집단 간, 국가 간의 전쟁과 갈등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었다. 결국 작게 사는 삶을 지향할 때 평화도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삶이다. 그래서 마음공부, 수행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견(照見)하며 사로잡힌 마음을 돌아보고 내려놓는 것을 일상화하며 법회참여를 빠지지 않고 정례화 한다. 이러한 수행의 힘이 바로 모든 삶의 기본 동력(Engine)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큰 것에 욕심내지 않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삶을 산다.

천천히 사는 삶이 아름답다 (Slow life is Beautiful)

불자들의 삶은 또한 '천천히 사는 삶(Slow Life)'을 사는 것이다. 경쟁은 죽음의 원리이다. 그러나 협력과 배려는 살림의 원리인 것이다. 경쟁은 곧 상대보다 앞서가려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빠른 것을 더욱 빨리 이루려는 사회에서는 결국 목표에 집착하는 사회가 되고, 과정이 손상되는 것이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며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천천히 밥 먹고,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고 삶을 즐기는 것, 그래서 천천히 사는 과정에서 자연과 주변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누는 삶이 아름답다 (Share Life is Beautiful)

불자들의 진정한 삶은 '나누는 삶 (Share Life)'을 사는 것이다. 생태계는 서로 의존하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결국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의 삶은 바로 수많은 생명의 '은혜와 덕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 '타인에게 잘 쓰이는 삶' '배워서 남주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버는 돈과 시간의 일정부분을 타인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능력까지도 나누도록 해야 한다

생명과 정신, 지구를 구하는 불자의 삶 (Save Our Life / Save Our Soul / Save our Earth)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일(Save Our Life)'이며 우리의 정신을 살리는 일(Save our Soul)이자 '지구를 살리는 일(Save the Earth)'인 것이다.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나누고 베푸는 삶은 초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스스로 나눈다거나 베푼다는 의식까지도 끊어져 체화 되어야 한다. 개인의 깨달음은 자신의 의식적 각성에서 시작되어 결국 사회적 깨달음으로 확장되어야 궁극에는 다시 자기 자신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삶이 결국 자신의 삶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삶이 될 것이다. 불교가 미래의 종교라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미래지향적인 삶을 증명해내야 한다. 북경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뉴욕에 태풍이 분다는 것처럼 작은 실천은 커다란 변화의 씨앗이 된다. 역사 속에 격동의 변화도 처음에는 작은 행위에서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삶은 타인을 위한 삶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더 큰 행복을 만들어 주게된다. (끝)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주) 마하연 투어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성지순례	7일 –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황산)	성지순례	4일 – 9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	성지순례	4일 –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석가장)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낙산)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직항)	6일 – 139만원
● 스리랑카	정통성지순례(직항)	7일 – 199만원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바고/시리암(직항)	5일 – 99만원
양곤/바간/헤호	5일 – 15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169만원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불교와 미학

탑, 부처의 몸

적멸의 상징… 부처님 사리 모신 탑



국보 40호 정혜사지 석탑〈사진 왼쪽〉과 국보 112호 감은사지 석탑〈사진 오른쪽〉.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석탑은 유유히 시간을 관조하며 서 있다.

"절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가 줄지어 나는 듯하다."

〈삼국유사〉에 묘사된 신라 서라벌의 풍경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나라, 불국(佛國)이다. 오늘날 경주에 남아 있는 유적을 통해서도 당시의 영화를 짐작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독 외침이 잦았던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석탑이다. 그래서 중국을 전탑의 나라, 일본을 목탑의 나라라고 하고, 한국은 석탑의 나라라고 한다. 전란의 풍화를 견뎌내고 살아남은 목탑이 얼마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산 많고 돌 많은 이 땅에서는 거친 돌 깎아 석탑을 짓기가 더 쉬웠던 까닭이다.

석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한국미술사학의 태두인 우현 고유섭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그는 금수강산 구석구석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석탑을 찾아 잊혀져가는 유물들을 기록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교통이 발달된 오늘날에도 전국에 흩어진 탑을 조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가 생존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보통 열정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는 왜 탑에 매료되었을까?

미술사 연구자들을 만나면 한국의 불교조형물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은사지 석탑을 꼽는다. 나 역시 감은사지 석탑을 처음 보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멀리 바다가 보이는 텅 빈 폐사지에 우뚝 솟아있는 두 개의 탑은 그 어떤 거대한 축조물보다 더 웅변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다. 장중하면서도 단순한 그 탑의 기상과 위엄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지, 그 힘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문무왕의 호국의 의지와 탑을 만들고 지켜온 민초들의 염원을 생각하며 오래 그곳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다.

석탑은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석탑 앞에 서면,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탑돌이를 하다가 눈 맞은 젊은 남녀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지아비를 그리워하다 죽어간 아사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얽힌 무영탑 이야기와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는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바다 푸른 물에 잠겨 있는 왕릉을 지키고 있는 감은사지 석탑 이야기까지 끝없는 옛날이야기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탑은 원래 중생들의 이야기를 담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조형물이며 부처님의 열반 이후 부처님의 사리를 여덟 나라에 나누어 탑을 세워 봉안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탑 또는 탑파의 산스크리트어 원어인 스투파(st?pa)는 墳陵, 塔墓, 歸宗, 大聚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로 미루어 탑은 고대 인도의 분묘 형식을 채용하고 거기에 기념비적 성격을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발견할 수 없는 불교만의 조형물이며 부처님이 허락한 유일한 상징물이다. 그러므로 불탑이라는 종교적 상징물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처님의 열반과 그 종교적 의미, 그리고 그 사건을 추모하는 승단의 태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대반열반경〉은 부처님 입멸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아난다여! 지금 이렇게 이 한 쌍의 사라 나무는 아직 제철도 아닌데 꽃이 피어 그 꽃잎이 여래의 온몸에 한들한들 흩날리며 내려와 여래를 공양하고 있다. 또 허공에서는 천상에서만 피는 만다라바 꽃이 여래의 온몸에 한들한들 흩날리며 내려와 여래를 공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천상의 전단분향도 여래의 온몸에 한들한들 흩날리며 내려와 여래를 공양하고 있다. 게다가 또 천상의 악기가 허공에서 울려 퍼지면서 여래를 공양하고, 천상의 음악도 들려 여래를 공양하고 있다. 그러나 아난다여! 절대 이런 일만 여래를 경애, 존경, 숭배하며 공양하는 일이 아니다.

아난다여! 비구와 비구니, 재가신자, 여성재가신자가 진리와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며 진리에 수순하여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더 깊이 여래를 경애, 존경, 숭배하며 공양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아난다여! '우리들은 진리와 그것에 따라 일어나는 것을 향해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리에 수순하며 행동하자' 라고, 아난다여! 이렇게 배워야 한다."

부처님은 자신이 승단을 지도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으며 열반에 임해서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았다. 출가자 각자는 자신의 수행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 당시 바라문 사제처럼 신에 대한 의식을 집전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계율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불교는 교주를 신성시하여 숭배하거나 절대화한 종교가 아니라 교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였다.

타종교에 없는 불교만의 조형물
숭배 아닌 청정한 마음의 원력

한국의 석탑 안정감·조화 이뤄
'부처의 몸' 이라 믿는 우매함 달래
"영겁을 지킨 탑의 침묵을 듣자"

교단의 권위는 신성에 의해 주어지거나 특수한 지위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행의 결과로서 주어졌다. 따라서 설법을 부처님만 아니라 일정한 수행 과위에 오른 수행자도 부처님을 대신하여 설법을 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열반을 당하여 제자들은 부처님을 대신하는 어떤 권위적 체계를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부처님의 장례는 여래를 깊이 숭앙하는 왕족이나 바라문, 자산가 등 재가신도에게 맡겨졌으며, 제자들은 출가 본래의 목적에 따라 바른 마음으로 노력하고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정진하도록 유촉 받았다.

그러므로 탑은 어떤 대상을 신성시하고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인공이 가졌던 정신적 고매함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청정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건립된 조형물이다. 청정한 마음의 공덕으로 사후에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지만, 탑의 공덕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봄으로써 얻어진 청정한 마음에 있었다.

훗날 사리 분실의 위험 때문에 탑이 사원 안으로 옮겨지게 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기리고 그 분의 가르침을 새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사거리에 세워졌다. 불교는 이처럼 열린 종교였다.

그러므로 귀의자들에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있는 탑은 단순한 분묘가 아니라 부처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부처님의 육신을 다비한 후 남는 사리는 부처님의 수행의 힘과 정신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리를 간직하고 있는 탑은 당연히 부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런 생각은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이전, 붓다고사의 시대에 이미 보편화된 것이었다.

아쇼카왕의 통치 아래서 인도 전역에 팔만사천 개의 탑이 세워졌다고 전설은 말하고 있다.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 불탑이 사거리가 아닌 승원 안에 건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와 함께 재가자들 사이에 퍼져있던 불탑 신앙에 출가 비구도 동참하게 된다. 열반경은 출가비구가 탑을 숭배하는 것을 만류했지만, 불탑 신앙은 출가 비구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찰에서 보는 탑과 금당의 배치 방식은 불탑 신앙이 확립된 이후에 나타난 형식인 것이다.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고대 인도의 복발 형태가 지금과 같은 탑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 때문에 복발 형태가 갖는 분묘 같은 느낌이 엷어지고 '부처님의 몸' 이라는 상징성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또한 높아진 기단 부분과 상륜부에 남겨진 복발 형식 때문에 동아시아의 목탑은 스투파의 우주적 원이나 만다라라는 수평적인 조형성보다 누적적이고 상승적인 조형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래서 더 신앙의 대상으로 적합한 것 같다.

우리나라 석탑은 다시 복잡하고 누적적인 다층 구조의 중국 목탑 형식을 단순화시켜 상승감과 안정감이 조화를 이루는 형태를 발견한다.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형식을 구현한 삼층석탑 양식은 그 조형미와 안정감 때문에 석탑의 대표적인 양식이 되었다.

한국 석탑은 장중하고 단순한 구조와 그 조형적 아름다움을 통하여 불신의 현존과 적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지혜로운 수행자의 구도의 열정만 아니라 부처의 몸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중생의 애환과 비원까지 다 담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문무대왕의 호국의 염원도, 아사달의 예술혼도 부처의 이름으로 그 속에 모두 녹아들어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의 절망을 미술사 연구로 극복하려 했던 한 미술사가에게는 탑은 또한 민족적 긍지의 결집체이자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었다.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짧은 생애를 마감한 고유섭의 비원은 탑과 더불어 다시 천년을 전해질 것이다.

영화를 자랑하던 황룡사 구층탑도 불타 없어지고 화려한 전각들도 사라졌지만, 석탑은 홀로 남아 영화로운 세월의 부산함도, 하염없이 오고간 사람들의 발길도 모두 거두어들인 채 오롯이 영겁의 시간을 지키고 서 있다. 탑은 그 많은 중생의 기원을 어디에 담고 있는 것일까? 텅 빈 폐사지를 쓸쓸히 지키고 있는 탑의 침묵으로부터 들어볼까?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아사리)

허공이 법신… '알음알이' 내지 말라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13〉



범어사 주지

만약 결정코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 또한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허공이라는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 허공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알음알이를 내지 말라.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과 법신이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생사와 열반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번뇌와 보리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일체의 모양을 여읨이 곧 부처다.

일체의 모양 가운데 모양을 여읜 실상이 있다. 허상을 버려야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허상과 실상이 함께 하고 있다. 허상에 끄달려서 실상을 놓치고 따로 찾고 구하면 안 된다. 허상 그대로가 실상임을 알아야 한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공부인은 마음을 취하나,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잊어야 참된 법이다.

경계도 마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내려놓고 내려놓지 않고에 관계없이 본래 내려놓은 것이다. 따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허물이 된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空)에 떨어져 잡을 곳이 없을까 두려워해서다. 이는 공이 본래 공이라 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一眞法界)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마음은 잊을 수 있고 없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아서, 일찍이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일찍이 있은 적도 없은 적도 없다.

진공은 있고 없고의 모습이 아니다. 공 이전이다. 진공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 도저히 '존재한다' 고 말할 수 없다. 그 가운데 무언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부처, 마음, 열반, 불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고,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으며, 젊지도 늙지도 않고, 방위와 처소도 없으며, 안팎의 구분도 없다. 수량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색상도 없고, 음성도 없다. 그러므로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으며, 지혜로써 알 수도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도 없고, 또한 애써 노력한다고 해도 이를 수 없다.

그 자리에는 지혜로도 다다를 수 없다. 지혜조차도 허물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라는 것도 번뇌를 없애기 위해 잠시 빌려온 약일 뿐이지, 본래는 병도 약도 없는 것이다. 본래 그림자도 없는 것이지만, 그림자가 있는 줄 아는 사람에게 짐짓 없앨 수 있는 수단을 보여주고 거기에 잠시 머무르게 했을 뿐이다. 그림자가 없어진 뒤에는 수단까지 버리도록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사람들은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이것이 경계는 벗어났어도, 마음에 집착하여 매달려 있는 것이다.

허상을 버려야
실상 드러나는것 아니다
허상 그대로가
실상임을 알아야 한다

경계도 마음도
따로 내려 놓으려 하면
허물이 된다

지혜는 번뇌 없애기 위해
잠시 빌려온 '약'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일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본래 청정한 부처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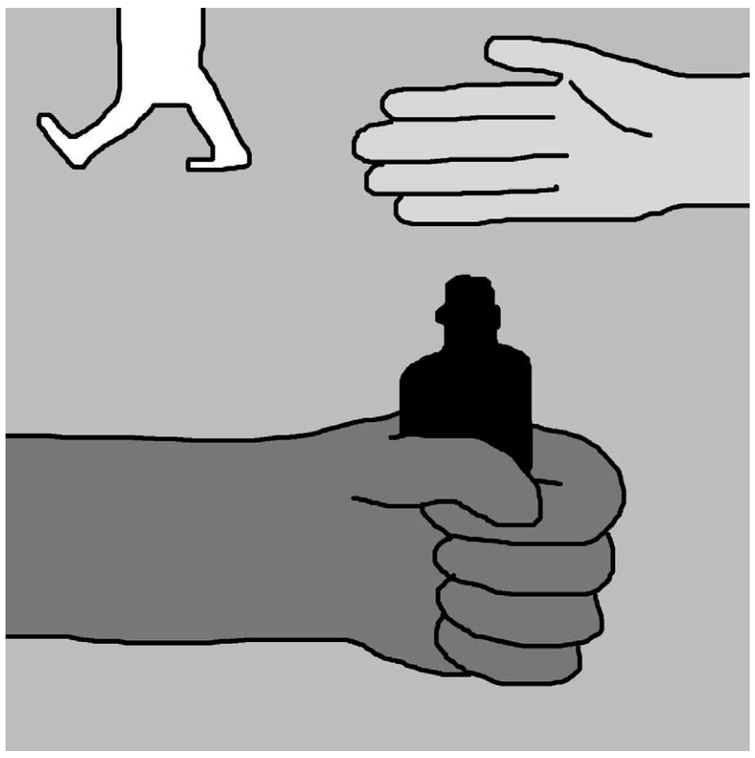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음으로써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며,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말라.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묵연히 계합할 뿐, 마음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알면 이렇게 되지만, 모르면 일부러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부른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다보니, 말 배운 대로 이치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머물게 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것이 정견이니, 밖으로 경계를 좇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도둑을 자식으로 잘못 아는 것과 같다.

전해야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되 준 바 없이 주고, 받되 받은 바 없이 받는 것이다.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일체 모든 대대(待對)가 끊어진, 절대 평등의 경지에서 일련의 일들을 소화해야 한다.

탐 · 진 · 치가 있기 때문에 계 · 정 · 혜를 세워 말씀하신 것이다.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인들 어디 있겠는가?

탐 · 진 · 치 삼독이 계 · 정 · 혜 삼학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제도해야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본래는 제도해야할 모습이 따로 없다. 그래도 중생에게 어리석음이 있다고 해야 믿음을 내는 사람을 위해서, 제도할 것을 전제하고 단계를 시설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 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늘, 일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셨다. 본래 청정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라.

아무리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일러줘도, 중생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덧붙이려 한다. 덧붙여지든 덧붙여지지 않든 다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어떤 변화가 와도 툭 터진 허공과 같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도 견디지 못하고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부는 선지식의 지남 아래 도반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전해오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③



곧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다

〈유마경〉

좌우명 이야기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만큼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 삶이라는 여행에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좌우명(座右銘)이 아닐까. 그래서 나 역시 좌우명을 하나 정해놓고 있다. 바로 '직심(直心)과 대비심(大悲心)' 이다. 시적이지는 않지만, 나로서는 이 이상 더 간절하게 염원하는 말도 달리 없다.

내 좌우명의 출전은 대승불교의 총론이라 평가받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다. 〈대승기신론〉에서 '발심(發心)' 을 말할 때, 어떤 마음을 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세 가지 마음(三心)을 제시한다. 직심, 심심(深心), 그리고 대비심이다.

나는 이 세가지 마음 중에서 중간에 등장하는 '심심' 의 경우를 제외하고서, 직심과 대비심만으로 나의 좌우명을 삼았다. 심심을 제외하고 직심과 대비심만으로 축약해 놓고 볼 때, 더욱더 강렬하게 어필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이다.

그 강렬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양자 사이에 '모순' 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순이 나의 내면의 모습이며, 나의 삶이라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 모순의 극복을 위하여 내 좌우명이 필요해졌다.

생각해 보라. 직심은 곧은 마음이고, 대비심은 둥글게 완만한 마음이 아닌가. 직심은 법대로 하는 마음이고, 원칙을 따르는 마음이다. 반면에 대비심은 너그러운 마음이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다. 직심이 칼로 자르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대비심은 칼을 내다버리고 상대와 포옹을 나누는 마음이다.

내게는 직심과 대비심이 언제나 충돌한다. 그래서 '모순' 된다고 했다. 어느 때는 직심을 발하고, 어느 때는 대비심을 발한다. 내가 직심을 발할 때 어느새, 내 안에서 대비심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내가 대비심을 발휘하게 될 때, 직심 역시 슬그머니 뒷문으로 나가버린다.

부처님은 이 두가지 마음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신 분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왔다갔다 할 뿐이다. 그것이 내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나는 직심과 대비심을 잘 조화할 수 있을까? 내 평생의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직심이 출발점이다

직심과 대비심이 모순되고 충돌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직심을 더욱 귀하게 생각한다. 직심이야말로 심심을 향할 때나, 대비심을 향할 때나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심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점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직심을 '올바로 진여(眞如)의 원칙(法)을 염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진여는 진리 그 자체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문맥에서 '법' 을 '원칙' 으로 옮겼다. 진리 그 자체를 굳게 지니고,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마음이 직심이다. 보다 평이한 우리의 일상언어로 옮긴다면, 정직이다. 정직이 바로 직심이다.

오늘날 과연 우리 사회에 '정직' 이라는 원칙이 존재하기나 할까?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묻지를 말자. "그러려니?"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계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어떤가? 교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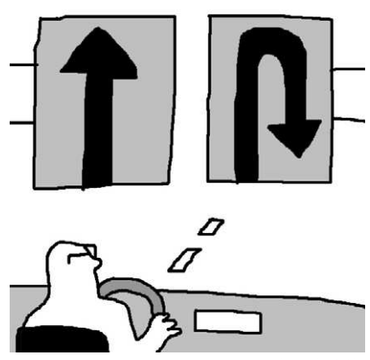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들은 어떤가? 아마도 쉽게 자신있는 대답이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왜 직심을 지녀야 한다는 말인가? 직심이야말로 수행(종교)과 학문(교육)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직심을 지니지 않는다면, 원칙이 무너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정직보다 거짓이 판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근래 그러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바로 유명인이나 공직자의 논문표절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역시 "직심을 도량으로 삼지" 않아서이다.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도량' 은 '극락' 이라는 말이다. 〈유마경〉의 메시지는 이렇다.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직심으로 살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극락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범주스님 선묵화 교실



선(禪)예술 문화원 서울 지부
제1기 회원모집

선묵화를 생활 속의 수행 방법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

교육 내용

매월 2회 범주스님 직접 지도
1. 불교의 핵심 강의
2.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명상
3. 체계적인 선묵화 수련

교육 안내

1. 기간 1년 (각1회 수련 3시간)
2. 매월 첫째, 세째주 수요일

입회 문의처 : Tel.(054) 535-0378

선(禪)예술 문화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 · 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 · 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 스 생 명 공 학 ※대리점모집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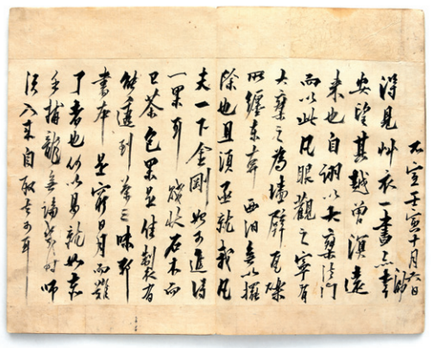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나 같은 범부에게 금강저를 맞아야…"

대정은 척박한 땅, 모슬포에 위치한 이곳은 원주민들조차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여겼던 곳이다. 모슬포에 위치한 화진포는 추사의 무사안녕을 기원해 초의의 상상으로 그린 〈제주화북진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항구이다. 모슬포를 거쳐 대정에 도착한 추사. 그는 제주 적거지에서 초의가 오기를 기다렸던 듯하다. 대정에서 2년을 지낸 후,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는 초의차를 극찬한 대목이 눈에 띈다. 〈〈완당전집〉〉〈여초의〉17신에 수록된 이 편지는 〈〈벽해타운첩〉〉에 친필본 편지가 수록되었기에 1842년 10월6일에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판은 추사의 친필편지이다.

초의의 편지를 얻는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아득히 먼 바다를 건너 멀리까지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대는)스스로 대승법문으로써 세속에 걸림이 없다고 장담하지만 이것을 범부의 안목으로 본다면 어찌하여 대승이 장벽이나 와력에 얽혀 이리저리 분주하여 그 상황을 떨쳐 버리지 못합니까. 다시 그대는 나 같은 범부에게 와서 금강저(金剛杵)를 맞아야 일과(一果)를 얻을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목석같을 뿐입니다. 그대가 보내준 차는 과연 가품입니다. 능히 다삼매(茶三昧)를 꿰뚫으셨군요. 글씨는 본래 세월을 다해도 (글씨를) 완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맨 손으로 용 잡는 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이든 그대가 (제주도로)와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임진(1842)년 10월 6일

得見草衣一書亦幸 安望其越層溟遠來也 自?以大乘法門而以此凡眼觀之 寧有大乘之爲墻壁瓦礫所纏 東奔西?無以擺際也 且須函 就我凡夫一下 金剛始可進 得一果耳 此狀石木而已 茶包果是佳製

초의 만나고 싶은 심정 애써 감춰
초의차 '다삼매'로 극찬
'초의차' 완성시기 짐작케 해

有能透到茶三昧也 書本是窮日月而難了者也 何以易就如赤手捕龍 無論幾時 師須入來 自取去可耳不宣

이 편지는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답신 편지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려는 초의의 계획이 여러 차례 추사에게 전해진 듯. 바다를 건너 제주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리 없는 추사였기에 "편지를 얻는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아득히 먼 바다를 건너 멀리까지 오기를 바라느냐"고 말한 것이다.

그의 속내야 얼마나 초의를 만나고 싶었을까마는 초의를 아끼는 추사의 살가운 정이 오롯이 드러난다. 굳은 약속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초의이지만 "세속에 걸림이 없다고 장담"했던 터였다. 연이어 무산된 초의의 제주행을 무엇이 분주해 오지 못하느냐는 추사의 질책은 "어찌하여 대승이 장벽이나 와력에 얽혀 이리저리 분주하여 그 상황을 떨쳐 버리지 못합니까"라고 한 대목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나 같은 범부에게 와서 금강저(金剛杵)를 맞아야 일과를 얻는다"고 한 추사의 쾌변(快辯)은 탈속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이다.

세상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진 그가 자신의 처지를 "목석같을 뿐이"라고 한 것은 해탈한 경지인가.

아니면 세상에 무관심을 그리 표현한 것인가. 제주시절 차와 불교에 심취했던 추사였으니 이는 분명 탈속한 그의 삶을 드러낸 말이라 여겨진다.

또한 초의가 보낸 차가 있으니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그의 마음에 갈증을 해소했을 것이고, 맑고 청량한 초의차는 울적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으리라. 그가 "그대가 보내준 차는 과연 가품입니다. 능히 다삼매를 꿰뚫었다"고 한 초의차의 평가는 최고의 찬사로, 초의차의 완성을 함께 축하한 말이기도 하다. 필자가 이 대목을 주목하는 연유는 초의차의 완성 시기를 밝힐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한편 초의가 추사에게 글씨를 부탁한 듯, 완성도 높은 글씨는 간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추사의 변은 그의 예술적 준칙을 또렷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大) (小)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소리로 불법 전하는 시대의 아난, 魚丈

〈어장〉

어산어장 동주원명 스님 (홍원사 회주)

1957년, 초등학교 4학년의 이조원은 부친 동은종선 스님을 따라 온양 관음사에 간다. 그는 거기서 처음으로 범패를 듣는다. 부친의 범패 소리를 듣는다. 중국 위무제의 아들 조식(192~232)이 어산(魚山 · 중국 산동성에 있는 산)을 거닐다 들었다는 범천의 소리처럼 열한 살 조원도 설명할 수 없는 선정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훗날 소년은 어장(魚丈)이 된다. 조계종 어산어장(魚山魚丈) 동주원명 스님이다. 3월 28일 서울 홍원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열한 살 조원은 관음사에서 범패를 들으며 출가를 생각한다. 난생 처음 듣는 그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기에 소년은 단 한번 들은 그 소리 때문에 '출가'를 품었을까. 하지만 소년은 아직 어렸다. 출가의 발원은 시절을 기다려야 했다. 세월이 흘러 조원은 열일곱 살이 되었고 대학입시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 부친이 계시는 관악산 삼막사로 짐을 싸서 올라간다. 오랜만에 법당의 법향을 본 조원은 왠지 입시공부보다 새벽예불에 신이 났다. 단번에 예불문을 외고 새벽예불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다.

하루는 새벽예불을 모시고 난 후 조원은 법당에서 깜빡 잠이 든다. 그리고 꿈을 꾼다. 소년의 큰 누님이다. 한 해 전에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누님이다. 세상을 달리한 누님을 꿈에서 본 뒤 잠에서 깬 조원은 그날부터 아프기 시작한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엘 다녀와도 몸은 점점 더 아프기만 했다. 잠시 집으로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병세는 매일매일 빚쟁이처럼 조원의 몸을 뜯어갔다. 집에 있어도 차도가 없자 조원은 꼬챙이처럼 말라버린 몸을 이끌고 다시 삼막사로 올라간다. 1시간이면 올라갈 길을 5시간을 걸어 올라갔다. 절은 어수선했다. 주지 스님의 임기가 끝나 신임 주지 스님이 오는 날이었다. 신임 주지 스님은 대처였다. 아픈 조원을 본 주지 스님의 처가 조원의 부친 종선 스님에게 말했다. "구병시식(救病施食) 해야겠는데요." 구병시식이란 말 그대로 '병에서 구해내는 의식'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병'은 다른 혼령이 몸을 붙들고 있어 아픈 병을 말한다. 시식은 혼령에게 베푸는 공양인 것이다. 구병시식에 대해 듣고 난 조원은 꿈에 본 누님이 생각났다. 조원의 부친 종선 스님이 구병시식을 시작했다. 아픈 조원은 부친의 범패를 듣는다. 밤을 새워 구병시식을 끝내자 조원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았다.

"정말 신기했죠. 언제 그랬나 싶게 몸이 멀쩡해 졌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몸이 아팠어요. 그 후로도 구병시식을 두어 번 다른 절에서 했는데, 얼마가 지나면 또 몸이 아팠어요. 주위에서 구병시식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누님의 천도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프지 않았어요."

누님의 천도재를 지낼 때 조원은 많이 아팠다.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 조원은 생각했다. '내가 병이 나아서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출가하리라.' 다시 조원의 가슴 속에서 출가의 발원이 일었다.

열일곱의 조원은 출가한다. 부친인 종선 스님도 이번엔 말릴 수 없었다. 종선 스님은 아들 조원을 데리고 당시 대강백으로 알려진 대은 스님을 찾아간다. 병을 털어냈지만 그 동안의 투병으로 인해 조원의 몸은 산송장이었다. 제자로 받았다간 시봉을 받기는 커녕 언제 초상을 치를지도 모를 형국이었다. 하지만 대은 스님은 "본인이 발심만 했다면 당연히 제자로 받아주지."하며 흔쾌히 조원을 제자로 받았다. 1961년 이조원은 서울 상도동 사자암에서 대은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는다. 불명은 원명(元明)이었다. 원명 스님은 그때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나를 받아준 은사 스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노릇 제대로 하려면 소리(범패)부터 익혀야 한다." 막상 출가를 하고보니 스님은 범패보다는 강사가 되고 싶었다. 경을 읽고 있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스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거스를 수 없었다. 출가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야 했다.

스님은 벽응 스님 밑에서 소리를 시작한다. 재주 있는 사람은 석 달만 해도 웬만치는 하게 된다는 스승의 말에 스님은 "그래 석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석 달 후에는 강원으로 가자."고 마음먹는다. 하지만 스님의 3개월은 4년 4개월이 된다. 벽응 스님 밑에서 1년여가 지났을 때, 스승 대은 스님은 만월의 계보를 잇는 월하 문하의 한 축인 송암 스님에게 원명 스님을 특별히 부탁한다. "스님이 가진 재주 싹 다 우리 원명이 한테 가르쳐 주시오." 스승은 제자를 위해 20살 연하의 송암 스님에게 절까지 했다. 원명 스님은 송암 스님의 문하로 들어간다.

11살 때 범패 듣고 '출가' 생각
'구병시식'으로 죽음 넘기며 출가
선방에서 범패 의미 깨달아
대장경의 골수만 뽑아 만든 '소리'

45년간 3천 여회 어산 의식 집전
무형 문화재 '경제어산' 보유자
"범패의 대중화…시대적 요청"

신촌 봉원사. 스님은 작은 방 하나를 받았다. 저녁예불이 끝나면 대중은 절 밑 거처로 모두 돌아가고, 어둠이 내린 텅 빈 도량에서 스님은 마음껏 소리를 했다. 그날 배운 소리들을 부르고 또 불렀다. 스님은 그때 소리에 대한 발심이 새록새록 일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님은 열한 살 때 처음 들었던 소리에 다시 빠지기 시작한다. 스님의 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튼튼해져 갔다.

그야말로 소리와 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스님은 어느 날 지월이란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스님은 지월 스님의 선(禪) 수행담을 듣고 선에 끌리기 된다. 스님의 가슴은 다시 부풀고 마음은 선방으로 가 앉았다. 스님은 참선의 유혹을 재우지 못했다. 송암 스님으로부터의 수학을 모두 끝낸 스님은 선방으로 갈 것을 결심하고 스승 송암 스님께 하직 문안을 올린다. 스승 송암 스님은 당황스러웠다. 이제 제대로 된 제자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선방으로 가겠다니, 그동안 들인 공도 그렇고 아무튼 기가 찰 노릇이었다. '배신'이라고 해도 달게 받아야 할 일이었다. 주위 사람들도 이해 할 수 없었다. 송암 스님이 후계자로 지목한 이상 스님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었다. 그 보장된 미래를 두고 선방으로 가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섭섭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나 다른 일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겠다니 할 수 없구나. 가거라. 그리고 꼭 이루거라." 스승의 마음은 늘 그런 것이었고 제자의 욕



1966년 은사 대은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



원명 스님은 2006년 조계종 어산어장으로 추대됐다.



동주원명 스님은 … 1961년 서울 상도동 사자암에서 대은 화상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벽응 스님과 송암 스님으로부터 범패와 작법 전 과정을 수학했다. 1968년부터 불국사, 해인사, 조계사 등 국내외 사찰의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을 주관하며 범패의 계보를 이었다.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상도동 사자암 주지를 지냈고, 1998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이수자 이수증을 받았다. 2005 년에는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 조교로 지정됐다. 45년간 3,000여 회의 영산재 및 각배 수륙재 및 예수재의 법주 집전을 주관했다. 2006년 조계종 어산 어장으로 추대됐으며, 2013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의 기능 보유자로 인정됐다.

심은 또한 늘 그런 것이었다. 하늘만 쳐다보는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원명 스님은 스승을 떠난다. 그리고 부안 내소사 선방에서 첫 방부를 들인다.

"선방에 가서 범패의 참맛을 알았어요. 팔만대장경 중에서 정수의 정수만 뽑아 만든 것이 범패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안거가 끝나고 대중이 모두 떠난 도량에 남아 스님은 달빛 아래서 범패를 불렀는데, 범패가 선정의 극치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했다.

스님은 해제 때는 범패수련에 정진했다. 그리고 1973년 경주 불국사 복원 낙성식에서 영산재를 이끌며 주목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1977년, 선방을 돈지 9년 쯤 되었을 때였는데, 스님은 스승 대은 스님의 부름으로 사자암 주지를 맡게 된다. 연로하신 스승을 모셔야함은 제자로서 두 말이 필요 없었다. 선방의 좌복이 어른거렸으나 스승을 모셔야 했다. 이 역시 잠깐만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16년을 살게 된다. 주지 소임 탓에 그 이후로 스님은 선방에 갈 수 없었다.

당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진감 국사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범패의 계보를 이은 동주원명 스님. 선사로서의 행보는 어긋났지만 스님은 범패가 선정의 극치임을 선을 통해 깨달았다. 약 10년 만에 선방의 방부를 거뒀지만 범패의 계보를 잇는 불사는 계속되었다. 1980년 사자암에 범패의식 수련원을 열고 연수원장에 취임하여 범패 및 제반 의식을 후학들에게 전수하는데 매진한다. 조계종도 불교의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스님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계사 앞마당에서 매년 영산재를 시현했다. 그리고 2006년 스님은 조계종 어산어장으로 임명된다. 어산어장은 선원의 조실, 강원의 강주, 율원의 율주와 자리를 같이 하는 불교의식의 최고 '어른'이다.

스님은 범패의 대중화에 원력을 세운다. 범패의 대중화란 한글화(한글번역에 곡을 붙이는 작업)를 말하는 것으로 시대가 요청한 과제라고 스님은 말했다. '칠정례'와 '반야심경'은 새로운 곡을 붙여 작업을 마쳤다. 각종 예불문과 경전 등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스님의 남은 불사이자 원력이다. 그리고 출가자들이 한문, 빠알리어 등 불교 공부에 필요한 기초학문을 닦을 수 있는 수련원과 범패전문교육원을 세울 것이라고 스님은 남은 생의 원력을 밝혔다.

서울시는 1월 3일 '경제어산(京制魚山)'을 무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하고 조계종 어산어장인 동주원명 스님을 기능보유자로 인정했다. 경제어산이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범패를 말하는 것으로 불교의식을 진행하는 어산(범패와 범음)을 말한다. 아난이 부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듯 동주원명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 전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원명 스님은 45년간 3천여회 어산 의식을 집전했다. 사진은 겸제공 정선 추모 영산재 모습

전법일기

"좋은 일 하면 좋은 소문 나"

어르신공양, 그 불순한 의도

우리절은 한 달에 세 번 지역 어르신들께 점심공양을 대접한다. 매번 평균 200분가량 오시는데, 1년에 한 번 전복죽을 끓일 때는 400~500분가량 참석하시고, 동짓날은 300분가량이 드신다.

이 글을 보는 주된 독자가 스님들일 거니까 솔직히 말한다. 내가 무료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뜻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뭔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도 있었다는 얘기다.

내가 이 절에 부임하고 나서 두 달 후에 취임식을 했다. 도반들과 타지에서 인연맺은 불자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 절을 찾아왔다. 그들이 이 부근에 와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절의 위치를 물었지만 절을 코앞에 두고도 보성선원을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뜻밖이었다. 요즘 사람들이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했다. 물론 창건주 스님이 워낙 조용하게 평생을 사셔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취임식을 치른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절을 알릴까 하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신문에 간지를 넣어 뿌려?', '현수막으로 온 동네에 도배를 해?', '간판을 대문짝만하게 만들어?' 이도 저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문에 간지를 넣어서 뿌리는 방법은 너무 천박하게 보일 수 있었고, 현수막을 내걸어봤자 며칠 가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었다. 간판을 큼직하게 하는 건 너무 속된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좋은 소문이 나게 하는 것이었다.

소문이라는 게 그렇다. 그게 누군가의 의도에



그림 · 박구원

따라 나고 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었다.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소문은 저절로 난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소문이 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소문이 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 자신에게 이로운 일, 득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가.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혼자 해도 되는 일 같았으면 자주 했겠지만, 많은 신도들의 힘을 빌려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한 달에 한 번만 공양했다. 법회 때 신도들에게 공지했고 신도 대표가 경로당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했다. 처음엔 몇 분 안 오시더니 소문이 나면서 어르신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났다.

한동안은 산채비빔밥만 했다. 산채비빔밥이라 하니까 고상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풀만 드렸다는 거다. 가끔 하는 공양이니까 같은 음식을 드려도 문제는 없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 어르신들에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절에서 나물비빔밥 주는 거야 당연하지만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다른 걸 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뭘 해드릴까요?"

"다른 데 가면 쌀밥에 고깃국을 주던데, 여긴 안 되겠죠? 절이니까."

'쌀밥에 고깃국'은 굶주림을 경험한 노년 세대의 소망 아니던가. 고깃국 끓이는 문제로 신도님들과 상의했다. 찬성도 있었지만 반대가 많았다. 반대하는 분들은 말했다. "나야 괜찮지만 신심 깊은 노보살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반대한다고 하지 않고 꼭 남 핑계를 댄다. 그래서 절충안이 도출됐다. 소고기를 볶아서 한 숟가락씩 얹어드리는 것으로.

첫 공양 이래 근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지금은 한 달에 세 번 어르신들께 공양을 대접한다. 형편에 따라 소고기국이나 돼지감자탕도 끓이고, 곰탕, 육개장, 선지국, 삼계탕도 끓인다. 지금은 반대하지 않느냐고? 난 모른다. 내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해 봐야 소용이 전혀 없다는 걸 지난 5년간 충분히 학습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북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WORLD BUDDHISM LEADER

108인 선정 고승들의 수행
미얀마에서 실시한 큰스님들의 7일간의 수행

미얀마 종교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연일 국영방송과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이르켰고 미얀마 연방승가회
닥터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의 격려속에 3사 7증 큰스님들과 많은 스님들이 주관하는
의식 중에는 종교성 장관 내외 부장관 내외 차관 내외와
30여 국장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성황의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성원해주신 전국의 큰스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합장 올립니다.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佛法을 기업 가치로 삼은 메타엔진社

(Metta-Engine)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업 가치를 찾고, 이를 실천하는 영국 웨일즈(Wales) 지역의 회사와 그 공동설립자들이 화제다.

영국의 지역 매체 웨일즈 온라인(Wales Online)은 3월 22일자 보도에서 "IT 개발 및 관련 출판 사업을 하고 있는 메타엔진(Metta-Engine) 사(社)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업의 가치와 윤리를 찾는 것은 물론 회사 내에 명상실을 개설해 임직원에게 친(親) 불교적인 업무환경을 선보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타엔진(Mettaengine) 사는 웨일즈의 주요 불교센터인 '칼디프(Cardiff Buddhist Centre)'에서 단기명상코스에서 수련하던 세 명의 불자들이 의견을 모아 설립한 웨일즈 지역의 첫 불교기업이다. 이들 공동설립자들은 그레헴 쉬멜(Graham Shimell · 51), 윌리암 엘웰티(William Elworthy · 48), 존 제임스(John James · 47)이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명상"이라고 말하는 그레헴 쉬멜은 "이때 우리는 함께 사내 명상실로 발길을 옮기는데, 아침 명상을 거르지 않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불이 봉안돼 있고, 향 내음이 향로에서 은은하게 피어나며 부처님 찬(chant · 讚)이 CD 플레이어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이곳은 사실 공동설립자들만의 공간은 아니다. 업무 시간에 관계없이 직원이면 누구나 이곳을 찾아와 명상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메타엔진(Metta-Engine)사 내에 마련된 명상실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임직원들. 메타엔진의 공동설립자인 리암 엘웰티(William Elworthy · 48, 사진 맨 왼쪽)와 그레헴 쉬멜(Graham Shimell · 51, 사진 중앙)이 보인다.

사내 명상실 마련… 매일 출근 후 아침명상

英 웨일즈 첫 불교기업… 오계(五戒)를 경영 윤리로

칼디프 불교센터서 만난 G. 쉬멜 · 그레헴 쉬멜(Shimel) 등 3명 공동설립

"우리 임직원들이 사내 명상실을 찾는 시간은, 경쟁 치열한 일터를 '열반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존 제임스는 "종을 울리고 명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밝히는 데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우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며 "그 순간만큼은 '나'와 '네'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와 제 직원들은 호흡에 중점을 둔 명상을 한다"는 윌리암 엘웰티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적대감을 품었던 우리 마음은 평온을 되찾는다"며 "그래서 명상실을 나올 즈음이면 우리를 화나게 만들었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임원들은 일터에서도 오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는 "이런 노력이 직원들에게 전해져,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관용해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는 임직원 대부분 명상실을 자주 찾는 이유"라고 귀띔했다.

웨일즈 온라인에 따르면, 이들 세 명의 공동설립자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는 와중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사업장에서 자신들의 기업 가치가 희망의 불꽃이 되길 희망하고 있다.

"서구는 물질주의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데, 이는 글리벌 경기 침체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그레헴 쉬멜은 "최신형 BMW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듯이,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며 "메타엔진과 우리들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그 가치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웨일즈 온라인은 "영국 웨일즈(Wales) 지역에서의 불교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비트 세대(Beat Generation)를 살았던 중장년층이 지역 공동체의 견인마차로 등장한 시점이라는 데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비트 세대란 19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개개인이 거대한 사회조직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항하여, 민속음악을 즐기며 산업화 이전시대의 전원생활, 인간정신에 대한 신뢰, 낙천주의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캠퍼스 수놓은 2500년 전 티베트 춤사위"

지난 3월 21일 미국 플로리다 주의 폴크 카운티(Polk County)의 레이크랜드 대학(Lakeland University)에서 '티베트 불교 문화축제'가 열렸다.

대학 신문 'School Newspapers Online'에 따르면 캠퍼스 내 브레들리 센터(Bradley Center)에서 열린 이번 문화축제에는 인도 문드갓(Mundgod) 소재 '드레풍 로세링 사원(Drepung Loseling Monastery)'의 스님들로 구성된 예술단이 2500년 전통의 노래와 춤으로 무대를 수놓아, 재학생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알렉스 듀덱(Alex Dudek · 역사학 · 2학년)은 "전통 춤을 선보인 티베트 스님들의 동작 하나 하나에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엔디 크리베론(Andy Crivellone · 교육학 · 1학년)은 "스님들이 무대에서 선보인 특이한 목소리는 너무 매력적이어서, 불교철학을 담은 언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드레풍 로세링 사원(Drepung Loseling Monastery) 8명의 스님들로 구성된 예술단은 '티베트문화 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레이크랜드 대학 공연에 이어 미국 전역을 순회할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사찰,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낙찰받아

사이후쿠사 이케구치 스님,

"건물 임대 요청시 빌려줄 것"

일본의 한 사찰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도쿄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양도받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3월 29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의 재일 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가고시마(鹿兒島)시의 사찰 사이후쿠(最福)사에 매각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 일주일 간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가 없으면 사이후쿠사는 소유권을 최종 양도받게 된다"고 전했다.

사이후쿠사는 3월 26일 경매에 넘어간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및 토지를 감정가인 26억 6천만엔을 넘는 45억 1900만엔에 낙찰받았다. 사이후쿠사의 이케구치 에칸(池口惠觀) 스님은 "조총련에서 건물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혀 조총련 본부 기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이후쿠사에 매각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도쿄 중앙본부 건물.

사이후쿠사는 1973년 건립된 일본 진언종 계열의 사찰로 이케구치 스님은 지난 2009년부터 5차례 북한을 방문해왔으며 북한 정부 관계자와 긴밀히 교류해왔다. 특히 방북 중 일본인 납치 단체인 '요도호그룹'을 면회하고 지난해 4월에는 '고(故)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축하 행사에 참석해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미얀마, 불교·무슬림간 폭동 40명 사망

금가게서 다툼 번져…비상사태 선포



무장한 불교도들이 미얀마 만달레이주 메이크틸라시에서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

다수의 불교도와 소수의 무슬림이 섞여 사는 미얀마 중부 도시에서 이슬람교와 불교도 간 유혈 충돌이 이어져 최소 40명이 사망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테인 세인 대통령은 3월 28일 종교 극단주의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즈(NYT) 등 주요 외신은 3월 22일(현지시간) "미얀마 중부 만달레이주 메이크틸라시에서 촉발된 종교 분쟁이 격화해 도시 외곽으로 번져 나가며 사상자가 늘고 있다"며 "일부 승려가 이끄는 불교도 폭도들이 방화한 무슬림 집을 진화하려는 소방당국을 방해하고 현지 취재 중인 기자들을 위협해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에서는 주민들의 폭도로 현지 상황은 킬링 필드를 보는 것 같다며 격화된 상황을 묘사했다.

한 현지 신문기자는 "방화 때문에 새까맣게 탄 시체만 15구 봤다"며 "사망자수는 경찰이 밝힌 20명보다 훨씬 많은 최소 40명"이라고 말했다. 메이크틸라시 의원은 "3일동안 이 지역 이슬람 사원 17곳 중 최소 5곳이 불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주민 중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도들이 전날 충돌에서 승려가 사망한 것에 분노해 무슬림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무슬림들은 도시를 떠나거나 경기장으로 피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3월 28일 대국민연설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두 종교의 숭고한 가르침을 악용하고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증오를 심으려는 모든 정치 기회주의자들과 종교 극단주의자들에게 경고한다"면서 "저들의 시도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인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반 대중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무력 투입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내 무슬림 지도자들은 세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무거운 처벌 대상인 방화, 대학살 등 범죄가 자행됐다"며 "관계 당국이 눈앞에서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토마스 오제아 퀸타나 미얀마 주재 유엔 인권특별조사관은 같은 날 "최근 발생한 일부 폭력 사태에 '국가 개입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퀸타나 조사관은 "군경과 민간 법집행관들이 잘 조직된 극 국수주의 불교도 무리들의 횡포를 포함해 눈앞에서 펼쳐지는 잔혹 행위들을 좌시했다"고 지적했다.

"종교 극단주의자에 경고" 엄포

UN "국가 개입 정황 있다"

이번 충돌은 3월 20일 미얀마 양곤에서 북쪽으로 550㎞ 떨어진 지역인 메이크틸라시(市)에 위치한 무슬림이 운영하는 금가게에서 주인과 고객 간 금 거래를 놓고 벌어진 언쟁으로 시작됐다. 언쟁 중 남성 한 명이 다친 것이 현지 주민 200여 명이 거리로 몰려 나와 폭동을 일으켜 승려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시민 10만 명 중 30%가 이슬람교도인 메이크틸라에서 이슬람교도의 상점과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고 불교도들이 마체데와 칼을 들고 도심을 활보해 이슬람교도들이 외출을 삼가고 있다.

다수의 불교도와 소수의 무슬림이 섞여 사는 미얀마에서는 종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서부 라인주에서 무슬림이 불교도 소녀를 성폭행해 촉발된 유혈 충돌로 최소 180명이 숨졌다.

하지만 이전 충돌이 주로 미얀마 서부에서 벌어진 데 비해 이번 충돌은 치안이 잘 유지된 중부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에 대해 NYT는 "종교 분쟁이 국가 핵심부까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 **30,800원**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기 : 직경 10mm

※염주세트에는 주머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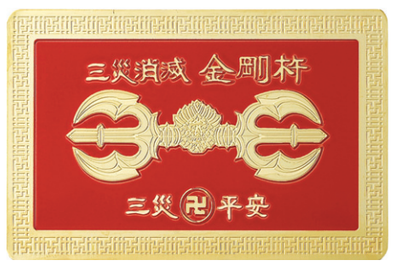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전통공예의 찬란한 美 '금은보화전'

6월 2일까지 리움미술관서

석굴암 형태 불교 섹션 구성

국보 80호 금제여래입상 등 전시


국보 제 80호 금제여래입상

삼성리움미술에서 국보급 불상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리움 미술관은 2013년 첫 전시로 고미술과 현대미술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획전 '금은보화(金銀寶貨) 한국 전통공예의 미' 展을 6월 2일까지 삼성미술관 Leeum 기획전시실 블랙박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고대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재료와 최상의 세공 실력으로 만들어진 공예품들의 찬란한 예술성을 조명하는 자리다. 리움 미술관은 "금과 은, 보석으로 만든 공예품을 통해 한국 미술의 화려한 면모를 선보이고자 기획한 전시다. 미국 보스턴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등 국내외 주요 박물관에서 대여한 국보 19점, 보물 26점을 비롯한 총 120여점의 한국 전통공예 명품들을 한 자리에서 전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불법의 미, 장엄의 미' 라는 주제로 불교 미술 섹션을 구성 석굴암 내실 형태로 단장된 전시관을 배치했다. 이곳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80호 금제여래입상(통일신라 692년경, 금)과 호림박물관 소장 보물 1047호 금동 대세지보살 좌상(고려 14세기)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가장 귀하게 여겨진 금과 은을 활용한 기물들을 중심으로 도금, 입사 기법이 가미된 정교함과 더불어 옥, 수정, 유리, 호박 등을 숙련된 기술로 가공한 보석공예품의 화려함도 새롭게 엿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리움미술관은 영화와 미술과의 영향관계를 조명하고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재고하는 '미장센-연출된 장면들' 展도 동시에 개최한다.(02)2014-69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나무 작품 하나에 역사를 담았다

송강 스님 서각 전시회…경인미술관에서

"나무의 속삭임을 듣습니다/나무에 가만히 귀기울이면 나무의 바람을 읽습니다 (중략) 나무와 사람의 어울림이 무르익을 땐 나무도 사람도 텅비어 버립니다" 송강 스님의 글 중에서


송강 스님의 서각 '茶禪'

20여년간 서예와 다도로 불심을 전하는 송강 스님(장수 도성암 주지)의 서예 서각 전시회가 4월 17일~23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린다. 2005년 첫전시 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스님은 서예·서각·다도찻상 등 7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전국 방방곳곳을 산행하며 나무를 찾아다녔다. 스님은 "작품 하나하나가 역사가 있고 삶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2009년부터 월간지 〈차의 세계〉와 월간〈불교〉에 연재해오던 작품에 새롭게 작업한 문인화 등이 포함돼 있다. 스님은 "서각과 차탁에 사용한 나무 소재는 관솔, 괴목 등 무늬, 색상 등이 뛰어난 작품"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제방의 스님들과 차인들, 그리고 여러 불자님들의 마음을 고요히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063)353-2981 정혜숙 기자

불화,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 '시도'

김선희 첫개인전 '화엄 禪 세계'…4월 19일부터

전각·수묵화·불교회화 전시

수월관음 향한 선재 동자 주목

깨어있는 목어 전각 등 주목

"지극히 담백한 선화의 세계와 화려하고 찬란한 화엄불화의 세계는 서로 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담담하게 그리거나 찬란하게 그리는 등 기법적인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림세계라 할 수 있다" (동국대 문명대 명예교수)

"西來의 작품세계는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현대적 미를 개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동국대 예술대 김창균 교수)

서래(西來) 김선희 작가의 첫개인전 '화엄 禪 세계'가 4월 19~ 25까지 종로구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김선희 작가는 불교회화·전각·수묵화 등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그동안 고려불화와 수월관음도의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향수를 중심으로 화려한 색채와 선을 표현하고 시대를 넘나들며 현대인의 삶과 경계를 자문하는 작품세계를 구사해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고려불화 7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정면을 바라보며 결가부좌를 하고 있는 수월관음도는 인상적이다. 관음보살은 오른손을 아랫배에 두고 손바닥은 하늘을 향해 연꽃가지를 잡고 있다. 또한 화면 하단 합장하고 있는 통통한 얼굴의 귀여운 선재동자는 이 작품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구법여행을 떠난 선재동자가 수월관음을 만나 법을 구하는 모습은 법을 열망하는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전통고려불화의 형식을 작가 나름의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수월관음보살이 연꽃을 들고 있거나 가부좌를 하는 경우는 드물죠. 정병도 보통은 좌측에 위치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우측에 있으며, 보통 관음보살 뒤편에 그려지는 대나무도 화면 하단 좌우에 기암괴석과 함께 그려 일반적인 고려 수월관음도의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직사각형의 지붕돌 위에 종을 새겨 넣은 전각 작품 '과욕청심원(寡欲淸心源)'도 인상적이다. 마산의 한 사찰에서 작가가 직접 구해왔다는 직사각형의 지붕돌위에 종을 새겨 넣고 무릎 꿇고 합장하는 비천상과 오방색의 목어를 그려넣었다.

"과욕청심원 즉 '욕심이 적으니 마음이 뿌리에서 맑아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처음 바탕이 되는 돌을 발견했을 때 너무 예뻐서 거기에 스며들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전각기법보다는 비천상을 더 부각 시켰죠. 무릎을 꿇고 있는 비천상은 공양을 올리는 제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목어는 정진을 통해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화로 표현되는 공시리즈는 선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허공' 역시 자연의 표상인 새를 통해 새의 시선과 작가의 시선을 동시에 담으며 선의 세계를 구현해낸다. "새가 바라보는 3차원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새 연꽃 바위 물로 자연을 한 선상에서 놓고 선적인 의미를 부여했죠"


①


②


③

김선희 작가의 첫개인전 '화엄 禪 세계' 가 4월 19~ 25까지 종로구 가회동 갤러리 한옥에서 열린다.
①과욕청심원(寡欲淸心源) ②허공 ③수월관음도

작가는 앞으로 새로운 불교미술 창조에 매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불교미술은 도상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미인과 21세기 미인의 기준이 다르듯이 우리의 불화도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은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끼지만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을 때 새로움을 느끼죠. 저의 그림도 앞으로 현대적 시각으로 저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김선희 작가는 동국대 불교미술학과를 졸업,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 있다. 1990년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2006년 한국여성미술공모전, 2012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서 입상하고, 2006년 일본 동경 둥글고 밝은 빛 전, 팔라우 국제초대전, 2013년 인도 델리대학교, 뭄바이대학교 둥글고 밝은 빛 전 등에 초대작가로 참여했다. 현재 한국미술사 연구소 연구원, 동서미술학회 연구이사, 한국선(禪)미술인회 연구원으로 있다. (02)3673-3426 정혜숙 기자

삶·예술·불교로 풀어가는 '토크쇼'

박범훈 前 중앙대총장 진행 BBS TV '추임새'



박범훈 前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진행하는 불교방송TV 토크쇼 '추임새' (연출 김형만, 김정규)가 주목받고 있다.

불교방송 BBS 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박범훈 前 중앙대총장이 진행하는 '추임새' (연출 김형만, 김정규)가 주목받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SKYLIFE(위성) 410 등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게스트들의 삶과 예술 그리고 불교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토크쇼다.

'박범훈의 추임새'는 주류미디어들이 놓치고 있는 전통문화가 어떻게 불교와 만나왔으며 함께 어울려 발전해 왔는지 이야기하고자 기획됐다.

연출을 맡은 김형만 PD는 "이 프로그램은 불교와 시대정신, 불교와 시대문화 사이에 놓인 간극을 없애고 서로가 서로에게 융합되어 다시한번 시대를 이끌어내는 대안문화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취지를 전한다.

이에 추임새 연출팀은 서양음악 작곡가로 시작해 한국음악과 불교의 접점에 천착해, 찬불가를 개척해낸 박범훈 前 중앙대총장을 진행자로 캐스팅했다. 지금까지 박前총장은 5명의 게스트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해왔다. 게스트로는 △무대위의 아름다운 이중주 김성녀, 손진책 부부 △부모은중경과 함께한 무대인생 40년, 국악인 김영임 △사물놀이를 발명하다, 광대중의 광대 이광수 △대를 잇는 보살의 몸짓, 무용가 김백봉 모녀 △불모(佛母) 목공예장인 박찬수 관장 등이 출연했다.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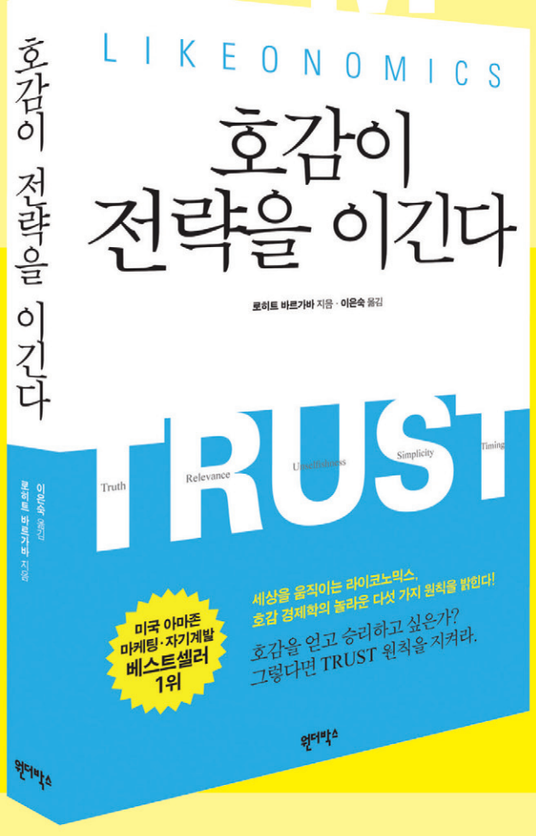
"호감 경제학(likeonomics)은 2012년에 회의실을 뒤흔든 가장 주요한 네 가지 마케팅 용어 중 하나이다." -≪마케팅 위크≫

LIKEONOMICS

지금은 '호감 경제학'의 시대!

세상을 지배하는 라이코노믹스,
호감 경제학의 놀라운 다섯 가지 원칙이 밝혀진다!

- 조지 부시가 엘 고어를 이기고, 버락 오바마가 롬니를 이겼듯 호감도 높은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진짜 이유는?
- 영화광 스콧 디지아마리노가 미국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76개 지점 가운데 실적이 173위이던 지점을 1년 만에 1위로 탈바꿈시킨 비결은?
- 한 번에 한 사람, 18분이라는 강연 시간이라는 단순화를 통해 큰 성공을 이룬 테드 컨퍼런스의 비결은?
- 바닷속에서 수중 각료 회의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UN 기후 변화 회의에서 강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 몰디브 대통령의 비결은?
- 20달러짜리 지폐 한 장을 보내 줄리아 로버츠를 영화 〈오션스 일레븐〉에 출연시킨 비결은?
- 무명 배우 출신 TV쇼 진행자였던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시청자와 공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미국 아마존 마케팅·자기계발 베스트셀러 1위

지혜로운 생각으로 가득한 이 책을 통해 시장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쉬우며,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을 찾아가길 바란다.
-다니엘 핑크(『드라이브』,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일에서든 인생에서든 성공에 이르는 길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디팩 초프라(『성공을 부르는 일곱 가지 영적 법칙』의 저자)

로히트 바르가바 지음 | 이은숙 옮김 | 328면 | 값 15,000원

원더박스 Tel. (02)420-3200 Fax. (02)420-340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3층 http://blog.naver.com/wonderbox13

“잘 쓰이는 배우 되고 싶어요”

영화 ‘파파로티’ 출연 불자 배우 차종호 씨



불자배우 차종호씨가 ‘파파로티’에 개털로 출연 주목받고 있다. 사진 중간이 차종호 씨

“수행을 하면서 제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졌어요. 배우 오래 할 거면 기다리는 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때부터 감독님들이 불러 주면 열심히 연기를 했고 또 촬영이 없으면 봉사할 곳을 찾아 다녔죠. 그러다 보니 삶의 여유가 생겼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됐습니다. 불법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뽀글머리가 인상적인 차종호 씨는 수행하는 배우다. 예불-108배-명상-경전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배우 차종호 씨. 그는 최근 개봉 2주만에 관객 100만을 돌파한 영화 ‘파파로티’에 성악천재 건달 장호(이제훈 분)를 따라다니는 개털 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등에서 조금씩 얼굴을 알리는 것은 물론 각종 광고의 모델로도 꾸준히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뽀글머리 인상적인 개성파 배우
기도 · 봉사하며 긍정의 힘 얻어

지금은 동글동글한 외모에 귀여운 인상을 풍기는 개성파 배우지만 한동안 그의 외모와 마음 모두가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할 만큼 피폐(?)했던 적이 있었다. 27살에 상경해 인테리어디자이너에서 배우로 진로를 바꿨지만 오디션은 보는 족족 낙방했고 믿고 있던 선배에게도 배신을 당했다. 엎친데덮친다고 여자친구는 이별을 통보해왔다.

“2010년 정토회 즉문즉설 법회에서 법륜 스님에게 질문을 했죠. 제 나름 세상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환경탓 조건탓 하게 된다고. 스님께서 그때 남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고 하셨죠”

그렇게 차 씨는 불교에 입문해 불법을 공부하고 매일 참회기도하고 봉사활동하며 잘 쓰이는 삶을 찾게 됐다. 그동안 차 씨에게는 조급함이 컸었다. 스스로 괴로웠던 이유는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세속적 욕망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다 보니 오디션을 가서도 잘보이고 싶다는 생각에 자꾸 심사위원들의 눈치를 보게 됐고 조금만 잘나가는 동료를 보면 마음이 급해졌다.

“참회기도를 하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돌이키는 힘을 얻었죠. 그때부터는 30번을 오디션에 연달아 낙방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떨어지면 어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죠. 좀더 당당하게 오디션에 임하니 저를 불러주는 곳도 차차 늘어가더라고요”

이후 차씨는 정토회 청년부 운영진, 청년불교대 운영 담당을 맡으며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다. “불법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인생을 크고 길게 볼 수 있는 배짱이 생겼다고 할까요? 이제는 성공보다는 제게 잘 맞는 배역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혜도 얻었죠. 앞으로도 어디에서든 잘 쓰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국립대구박물관 인문학 강좌 개설

국립대구박물관이 경북대 인문대와 함께 ‘2013년 교양시민인문강좌-재미있는 고전이야기’ 강좌를 연다. ‘불교와 힌두교’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을 찾아가는 이번 강좌는 4월 6일~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강의는△4월 6일, 13일 공자와 〈논어〉 이세동 교수(중어중문학과) △4월 20일, 27일 노자와 〈도덕경〉 김규종 교수(노어노문학과) △5월 4일, 11일 〈장자〉 김용수 교수(윤리교육과) △5월 18일, 25일 사마천과 〈사기〉 윤재석 교수(사학과) △6월 1일, 8일 불교와 힌두교 임승택 교수(철학과) △6월 15일, 22일 퇴계와 남명 정우락 교수(국어국문학과) 순으로 진행된다. (053)760-8580-3 정혜숙 기자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칠보문(七寶文)→무량보주(無量寶珠) ㊦

잘못 읽어 온 생명생성의 상징체계

동양 미술에는 원이 여러 개 질서 있도록 중첩한 무늬가 널리 쓰이고 있다. 평면에 그 무늬가 쓰이는 경우가 있고, 입체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건 무조건 ‘칠보문(七寶文)’이라 부른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중첩한 원들을 표현하는 조형은 회화, 공예, 복식 등 어디든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칠보문이 무엇인지 한한(漢韓) 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이라도 찾아보아야 한다.

칠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칠보1[七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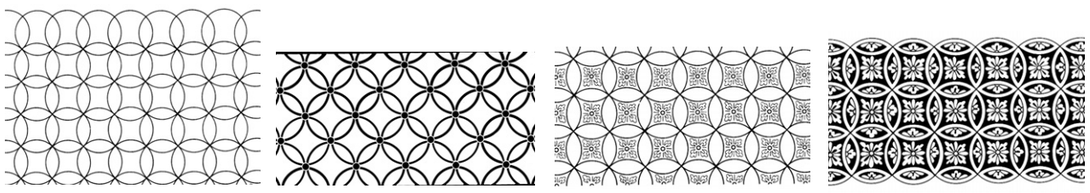
금, 은, 구리 등의 바탕에 갖가지 유리질의 유약(釉藥)을 발라 고온의 가마에 굽는 과정을 거쳐 꽃, 새, 인물 따위의 무늬를 용해하거나 부착하여 나타내는 공예의 기법. 또는 그 공예품을 말한다. 칠보 도자기란 말도 생겼는데 왕실에서 사용한 머리 장식품들을 비롯한 화려한 장신구를 가리킨다.

칠보2[불교] 일곱 가지의 보배를 일컫는다. 〈무량수경(無量壽經)〉에서는 금, 은, 파리(玻璃), 마노(瑪瑙), 거거(車渠), 유리, 산호를 가리키며, 〈법화경(法華經)〉에는 금, 은, 마노, 유리, 거거, 진주, 매괴(玫瑰)를 가리킨다.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이름

그러니 하나는 제작기법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일곱 가지 보배를 말하므로 같은 말이라도 개념이 전혀 다른데, 칠보문이라면 어느 것을 말하는가. 칠보문이란 용어를 생각해보면 위의 어느 것에서도 그런 용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칠보문이란 용어는 있을 수 없으니 이 용어는 없애야 한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말하는 평면적 칠보문을 살펴보자.(그림①-4) 그림①-1과 그림①-2는 같은 것이나 방향만 다르지 가장 기본적인 조형이다. 그림①-3과 그림①-4는 공간마다 꽃무늬를 넣었다 하여 화칠보문(花七寶文)이라 부른다.

무늬를 부석하여 보자. 사람1은 그림②의 칠보문을 보았을 때, 1의 무늬, 즉 네 개의 꽃잎 같은 무늬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네 개의 꽃잎이 모인 사엽화문(四葉花紋)이라 부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2의 모양을 보는 사람2가 있다. 이 경우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없으니 아직 명칭이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엉뚱한 용어를 만들지도 모른다. 3은 사람3이 큰 원만 보고 세 개의 원이 중첩되어 있음을 본 것이라 옳게 본 사람이다. 나머지 중첩하는 과정에서 생긴 조형은 꽃잎도 아니고 부수적으로 생긴 아무 의미 없는 조형이다. 즉 여러 개의 원을 질서 있게 중첩시켜 만든 무량한 보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조형이 무량한 보주를 나타낸 것일까? 그 답은 다음 회에서 분명해 질 것이다. 그림③은 원의 선의 굵기가 굵어서 다른 느낌을 주는데 이 경우는 투각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다음에 다룰 입체적 조형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림②와 다르지 않은데, 그림③에서는 원과 원이 만나는 자리에 작은 보주가 있는 것이 다르다.



그림①-1 그림①-2 그림①-3 그림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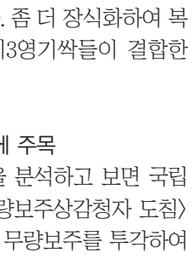
그림④인 화칠보문을 보면 가운데 무늬가 꽃이 아니다. 중심에 작은 빨간 보주가 있고, 사방으로 제3영기싹이 발산한다. 옆에 도해한 것처럼 제3영기싹을 면(面)으로 병형시켜 만물생성의 조형으로 만든 것이다. 보주가 생명생성의 근원인 것처럼 제3영기싹도 생명생성의 근원이므로 서로 결합할 수 있어 흥미로운 조형이 탄생한 것이다. 그림⑤도 마찬가지다. 좀 더 장식화하여 복잡하여 졌을 뿐 보주와 제3영기싹들이 결합한 아름다운 영기문이다.

사방으로 발산하는 영기문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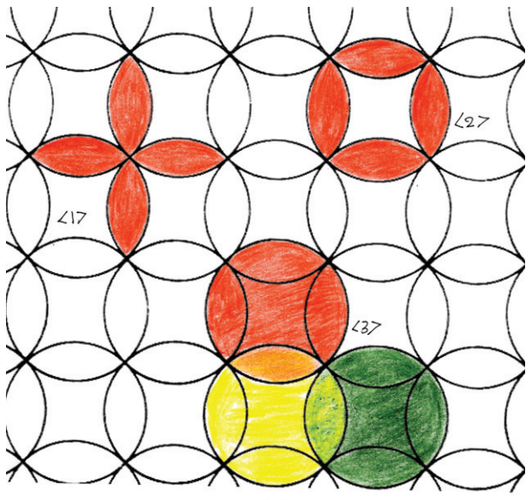
이렇게 여러 가지 조형을 분석하고 보면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고려 무량보주상감청자 도침〉이 금방 눈에 잡힐 것이다. 무량보주를 투각하여 베개를 만든 것인데 모두가 〈칠보 투각 고려청자 상감 도침〉이라 부른다. 정면을 보면 가운데 있는 둥근 보주판 안에 상감한 국화꽃 모양이 있고 사방으로 제3영기싹이 발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계를 거쳐 증명하겠지만 국화가 아니고 보주꽃의 간략화한 모양이며 사방으로 발산하는 것은 잎이 아니라 제3영기싹 영기문이다. 보주꽃이기에 영기문이 사방으로 발산하는 것이다. 측면을 보면 중앙에 둥근 원이 크게 뚫려 있어서 무량하게 생기는 보주들이 그 원형 구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상상하면 된다.

무량보주, 동양 최고 창조품
칠보문이라 불리며 무생물로 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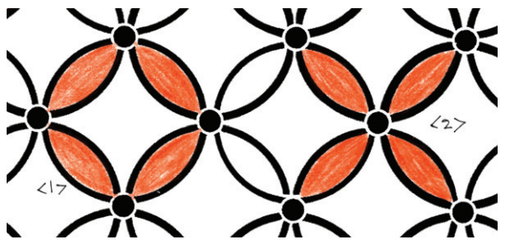
이렇게 고차원의 형이상학적인 상징이 내포하여 있는 무량보주의 조형이 엉뚱한 칠보문으로 불리어져서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쳤으니 그 수많은 생명력 가득한 무량보주의 조형은 아무 생명 없는 무생물이 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무량보주라는 동양 최고의 창조품은, 이제 비로소 살아나 강력한 빛을 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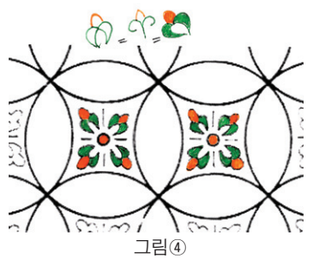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②



그림③



그림④



그림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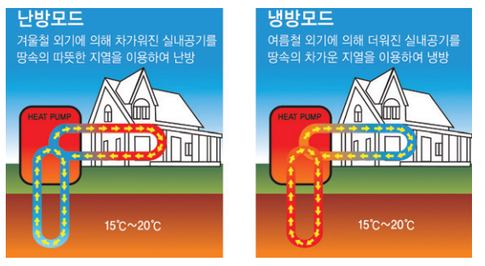


그림⑥



그림⑦

초절전형 슈퍼에너텍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지열히트펌프 냉 난방 기름값의 90% 절감
월난방비 40평 약 15만원(겨울철 기준)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10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5,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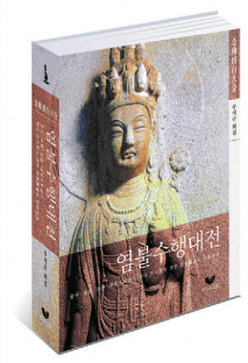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성현과 범부가 함께 닦는 성불의 지름길!
“염불은 가장 쉬우면서도 모든 법문을 뛰어넘는다!”

상중하 모든 근기가 두루 이익을 보고, 착수하기 쉽고 성공율 높으며,
힘 적게 들이고 효과 빠르며, 만 가지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는 수행법



제불보살과 역대 조사들이 권한
원통圓通의 묘법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회집
46배판 | 양장 | 2도 | 808쪽 | 38,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대승경전과 정토종 및 선종 조사의 염불법문 총망라
흥미진진하고도 상세한 주석으로 염불에 대한 확신과 방향 제시!

이 책은 ‘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보살님, 역대 고승, 거사님들의 말씀들을 모아서 해설하거나 주석(註釋)을 단, 무려 808쪽에 달하는 이른바 ‘벽돌책’이다. 염불, 그중에서도 주로 부처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칭명염불에 관한 부처님과 고승들의 고귀한 말씀들을 회집會集해 놓았다. 방대한 주석에는 살며 사랑하고, 염불하며 깨달아 가는 구도자들의 생활 속의 수행지침과 감동적인 예화, 역사적인 영험록이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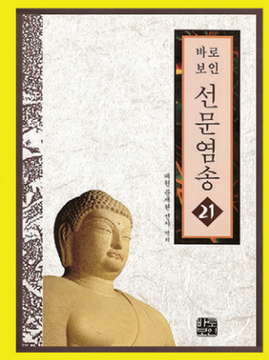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극락정토 · 천당 · 대동… 종교적 이상향을 논하다



유토피아 인문학
보광 스님 등 공저
석탑출판 펴냄
1만 5천원

불교의 극락, 기독교의 천당, 유교의 대동세상. 동서양과 세계 종교, 철학에는 이 같이 이상향이 존재한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은 이상향을 통해 자신의 세상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삼았다. 각기 다른 종교와 철학 안의 이상향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인문학, 자연과학 통섭 학술모임인 한길모임(회장 박재갑)이 각 종교와 철학의 이상향을 조명하는 〈유토피아 인문학〉이라는 논서를 발간했다.

이 책의 가장 특징은 불교, 기독교, 유학 등 종교와 천문학, 철학, 의학에 이르는 분과 학문의 관점에서의 이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인선도 눈길을 끈다. 불교의 이상향에 대해서는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보광 스님이 논했으며, 기독교에서는 이정배 감리교 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유학은 고재석 성균관대 유학대학 조교수가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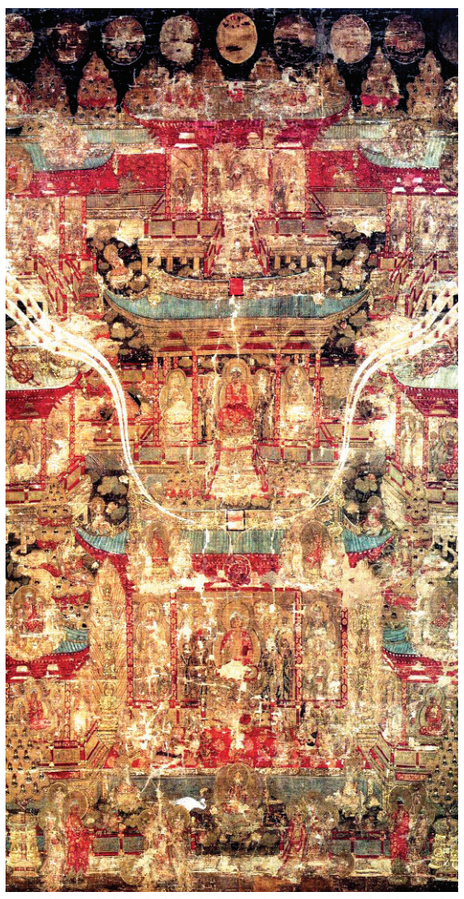
자연과학인 천문학적 관점에서 이상향에 대해서는 최규홍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명예교수가,

정승용 서울대병원 대장암센터장은 의학적 관점에서의 사후 낙원을 조명했다. 한국인의 낙원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한국 경희대 특임교수가 상세히 설명했다.

불교의 이상향 개념에 대해 논찬한 보광 스님은 '정토(淨土)'에 주목한다. 초기불교에서는 천상 세계를 수용하기도 했지만, 후기 대승불교로 가면 '정토'의 개념이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스님은 "가장 수승한 정토인 극락세계는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라며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극락 왕생하는 방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수행법으로 부처님은 제시하셨다. 대표적인 것이 아미타불 명호를 열 번만 불러도 왕생할 수 있다는 경구이다"라고 강조했다.

기독교의 천국은 피안적 공간이 아니다. 즉, 죽어서 육체를 떠난 인간의 영혼이 홀로 가는 천국은 없다는 것이다.



고려 후기의 '관경십육관변상도.' 일본 오타카지(大高寺) 소장돼 있다. 이 작품은 〈관무량수경〉의 중심 부분인 정종분(正宗分)의 내용을 그린 변상도로, 극락세계의 열여섯 가지 장엄한 모습을 관상함으로써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인, 철학자 6명 유토피아 조명
대승불교는 淨土통해 이상향 그려
개신교 권속 개념 · 유교 민본의 뿌리
성스러움의 회복이 이상향의 완성

이정배 교수는 "하느님 지배가 이뤄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 구약성서로부터 이어진 기독교의 핵심"이라며 "하느님 지배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전체가 정의와 평화의 공간으로 바뀌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동북아시아 정신유산인 유학은 이상사회가 아득히 먼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현실에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유학이 말하는 이상향은 이미 과거에 실현됐고, 현실에 실현돼야 하며, 후대에도 지속돼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동세상'이다.

이에 대해 교재석 교수는 "이상향의 실현은 소수 권력자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내재된 본래가치의 확립을 통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세상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이 추구했던 유토피아 '낙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동사회라는 큰 틀 속에 포괄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지치주의의 도덕국가, 신분의 평등사회, 실학의 민본사회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의 전통 보다는 명분과 평등의 가치가 더 중시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사상적 뿌리로 작용했다.

천문학에서의 이상향 개념도 흥미롭다. 우주의 모습, 그 광활함과 오랜 역사를 탐구하는 천문학자의 입장에서는 신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오묘함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 있음을, 숨 쉬고 있음을,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바로 이 순간이 그토록 찾아마지않던 이상향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과학이나 철학, 종교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유토피아를 달리 표현한다"며 "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해 폭넓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안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종교든 과학이든 철학이든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유토피아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성스러움을 회복해 모든 만물이 귀하고 조화롭게 자리하는 세상을 완성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지금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0 ~ 3/26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마음 닦는 법	김재웅	용화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5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6	달라이 라마의 종교를 넘어	달라이 라마	김영사
7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마음의숲
8	새로운 불교공부	우학	좋은인연
9	진광불휘	유철주	담앤북스
10	니까야 강독	각묵, 대림	초기불전연구원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직지〉를 만든 백운과 묘덕의 이야기

직지

김임선 지음 | 북인 펴냄 | 1만2천원



"자신을 천거했던 태고보우에게는 면목이 없는 일이지만 누가 부른다 하여 세상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때 백운은 해야 할 일을 따로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직지'였다. 〈직지〉를 만들자면 우선은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던 책이지만 〈경덕전등록〉 전 30권을 다시 읽어야 하고 그 외 사전부의 여러 불서들을 섭렵해야 할 일이었다." 고려시대 백운경한 스님이 엮은 〈직지〉의 금속활자본이 나오기까지 백운 화상과 비구니 묘덕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원래 명칭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고,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요〉, 〈직지〉라고 약칭된다. 이 책을 엮은이는 백운경한(1287~1374) 선사이다. 그의 나이 75세 때 저술되었고, 1377년(고령 우왕 3년) 6월에 청주목 밖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됐다. 이때가 독일의 구텐베르그 금속활자 인쇄보다 약 70년 앞선 때다. 책의 내용은 선의 요체를 깨닫는데 필요한 역대 불조사들의 어록을 수록한 〈불조직지심체요절〉 내용 가운데 중요한 대목만 따온 것이다. '직지심체'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에서 나온 말로 수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보면 그 마음의 본성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다.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소설 〈직지〉는 〈직지〉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보다는 〈직지〉를 저술한 백운 스님과 스님을 마음에 품고 정안군과 혼인할 수밖에 없었던 비구니 묘덕의 이야기에 무게를 두었다. 작가는 백운 화상과 미구니 묘덕의 인연을 부처님 말씀이 담긴 〈직지〉를 가운데 두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기묘하게 풀어간다.

백운은 어려서 출가한다. 지공 선사로부터 공명계첩을 받기 위해 숭수사를 찾은 어린 임연옥을 처음 만난다. 그 후 그들의 인연은 깊어졌으나 연옥은 왕의 사위 허종의 눈에 띄어 그의 후실이 되고 만다. 백운과 함께 도망치기 위해 담을 넘던 연옥이 몸을 크게 다치고, 허종은 백운이 시자로 있는 구지암의 정효에게 연옥의 회생을 부탁한다. 정효를 연모하는 강금의 모사로 정효는 연옥을 범한 사람이 되고, 허종은 군사를 보내 구지암을 불태운다. 정효는 그 화마 속에서 열반에 든다. 스승에 대한 충격, 깨달음에 대한 회의 등으로 백운은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유랑하던 중 강금이 연옥의 딸 능금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능금에게 연옥의 어머니, 즉 할머니의 집을 알려 주고 원나라로 유학을 떠난다.

연옥의 어머니는 능금을 보고 딸 연옥이 살아 돌아온 것이라 믿는다. 능금은 외조모로부터 어머니 연옥이 어릴 때 받았던 묘덕 불명의 계첩을 전해 받고 묘덕으로 살기 시작한다. 백운이 원에서 돌아오고 묘덕은 백운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는다. 묘덕은 백운이 〈직지〉 간행에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소설 〈직지〉는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직지는 완성되고 백운은 입적한다. 강금이 보낸 남자들이 능금의 몸을 유린하고 능금은 어머니 연옥처럼 식물인간이 된다. 강금은 자신의 재물을 묘덕의 이름으로 시주하여 〈직지〉의 활자본을 간행하게 된다.

얽힌 인연의 전개 속에서 불법을 들을 수 있는 소설이다.

박재완 기자

한국선의 중흥조, 경허선사 일대기 만화로

경허스님

글 그림 정수일 | 운주사 펴냄 | 1만2천원



숭유억불의 암흑 속에서 선의 등불을 밝혀 선풍을 일으킨 근세 한국 선의 효시이자 중흥조. 때론 상식을 벗어난 기행과 파격으로 잠자고 있던 선의 활발발한 정신을 일깨운 대선사. 그 어떤 것에도 무애자재하여 걸림 없던 대자유인 등등. 이 책은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가 열 손가락이 모자를 정도인 경허선사의 치열하면서도 거침없던 삶을 만화로 재미있게 구성했다. 전주 자동리서 태어난 경허(鏡虛, 1849~1912)선사의 속명은 송동욱(宋東旭)이다, 법명은 성우(惺牛)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9살에 지금의 과천 청계사서 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곳에서 한 선비를 만나 문리가 트였다. 15살 무렵 계허 스님이 환속하면서 그를 당시의 대강백 인 동학사 만화 스님에게 추천했고, 그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 경론을 배웠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는 총명함으로 내외전에 정통해 팔도에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마침내 23살의 젊은 나이에 강사가 돼 경론을 강의하니 전국에서 학인들이 몰려들었다.

31세 되던 해, 예전의 스승 계허 스님을 찾아 길을 가던 도중, 전염병이 돌고 있는 마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두려움을 맛보았다. 그리고 문자로는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동학사로 되돌아와 '금생에 차라리 바보가 될지언정 문자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문을 걸어 잠근 채 용맹정진 화두를 참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엇이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는 것입니까?"라는 말에 깨달음을 얻어, 옛 부처가 생기기 이전 소식을 알아차려서 활연히 앞에 나타나 대지가 평평하게 침몰하고 사물과 내가 모두 잊어지고 백천 가지 법문과 무량한 묘의(妙義)가 당장에 얼음 녹듯 했고, 이로부터 몸을 초탈해 작은 법도에 구속되지 않고 임운등등(任運騰騰)하고 유유자적했다.

그 뒤 속가 형인 태허 스님이 주지로 있던 천장암과 개심사, 부석사 등을 오가며, 어떤 때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묵상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위해 설법해 크게 선풍을 떨쳤다.

이후 전국 곳곳에 선원을 만들고 결사를 이끌었으며, 안거 전통을 회복시키는 등 이미 그 명맥이 끊어져 흔적조차 희미하던 한국의 선불교를 크게 일으켜 세웠다.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등 스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선풍이 일어, 발심한 납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 융성했다. 때론 폭풍같은 가르침으로, 때론 파격적 기행으로 후진 양성과 교화에 힘쓰던 선사는 돌연 56세에 그 자취를 감추고 세속에서 만행하며 인연 따라 교화하다가 1912년 함경도 갑산 웅이방에서 입적하니, 올해로 열반 101년이 된다.

이런 경허 스님의 일대기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구성해 어린이들은 물론 초심자들에게도 책이 술술 읽히게 구성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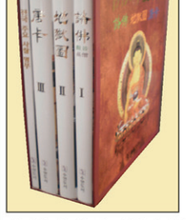
천하의 모든 성패(成敗), 이 원리에 따라 갈린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법칙-

여기 그간의 광범위하고 면밀한 조사 연구의 결론으로, 전체를 10개 영역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 성공법칙들을 제시한다.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이자 위력적인 이 전략들은, 때로 폐부를 찔리는 아픔일 이 일침들은 당신을 강한 전사(戰士)로, 지혜로운 책사(策士)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마침내 뜻한 바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한국인재경영연구회 편/ 신국판/ 전10권/ 총3,600여쪽/
할인보급가 99,000원(정가 138,000원)
▶인간관계 : 반대자는 곧 협력자다 외 ▶창조력 : 아이디어맨들이 갖는 공통점 외
▶자기계발 : 완벽주의자는 위험하다 외 ▶행동력 : 문제는 많지만 세 가지 밖에는 없다 외
▶대화의 기술 : '알았대!'는 말의 의미 외 ▶관리력 : 어떻게 무엇을 꾸짖을 것인가 외
▶기획력 : 기획을 망치는 감정이입 외 ▶인간의 매력 : 가장 큰 약점, 허영 외
▶리더십 : 리더십과 통솔력의 차이 외 ▶사업성공 : 장사가 즘처럼 궤도에 오르지 않을 때 외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책
본 시리즈는 직장인 직무능력계발을 위한 학습도서로 선정되어 독서통신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사람에 대한 명징한 이해 그리고 사람 간에 작동되는 상호 매커니즘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부터 허를 찌르는 기발한 역발상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줄곧 몰라 놓쳤던 것에 대한 아픈 자각과 함께 섬광처럼 번뜩이는 힌트를 만나게 된다" -전형찬(누리기획 대표)-

대부분의 병(病), 의외로 치료가 쉽습니다!
익생양술대전(益生養術大全)
-천연의약요법전서-

어쩌면 밟고 지나쳤을 그러나 현대의학의 방향을 틀게 한 경이로운 가치가 숨어있는 이 땅의 각종 약초들을 명쾌히 총괄 도감화 했으며 이를 활용한 질병별 처방 및 약성에 따른 응용법 등 전통의약요법 5천년 정수를 총정리, 실용화를 꾀해 집대성함으로써 장구한 세월의 터득과 임상으로 얻은 양질의 천연의술을 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활용토록 한 명실공한 자가진단치료 시대를 개막시킬 기념비적 위업!
권혁세 저/ 전3권/ 4×6배판/ 양장본/ 3,600쪽/
할인보급가 24만원(정가 40만원)/ 신용카드 및 현금 분할도 가능
▶1권 약초 편: 1천 종류 약초를 총괄 도해화, 폭넓은 이해를 돕는 본초학도감으로 꾸밈.
▶2권 처방 편: 1천여 각 질병의 원인 증상 설명과 함께 전통민간요법 사상 최고의 처방(22,600여 단방)을 약재별로 제시, 택해 쓰도록 함.
▶3권 조제 편: 당대의 명의(名醫)를 위시, 민가 · 사찰 등에 전수 발전되어온 각종 주침(약술) · 탕전 · 약차 · 식이 요법 등 2,600여 응용치유법 망라.
◆자연과 전통에서 찾아낸 쉽고도 가장 완전한 처방전◆
"현대판 동의보감 익생양술이 나왔다" -중앙일보-
"토종약초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을 담고 있다" -한방과 건강-
"무병장수를 향한 수천 년 지혜와 연구 노력의 집약판" -한국의약신문-
"건강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일간스포츠-
"명약이 꼭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전통민간요법은 증명하고 있다" -권혁세(저자)-

사람아! 벗어날 수 없는 이 엄혹한 필연을 어찌할 건가.
업(業)

나(我), 결과이자 반드시 원인. 그 섭리 인과(因果)윤회 이야기!
1. 전생인연의 비밀 2. 사후세계의 비밀 3. 심령치료의 기적 4. 내가 본 저승세계 5. 영계에서 온 편지 6. 영혼의 목소리 7. 전생이야기 8. 빙의령이야기 9. 살아있는 조상령들
지자경 외 저/ 전9권/ 신국판/ 총 3,000여쪽/ 할인보급가 97,000원(정가 121,500원)
불(佛)의 세계

생생히 묘사된 업고(業苦)에 혹자는 전율할 것이며 뼈저린 각성을 하게 될 것!
그림(佛畵)을 통한 강렬하고 즉발적인 깨우침을 겨냥한 기획! 사바의 미몽을 깨우는 불가 교리를 대중 친화적으로 도해(圖解)해낸 역저!!
1. 제불(諸佛·관음 고승) 편/ 2. 지옥도 편/ 3. 탕카(탱화) 편/
손기창 외 편/ 전3권/ 국배판/ 양장본/ 올컬러/ 할인보급가 22만원(정가 65만원)
가장 해박했던 정신이 닿은 불교적 사유(思惟)와 성찰의 정점!
불교명저

1. 불교란 무엇인가 2. 선이란 무엇인가 3. 부처는 누구인가 4. 관음이란 누구인가 5. 반야심경은 살아있다 6. 선방야화 7. 윤회전생 8. 반야의 문 9. 부처는 어디에 있는가 10. 부처님의 위대한 열반
일붕 서경보 저/ 전10권/ 신국판/ 총 4,500쪽/ 할인보급가 175,000원(정가 250,000원)
서(書)로 도(道)를 이루려한 치열했던 구도자 김정희, 서화사에 가장 우뚝한 분수령 추사 미학의 절창(絶唱)!
추사명필집(秋史名筆集)

"투박한 듯 날렵 경쾌하며 섬세 치밀한 듯 질풍노도인 추사의 그 도저한 경지를 어찌 말로 형언할 수 있겠는가"
한국학자료원 편/ 전2권/ 대형판형/ 양장본/ 할인보급가 13만원(정가 70만원)
◈ 전화하시면 우송해 드리며 대금은 수령후 송금하시면 됨. 문의전화 02-2618-0700, 070-8811-5775 학술편수관

언젠가 사라질 존재 자각…한뼘 성장 시켜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호 지음

마음의 숲 펴냄

1만4천원

삶이 버겁고 힘들어 지친 이들을 위해 월호 스님이 치유의 메시지를 담은 책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를 펴냈다.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이자 불교TV 진행자였던 월호 스님은 2007년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에서 후회를 남기지 않고 완전연소하는 삶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다. 죽음에 대한 스님의 새로운 통찰에 독자들은 환호했고, 그해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죽음 열풍'을 일으켰다. 이 책은 바로 그 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불안'이라는 손님 떠나보내라

스님은 인연의 끈은 지금 잡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고 충고한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기보다 오늘 저녁을 함께하라고 권한다. 또한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의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모두 주인이 아니라 손님에 불과합니다. 손님을 보내 버리세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의 담벼락을 관찰하면 마음이 아무 데도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월호 스님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릇을 채워야 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안심은 자생적 안심이라고 말한다. 즉 스스로 터득하는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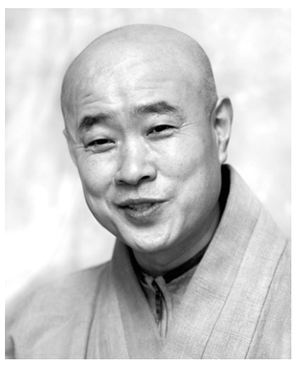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스님은 죽음을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용어에 빗대어 설명한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그의 생이 곧 끝나리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시간을 낭비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스님은 이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잊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잘 먹고 잘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생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한 뼘 성장할 수 있다.' 진정으로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채움은 나눔에서 시작

그렇기에 월호 스님은 잠시 왔다 가는 생을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는 나눔이라는 역설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통해 풀어놓는다. 스님이 불교TV와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을 때의 이야기다. 한 노년의 남자분이 월호 스님을 찾아왔다. 이북서 태어난 그는 여섯 살에 6.25전쟁이 일어나자 월남해 편모슬하에 자라다가 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홀로 세상에 버려졌다고 했다. 폐품 수집서부터 구두닦이, 신문팔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벌어 지금은 빌딩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었다.



마음 안정 위해 자신을 채워야

생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삶

온전한 생 위해 '나눔' 필요

쓰지 않고 모으는 것만이 기쁨이자 보람이고 취미였던 79세의 노인. 월호 스님에게 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다. 죽기 하루 전날도 자신의 빌딩을 바라보며 더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가진 것들을 놓지 않고 죽은 그 노인을 위해 자식들이 동상을 세워 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그 건물 앞을 지나다 동상 앞에 누군가 써놓은 글을 보았다. '빈 손'.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며 모두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악착같이 모으며 살던 노인에게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전하며 스님은 말한다.

"큰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겨놓고 나서, 오늘은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 우리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이 옷 한 벌만 걸쳐도, 비 피할 집 하나만 있어도, 벌써 본전은 챙겼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배짱을 갖고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 책은 자신이 겪은 수행의 시간을 통해, 또 불교방송을 오랫동안 진행하며 만난 수많은 사연을 통해 저자가 느낀 삶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후회 없는 마무리를 위해 오늘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일상을 헐렁하게 하는게 바로 '힐링'의 출발"

삭발하는날

현진 스님 지음 | 담엔북스 펴냄 | 1만3800원





〈산문 치인리 십번지〉〈잼있는 스님 이야기〉〈두번째 출가〉부터 최근 몇 년간의 책 〈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오늘이 전부다〉〈번뇌를 껴안아라〉까지, 군더더기 없는 문장으로 절집의 소소한 일상과 철학을 풀어내 두꺼운 팬층을 둔 현진 스님의 첫 책은 〈삭발하는 날〉이다.

현진 스님은, "내 글 쓰기의 시작은〈해인〉지와의 인연 덕분"이라고 한다. 해인사 학인 시절 월간지〈해인〉에 글을 싣게 됐는데 반응이 좋아서 일 년 이상 연재했다고 한다. 그 일이 스님에게는 일종의 문단 데뷔가 된 셈이었는데, 그 인연으로 처음 엮어 낸 책이 바로 〈삭발하는 날〉 초판이다.

이번에 재출간한 이 책에는 20년 전에 펴낸 그때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절집 및 선방의 이야기들을 잔잔히 소개했다. 오래전 문투로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몇 바꾸고 조금 지루한 문장은 가볍게 첨삭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글 사이의 행간 읽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흥미롭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무척 아끼고 자랑스러워한다. 첫 수필집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풋풋한 수행의 이야기들을 여실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이야 각 사찰마다 템플스테이를 열고 또 많은 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절집 생활이며 하루 수행이며 선방 정진을 직접 경험하기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삭발하는 날〉이 처음 출간될 때만 해도 산중의 절집 이야기는 알려진 바가 적었다. 책은 절집과 선방에서의 잔잔한 일상을 다섯 장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젊은 구도자의 수행담에 일상의 번민과 갈등이 현진 스님 특유의 필력으로 잘 녹아들어 있어 행간을 읽는 재미가 녹록지 않다.

제 1장 '한철 정진 잘합시다' 편에서는 선방서 초참(初參)을 지내던 때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선방'이란 말에서 느낄 수 있듯 한철 정진과 방부 들이는 일, 소임 이야기, 치열한 용맹정진 이야기, 그리고 해제날에 느끼는 그 시원함과 허탈함의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다. 정말 그랬을까 할 만큼 치열한 용맹정진과 수행 이야기 사이사이에서 우리는 젊은 수행자의 구도 심리를 읽는다.

제 4장 '혼자 하는 삭발' 편에서는 수행 중 느낀 여러 감상들과 절집의 차 생활에 관한 글들이 주를 이룬다. 일종에 스님의 수행일지가 되는 셈인데, 이는 저자의 수행 이력과 동시에 여느 스님들의 일반적인 생활상이기도 하다.

마지막 '지대방 이야기'에서는 지대방서 듣던 여러 스님들의 수행상이나 무용담을 엮어 냈다. 고준한 수행자의 모습, 꼭 그대로 닮고 싶은 노스님의 모습, 웃음과 깨침을 동시에 전하는 괴짜 스님들의 무용담 등은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래된 문투 고쳐 재출간

절집과 선방 일상 소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의 모든 글들이 전반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글은 잔잔하면서 군더더기 없이 담박하면서도 무게감이 있다. 저자의 필력 덕분일 테다. '힐링'이 세상을 치료하는 있는 요즘, 현진 스님은 "요즘들어 너도 나도 힐링을 외치는데, 그 어려운 말 할 것 뭐 있어요. 그냥 헐렁하게 살면 그게 힐링인 것이지요"라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현진 스님은?

〈월간 해인〉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그동안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로 절집의 소소한 일상과 불교의 지혜와 교훈들을 독자들에게 꾸준히 전달해 왔다. 현재 충북 청원 마야사에서 정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잼있는 스님이야기〉〈산문, 치인리 십번지〉〈두 번째 출가〉〈오늘이 전부다〉〈삶은 어차피 불편한 것이다〉〈언젠가는 지나간다〉〈번뇌를 껴안아라〉 등이 있다.

요가와 상캬학파 사상 집중 분석

요가 상캬 철학의 이해

문을식 지음 | 여래 펴냄 | 1만6천원



인도의 여섯 철학파 중 하나로써 요가학파와 상캬학파는 서로 연계학파이다. 특히 상캬학파는 비록 지금은 살아있는 전통으로 존속하지는 않으나 요가학파를 비롯해 다른 학파의 종교적 철학적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 따라서 상카사상에 대한 이해는 힌두의 타종교와 철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더욱이 이 상캬학파는 단순히 외도사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해버릴 수 없을 만큼 역사적으로 불교 철학과 긴밀한 관련을 가졌던 학파이기도 하다. 하나는 바이쉐시까 학파에 속하는 승종십구의론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저자 미상의 주석과 더불어 수론송의 한역본인 금칠십론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문을식 교수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이에 대해 "힌두의 타종교 이해에 필수적 사상"이라며 고대의 상캬설에 관한 최초 기술서로 마명(馬鳴)의 〈불소행찬(佛所行讚)〉을 꼽는다.

이 책은 요가와 상캬학파의 성립 배경과 사상을 집중 분석해 요가 수뜨라와 그의 주석서에다가 〈금칠십론〉을 곁들였다. 부록에서는 요가 수뜨라의 산스끄리뜨 원문과 한글 번역을 같이 실었으며, 상캬 까리까는 산스끄리뜨 원문과 한글 번역 옆에 주석 부분을 진제스님이 한역했던 한문을 원문 그대로 편성했다.

이 책은 제 1장서 6장까지 요가 철학을, 나머지는 상캬 철학 부분을 다루고 있다. 1장 요가 사상의 기원과, 2장 요가 철학의 기본적 이해에서는 요가 수뜨라와 그의 주석서들의 구성과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약술했다. 이어 3장은 요가 철학에서의 요가수행 원리와 단계별 관계를 다뤘다. 요가수행의 단계와 마음과의 작용 관계를 통해 요가에서 말하는 삼매의 종류와 의미를 진단했다.

마지막 8장은 70여 송으로 구성된 〈상캬까리까〉의 저술 배경과 성립을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인지과학의 다양한 성과 정리

현상학적 마음

숀 갤러거, 단 자하비 지음 | 박인성 옮김

도서출판b펴냄 | 2만8천원



책 〈현상학적 마음: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입문〉은 숀 갤러거·댄 자하비의 〈THE PHENOMENOLOGICAL MIND: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mind and cognitive science(2008)〉를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도서출판 b에서 〈마음학 총서〉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총서의 첫 번째 책이다. 이 기획과 번역은 동국대 불교대학의 박인성 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 〈현상학적 마음〉은 세계 현상학계와 인지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다. 인지과학의 다양한 성과들을 정리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그간의 인지과학의 성과를 한 눈에 보고자 하는 분들, 또 이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현상학적 환원이나 형상적 변경 같은 현상학의 방법론들, 의식과 자기의식, 시간, 지각, 지향성, 신체화된 마음, 행위와 행위체, 타자 인지, 자기와 인격에 관한 현상학적 이해를 인지과학의 다양한 성과들을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현상학을 비롯한 철학 쪽에서 보면, 철학은 자신이 위빠사나의 활동이자 산물이면서도, 그 위빠사나가 사마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 사마디에 의존하면서 더 정세해지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마음에 욕정이나 증오 같은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들이 다른 마음 상태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그 번뇌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일어나는 번뇌를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불교의 사마디 방법을 통해서 철학이 사마디 능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이 번뇌들이 일어나는 과정과 제거되는 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윤리학이 윤리학으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김주일 기자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득오실이 「모죽지랑가」를 지은 까닭은?

배척받는 삼국 통일주역 아픔 달래

1. 통일 이후 화랑의 위상

통일신라는 일찍이 합병한 가야세력과 연합하여 삼한 일통을 이룬 이후 '한(韓)민족' 으로 거듭 난다. 무열왕과 문무왕의 통일 이후 국운은 드높아지고 태평성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당의 세력을 완전히 밀어낸 문무왕 말기부터 점차 왕권의 위기가 다가왔다. 박석김(朴昔金) 삼성(三姓)의 순번으로 왕위에 올랐던 신라는 법흥왕 이래 골품제를 본격화하였다. 통일 이후에는 성골과 진골 및 왕족과 왕비족 사이의 종래 투쟁에서 점차 진골 귀족 내부의 권력 쟁탈전으로 정치 지형이 이동하였다. 일찍이 문무왕은 이것을 예견하고 자신이 죽기 직전에 잠시도 왕위를 비우지 말고 자신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태자 신문(神文, 淨神)의 즉위식을 치르도록 유언을 남겼다. 그만큼 왕위의 정상적인 승계가 대단히 불안했던 상황이었다. 681년 문무왕이 7월 1일에 세상을 떠나자 일주일 만인 7월 7일에 신문왕이 왕위에 올랐다. 7월 10일에 왕은 부왕의 장례를 치르고 동해바다 큰 바위 위에다 뼈를 묻었다.

신문왕은 8월에 상대등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김유신을 도와 삼한일통 전쟁의 중심에 섰던 장수이자 장인이었던 소판 김흠돌(金欽突)이 파진찬 흥원(興元)과 대아찬 진공(眞功)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진골 가운데 왕권에 가장 가까이 가 있던 인물이었던 김흠돌은 자신의 사위인 신문왕을 밀어내고 직접 왕위에 오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흠돌이 앞장을 서고 파진찬과 대아찬이 힘을 합쳤다. 거기에다가 당시 군권을 잡고 있던 병부령 이찬 군관(軍官)까지 합세한 대규모 반란이었다. 하지만 이를 예견한 신문왕은 조기에 반란을 진압하였다. 이 결과 김씨의 딸에게서 태어난 보천(寶川, 출가)과 효명(孝明, 출가한 뒤 성덕왕에 오름) 및 부군(副軍, 뒤에 출가한 無相?)은 출가하였다. 이 일로 인해 김유신 계열의 사량부 진골 귀족들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가까스로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불씨는 남아 있었고 왕권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반란이 진압된 이듬해(682년) 5월에는 동해용이 만파식적과 흑옥대를 바쳤다. 진평왕대에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옥대의 권위를 재현한 흑옥대가 다시 등장하였다. 왕실은 문무왕 승하 뒤 해(왕)가 없던 7일간 캄캄한 밤이 계속되자 문무왕과 김유신의 합력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만파식적을 내세웠다. 만파식적은 부왕인 문무왕과 통일의 상징인 김유신이 힘을 합하여 나라를 수호하여 갖은 고난을 이겨내었다는 상징적 신물(神物)이었다. 김흠돌의 난으로 그를 따랐던 김유신의 직계 혹은 가까운 인척이었던 진골 귀족들이 제거되자 죽은 김유신은 신문왕에게 협조할 수 없게 되었다. 해서 왕실은 죽은 문무왕과 김유신의 관계를 다시 환기시키며 만파식적을 다시 신표(信標)로 내세워 그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단결하자고 호소하였다. 흑옥대 기사에 등장하는 태자 이공(理恭, 理洪)은 김흠돌의 딸(제1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보천과 효명 및 부군이 밀려나자 계비인 김흠운((金欽運)의 딸(제2 神穆王后) 사이에서 태어나 뒷날 효소왕(孝昭王)으로 즉위하는 인물이다.

692년 7월에 신문왕이 승하하자 6살의 어린 이공이 왕위에 올랐다. 하지만 왕실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효소왕은 대현살찬(大玄薩?)의 아들 부례랑(夫禮郎)을 받들어 국선(國仙)으로 삼았다. 그는 구슬을 신은 1천의 낭도 중에 특히 안상(安常)과 매우 친했다. 천수 4년 계사년(693) 3월 낭도를 이끌고 금란(金蘭)에 유람을 갔다가 북명(北溟)에 경계에 이르러 오랑캐(말갈)에게 잡혀 끌려갔다. 때마침 상서로운 구름이 천존고(天尊庫)를 덮었다. 왕이 두려워하여 사람을 보내 창고를 점검하니 창고 안의 거문고와 피리 등의 두 보물이 없어졌다. 4월에 왕은 거문고와 피리를 얻는 자는 상으로 한 해의 세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5월 15일에 부례랑의 양친이 백률사의 대비상(大悲像) 앞에 나아가 여러 저녁 치성을 드렸다. 홀연히 향탁(香卓) 위에서 거문고와 피리 등 두 보물을 얻었고, 낭과 안상 두 사람이 불상 뒤에서 나왔다. 이로 인해 만파식적은 '만만파파식적' 이라 불렸다. '효소왕 대 죽지랑' 기사는 효소왕 즉위 원년에 일어났던 일이다.

2. 죽지랑과 득오곡

제32대 효소왕 대에 (朔州/春川都督使을 역임하였던 述宗公의 아들인) 죽만랑의 낭도 가운데 득오(得烏, 得谷) 급간(級干, 6두품 출신, 제9관등)이 있었다. 그는 (누런 종이에 쓴 명부인) 풍류황권(風流黃券)에 이름을 올려놓고 날마다 직무에 나아갔다. 한 열흘을 보이지 않자 죽만랑이 그 어머니를 불러 물었다. "당신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소?" 어머니가 말했다. "당전인 모량부의 익선 아간이 아들을 부산성의 창고지기로 차출시켜 급히 달려가느라 미처 낭에게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낭이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이 만일 사사로운 공무로 거기를 갔다면 찾아갈 필요가 없지만, 이제 공무로 갔으니 찾아가 대접해야겠소." 이에 떡 한 합과 술 한 동이를 가지고 좌인(左人, 갯지, 종)을 데리고 갔다. 낭도 1백 37명도 모두 의례를 갖추어 따라갔다.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물었다. "득오실은 어디 있느냐?" 문지기가 말하였다. "지금 익선의 밭에서 전례대로 부역을 하고 있습니다." 죽지랑이 밭으로 가서 가지고 간 술과 떡을 그에게 먹이고,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여 득오와 함께 돌아오려 하니 익선이 굳게 금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사리(使吏) 간진(侃珍)이 추화군(推火郡, 밀양군)에서 조세 30섬을 거두어 성안으로 수송하다가 죽지랑의 부하(선비)를 중히 여기는 풍모를 아름답게 여기고 융통성 없는 익선을 야비하게 생각하여 가지고 가던 벼 30섬을 주며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진절(珍節) 사지(舍知)가 타던 말과 안장(鞍裝)을 주니 그제야 허락하였다. 조정에서 화주(花主, 風月主)가 그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익선을 잡아다가 그 추한 짓을 씻어 주려 하였다. 익선이 도망하여 숨었으므로 그의 맏아들을 대신 잡아갔다. 때는 동짓달이라 극히 추운 날이었다. 성 안의 못에서 목욕을 시키다 익선의 아들을 얼어 죽게 만들었다. 대왕이 그 말을 듣고 모량리 사람으로 벼슬하는 자는 모두 쫓아 버리고 다시는 공적 기관에 들이지 않았고, 검은 옷(승복)도 입지 못하게 하였다. 만일 승려가 된 자가 있어도 종 치고 북 울리는 절에는 들지 못하게 하였다. 또 명을 내려 간진의 자손을 평정호손(枰定戶孫/長)으로 삼아 드러내어 칭찬하였다. 이때 원측법사(圓測法師)는 해동의 큰 스님이지만, 모량리 사람이므로 승직을 주지 않았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산 195(오봉산 주사암) '모죽지랑가' 의 배경이 된 부산성의 지맥석. 드라마 '선덕여왕' 과 '동이' 의 촬영지이기도하다.

신라6부중 양대세력 모량、사량부
왕비 배출 모량부, 여왕시기 약해져
신문왕대 김유신계 견제위해 결탁
효소왕대 모량부 강경정책 펼쳐

14~5세에서 17~8세의 미소년으로 구성된 풍월도내의 화랑들은 1명의 승려낭도의 보좌 아래 각기 200~300여명의 낭도를 거느릴 수 있었다. 술종공의 아들로서 젊은 시절 화랑이었던 죽지랑은 커서는 벼슬길로 나아가 부사령관이 되어 김유신과 함께 삼한일통 전쟁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으며 진덕-무열-문무-신문왕대에 걸쳐 4대에 걸쳐 재상을 지내며 나라를 안정시켰다. 통일의 주역이었던 그는 효소왕 시절에는 퇴역한 화랑이 되어 있었다. 그런 죽지랑이 말년에 자신의 낭도 137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따르던 낭도인 득오가 자신의 양해도 없이 추화군(富山城)의 창고지기로 가버리자 떡과 술을 싸들고 면회를 갔다. 그런데 아간(阿干, 제6관등) 익선이 은퇴한 노화랑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청한 휴가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확고하게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익선이 믿었던 구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죽지랑이 득오를 면해온 것은 밭일이 한창이던 때이고, 간진이 추수한 곡식을 실어 나르던 때는 음력 8~9월 전후이다. 드리고 달아난 익선 대신 받아들여 연못에서 목욕을 시키다 얼어 죽게한 것은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11월 말경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사건의 발단으로부터 익선의 아들이 죽었던 시점까지는 적어도 두 달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랑은 이 망신스런 사건을 풍월주인 화주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지도 못하였다. 결국 풍월주는 익선의 스캔들을 왕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익선을 잡아오게 하였고 대신 그의 아들을 잡아다가 동사(凍死)를 시켰다. 그 뒤 왕에게 보고된 뒤에야 모량리 출신으로서 현직에 있는 자들을 모두 내쫓았고 앞으로 승려가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승려가 된 자들은 큰 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였다. 뒤이어 나오는 원측법사는 신라로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한 장안에서 활동했던 고승 원측이 아니라 모량리 출신의 원측(?+元測)으로 짐작된다.

3. 「모죽지랑가」의 해석

신라 6부 중 가장 강력했던 모량부와 사량부는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유지해 왔다. 모량부는 진흥왕비 사도부인과 법흥왕비 파도부인 등 신라 중고시대를 배출한 박씨 왕비를 배출한 본거지였다. 반면 사량부는 대대로 김씨 왕족과 김유신 계열을 따르는 진골 귀족들의 본거지였다. 그런데 성골 남자가 다하자[聖骨男盡] 성골 여인인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왕비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았다. 김유신의 누이 문희가 무열왕비에 오른 이후 모량부는 왕비를 배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동시에 왕비족을 배출했던 모량부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그런데 '효소왕대 죽지랑' 조의 기록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신문왕 원년에 장인인 김흠돌의 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왕은 김씨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모량부와 모종의 결탁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모량부 소속의 익선은 사량부 소속의 죽지랑에게 망신과 수모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신문왕이 승하하자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효소왕은 특별한 공훈도 없고 부친의 품계도 높지 않은 부례랑을 국선(國仙)으로 임명하면서 갑자기 화랑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량부 출신인 김흠돌의 난으로 위기에 봉착한 신문왕은 모량부 세력과 결탁하여 사량부 진골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었다. 그 결과 사량부 진골 세력들은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났고 급기야는 몰락하였다. 하지만 익선의 스캔들 이후 효소왕은 자신의 정치적 노선을 바꾸었다. 부왕 신문왕대에 맺은 제휴를 믿고 안하무인하는 모량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종래 모량부에 대한 우대정책을 폐지하고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연은 신라의 삼한일통 이후 통일의 주역들이 받았던 냉대를 기술함으로써 효소왕대의 안타까움을 담아내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통일의 주역들에 대한 여러 기사에 투영된 일연의 문세(文勢)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죽지랑의 부하에 대한 사랑과 주군에 대한 득오실의 신뢰의 의리가 담긴 「모죽지랑가」는 더욱더 울림이 커진다.

"지난 봄 그리매/ 모든 것이 시름이라./ 아름다운 모습에 주름지니/ 눈돌릴 사이에 만나보게 되리. 낭이여, 그리운 마음 가는 길에/ 쑥이 우거진 마을에 잘 밤 있으리." (양주동 역) "지나간 봄 돌아오지 못하니/ 살아 계시지 못하여 우올 이 시름/ 전각(殿閣)을 밝히오신// 모습이 해가 갈수록 헐어/ 가도다/ 눈의 돌음 없이 저를/ 만나보기 어찌 이루리.// 낭 그리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복 굴헝에서 잘 밤 있으리." 득오실은 "밭일이 한창인 봄날에 자신을 면회와 휴가를 청해주다 수모를 당한 주군을 그리워하면서" 찬가를 시작하고 있다. 삼한 일통을 위해 한 몸을 바친 통일 영웅 137명을 이끌고 떡과 술을 준비하여 서라벌에서 밀양군까지 면회를 온 왕년의 재상 죽지랑이 일개 아간에게 수모를 당하며 얼굴에 남긴 주름들을떠올리며 그를 '눈돌릴 사이' 인 '한 순간' (瞬間)에 만나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죽지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으로 지내셨는데 익선의 스캔들로 인해 상심이 크더니 안타깝게도 그 즈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낭도 득오실은 이 시에서 자신으로 인해 비롯된 지난봄의 일로 이어진 일련의 일들에 대해 회상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아울러 미륵의 화신이자 삼한 일통의 주역이었으며 4대에 걸쳐 재상을 하면서 보여준 고결한 인품과 당당한 결기를 기리고 있다. 나아가 주군을 그리는 마음은 변치 않고 이어져 자신도 끝내 '쑥이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을 것' 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모죽지랑가」는 신문왕에서 효소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변혁기에 평생을 당당한 결기와 고결한 인품으로 살아온 주군 죽지랑을 기리는 낭도 득오실의 추모가이자 찬가였다. 뿐만 아니라 삼한일통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라 화랑도들의 정신과 품격을 기리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정 민, 『불국토를 꿈꾼 그들』(문학의 문학, 2012).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상)』(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좋은인연 대출안내



33년의 역사와 자산825억원의 형산새마을금고는 변함없이 전국의 많은 사찰과 좋은인연을 맺고 있으며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어 좋은 인연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대출이자 ☞ 1억 대출시 최고 58만원
❷ 대출기간 ☞ 5년 (만기시 연기 가능)
❸ 근저당설정비 ☞ 면제
❹ 대출지역 ☞ 전국 (제주도포함)
❺ 단체명의, 종단 소속사찰 모두가능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사)동국불교조계종

입 종 안 내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하고 있는
본 종단은 부산광역시 허가 2013-4호
사단 법인체로 제방에 계시는 큰스님들을
본 종단 종도로써 초빙하고자 합니다.
뜻이 계시는 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후원 : 동국불교 문화예술연합회
동국불교 협 동 조 합
동국불교 조계종신도연합회

(사)동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산 서구 천마로 113번길 16-1 (남부민동)
연락처 051) 256-1005 팩스 051)256-8005
직 통 010-3262-1005

謹 啓

오봉사와 서원사의 회주스님이신 효란 큰스님께서는, 건강하셨으나 3월 6일 오전 10시경에 식탁에서 아침공양을 하시다가 앉으신 채로 열반에 드시어, 서원사와 오봉사에서 문상을 받고, 3월10일 오봉사에서 영결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번 효란큰스님의 상에 문상하여 주신 많으신 큰스님들과 불자여러분 그리고 지인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큰스님의 사십구제가 다음과 같이 있음을 알립니다.

불기 2557년 4월 23일 오전 10시
기재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입니다.

• 장소 : 오봉사
• 전화 : 031)834-2140

※ 오봉사에서는 사십구제까지 문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도대표 오봉사 주지 군맹서진 합장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어떤 한 가지만 중요하다고 여긴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은 모두 가치가 없다고 본다면 그것은 커다란 장애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본 것, 배운 것, 사색한 것,
또는 계율과 도덕에 붙잡혀서는 안된다.
– 숫타니파타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쑥뜸방, 돌뜸방 기술지원
50년전통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지리산 청학동 (자비수양원)
황토방과 건강치료설비를 갖춘 수양원에서 식이요법 및 유기농 식단 등으로 병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께선 많은 연락바랍니다
* 또한 암자에서 참선수행 하실분 편안한 마음으로 언제든 찾아주십시요
011-759-0183
010-8484-6124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서 류 대 행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모든 영가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목신 고통, 불안초조, 주의력 결핍, 약효가 없는 분, 병명이 바뀌는 분,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 병원 치료가 어려운 분
43년 이상 된 염불 수행자
010-5912-2377

범음범패 학인모집
실전교육
천수바라,작법(나비무),
송주북,정근북,태징및법고
사찰행사 점안 천도재
(경남 양산시 주남동)
금륜사
010-7579-8200

영통철학 1개월 완성
○ 개인지도
○ 교육 후 바로 상담 책임지도
○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010-2586-7938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범음범패 학인모집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선암 (부산 진시장 앞)
010-6569-1010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9214-050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사명산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황토 누워서 허리뜸, 훈증침대
비만,허리뜸,관절통증,사고후유증, 아토피,비염,여성질환,혈액순환, 마음은 청춘 몸은 노령,건강,행복, 장수,인간의 수명은 화 사 냉 청소.
저는 약사여래 가피력 도승원력.
암자 포교원 운영할
비구승 인연바람
011-573-4438

신통력과 사십일
•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극락선원 학인모집
과정 : 불교총전강의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있는 지름길)
종단과 승속과 관계없이 불교총전강의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모집인원 : 선착순 10명 기 간 : 6개월
월회비, 교재비포함 : 3만원
개강일시 : 2012년 4월 13일 매주 토요일, 4월 14일 매주 토요일 (양일간)
시 간 : 오후 2시~ 5시까지
문의사항은 극락선원 종무소로 연락바랍니다
011-9588-0998 / 010-5308-0876

부전 스님 모십니다
010-8972-3395

비구니 주지스님 및 비구니 초보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모십니다
(경남 거제)
010-7169-987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계 • 온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연기선원 cafe.naver.com/youngkihak

氣 회로
공부의 모든것
053)623-2202. 010-5159-5778
TV다수출연 (대구 남구 대명동)
네이버 블러그 : 한마음 세성제

평생 함께 하실 부전노스님 모십니다
(논산 연산면 천호리)
041)734-8730

조그마한 절입니다 절 운영하실 스님이나 기도스님 모십니다
(포항 흥해읍)
010-3194-7969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요일 저녁반, 화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규격 : 40 cm * 60 cm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부산청암달마원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제11기 지도자양성 부업. 봉사자 소자본으로 사업하실 분
돈도 벌고 기도 잘하시고 보살행하실분
창업자 상담 및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서울,부산,대구
010-6789-5008 / 010-2353-2010
02)739-5008

소승은 법납 35년 세납 65세인 비구입니다 불사도 하고 기도정진하면서 같이 수행하실 스님과 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제천에 전과 임야 8천평과 서울에 100평의 포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1억이상 투자 가능하신 분)
010-2127-4755

부처님 인연 찾습니다
동불(입불, 석가모니삼존불)
– 높이 10자, 한분이 1톤 가량
아주 거룩한 상호
(현재 사찰에 모시고 있음)
010-8500-6585

사찰 운영에 고심이 많으신 스님들께 한 소식 올립니다.
❁ 절에 신도가 줄었다.
❁ 한번 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는다.
❁ 절 살림이 어렵다.
❁ 부처님 호상이 前전 같지 않다.
❁ 천도재를 지내고 성불보기 힘들다.
❁ 법당에 기운이 썰렁하다.
❁ 법당에 도둑이 들거나 잔손이 탄다.
❁ 주지스님이 건강이 나빠진다.
❁ 스님이 마음이 떠서 밖으로만 돈다.
❁ 공양주가 붙어있지 않는다.
❁ 사찰을 매매하고 떠나고 싶다.
이런 문제가 있으신 스님들께서는 좋은 처방비법이 있으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문 의 전 화 041) 943-6882 / 010-3813-4443 白超律曆學堂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 768-8414~6
FAX 031) 768-8413

한국불교 전통 의식대학 제1기 신입생 모집
강의내용
– 안채비 : 각종 불교의식, 49재 천도의식, 점안의식, 신중작법, 평염불,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영산재 염불, 짓소리, 긴소리.
– 겉채비 : 바라춤, 천수바라, 도량게작법, 사다라니바라춤 등
– 사물다루는 법
모집대상
–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 포교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 염불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 재가불자
2학년 4학기 과정
◐ 개 강 일 : 불기 2557년 4월 6일(토) 오후 2시
◐ 교육기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제출서류 : 입회원서 1통 (본 교육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2통
◐ 교 육 비 : 매월 ₩ 100,000
◐ 문 의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전 화 : 051)442-1818 교무국장 011-837-5701
◐ 교육강사 : 부산지방 무형 문화재 제9호 이수자 혜 철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종무원

자성주(靈珠) 수익사업 공고
선망 조상님의 유골에 어떠한 광물질을 혼합하지 않고
섭씨 2,3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아름답고 품위있게
고인의 유골을 自性珠(구슬사리)로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납골사리 1기당 150만원. 지사 및 사업동반자 환영
1899-1042. 010-3679-1080
(주)보은의 사랑

비구니 스님 50세 이하 모십니다
(초심자 무관) 삼년 후 주지 임명
여행자 출가를 결심한 45세이하
삼년후 소임부여
(강원 원주)
011-369-3859

어르신을 모십니다
■ 최적의 자연환경 (수정산 산책로)
■ 최신시설, 아늑하고 쾌적한 시설
■ 등급 내,외 입소어르신 모두 환영합니다
■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상담문의 : 031)333-5014. 010-7105-5013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수정사 효봉원)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참회하는 마음은 덕망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된다. 참회하는 마음은 쇠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한다. 그러므로 항상 참회라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불교유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30
- 대지 : 100평
- 산신각,건평 150
- 가액 : 15억

- 위치 : 경산
- 법당 : 30
- 요사 : 50*2동
- 대지 : 300
- 종각,가액 5억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8평
- 요사 : 28.방4개
- 옛날구옥2채
- 1.3백/70권리금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해안
- 법당 : 13(목조단청)
- 산신각 : 5(목조단청)
- 요사 : 30평
- 부지 : 440평
- 가액 : 1억8천

토 굴
- 위치 :대전
- 법당및요사:35평
- 부지:700평
- 가액 : 2억 5천

사 찰 터
- 위치 :충북 단양 (구인사 부근)
- 부지: 18,000평
- 가액: 평당 2만원 특급 명당터 차량진입가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토 굴 안 내
- 총부지 : 970평
- 법당 및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독성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1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찰(납골당)운영하기 좋은곳

- 위치: 대전(대청댐이 한 눈에 보이는 곳)
- 대지. 임야(전) 520평
- 현재 개인주택으로 되어있음 (2층집)
- 경치 수려하고 종교행사 하는데 좋음
- (납골당 같이 운영하기에 적합)
- 가액: 4억 2천만원 (절충가능함)

010-8545-654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 평수: 150평(금린2종). 90평 증축 가능
- 법당 - 1층 30평 신축, 법당 -2층 30평
- 스님 방: 10평, 요사채, 창고 : 각 각 10평
- 불교학당 최적, 해안도로 공원 접,
- 주차 전망 전국 최고, 바다정원, 한국의 아름다운길 동진대교 3㎞, 창원, 진주, 통영, 거제 30분대
- 네이버 "일출암" 점안식 검색 참조
- 가액: 6억 인도 (2억 대출 별도)

055)673-6048(주인 직)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보령시 남포 저수지 앞
- 법당, 산신각, 요사2채
- 개금, 탱화 불사 새로 하였고 손볼곳 없는 완벽한 도량
- 즉시 입주가
- 가액: 5억

041)934-8497
010-4222-68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 소재, 남김천 대로변 (김천역에서 차편 약 20분)
- 건물 : 독채 32평, 개인 등기 필
- 대지 : 도지료 연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남향 법당 넓고, 현대식 시설.생활 편리함
- 가액 : 6천 3백만원 시설비 2천 4백 5십만원 절충가능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청도 (대구에서 30분거리)
- 평수 130평
- 건평 42평(인법당)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남향 교통편리
- 비구니 스님 적합

010-2501-3671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 임야(산) 8250평
- 옛 화전터
- 가액 : 8천만원

011-9583-3107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 한옥 대지 75평 독채
- 방5개, 넓은 마당, 욕실 거실 완비
- 법당,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

010-4056-56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합천
-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터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010-8828-11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송현동
- 평수 30평, 3층. 대도로변
- 보증금 1천만원 / 월 55만원
- 시설: 아미타불, 지장불, 관음불, 후불탱화, 산신탱화, 인등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6205-6633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 대지 175평
- 법당 17평, 아미타도량, 삼존불, 산신, 용왕
- 요사채 20평
- 가액: 9천 7백만원 (시설비 포함)

010-8503-5769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해남군 읍내
- 토지: 종교용지 430평, 임야/전 10,523평
- 시설:납골추모관,무량수전,종무소,요사채, 공양간, 창고, 일반주택 등 주차장 완비
- 가액: 4억 8천만원
- 읍내 유일 추모관운영, 예상가는 8억 이상이나 건상상 이유로 급 안내

010-5444-08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온천시장부근
- 평수 3층. 35평
- 내용 : 법당1, 방2, 주방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500만원

051)894-3700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큰시장옆
- 4층건물의 4층 약 55평, 법당 30평
- 삼존불, 신중, 칠성, 용신
- 법당 옆 큰방1칸, 작은방 1칸
- 정원 약 10평 법당 앞
- 총가액: 4000만원, 2000만원 달세 30만원

051)527-5688
011-9501-5188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포 시내
- 1층 인법당 1칸 대기실 겸 간이 싱크대설치 1칸 남녀공용 단독화장실 1칸 1층 15평
- 2층 대형원룸형 스님방 겸 공양간 2층 15평 ●주차 5대 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관리비 3만원
- 수도세공짜, 시설비 약간조정가능

031)987-8713

수행하기 좋은 암자 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속보면 택전1리 160번지
- 대지 250평(종교부지)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창고2, 산신각 ●일체 시설 완비
- 가액: 8500만원

010-4040-3588
054)682-8780

암 자 안 내

- 경산시 와촌면 팔공산 뒷 갓바위 입구
- 대지 92평, 건평 32평 경량철골 판넬 인법당
- 완전 올수리 리모델링
- 청동 아미타불, 관세음, 지장보살, 삼존불 상단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소불60불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 주차장 텃밭, 별도 월 5만원씩
- 꼭 하실분만 전화주십시오

017-808-2543

포교원안내

- 양산시 북부동 동양산 농협 옆
- 평수: 90평, 방5개, 법당 35평
- 삼존불, 산신용궁, 영가단, 후불탱화, 소불 206불
- 전세 4천 5백만원 / 월 50만원
- 시설비, 비품 5500만원

010-83684-7754

작은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시흥
- 건물: 3층 건물의 3층
- 크기 8M ×8M
- 법당1, 거실1(주방시설있음)
- 시설비 850만원
- 보증금 200만원, 월세25만원

010-8487-8211

불교용품 전문점

- 위치: 서울 급 양도함
- 점포 30평
- 창고 20평
- 가격은 상담 후 결정 현재 성업중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4055-1214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합천
- 미륵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아늑하고 풍광이 수려한 보궁터
- 평수 1600평
- 가액: 1억 2천만원

010-8828-11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힐링센터 및 사찰부지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 대지 700평 (2층주택 70평 포함)
- 야산 1300평
- 특징: 2차선도로에 접해 접근성이 좋으며 산에는 다수의 식수, 정원수 있음 사찰 및 힐링센터로도 적합하며
- 주인직접 매물임
- 가액: 10억 (방문상담 후 결정 희망)

010-4250-8566

암 자 안 내

- 위치: 영천시 금호읍에서10분거리
- 연못 옆 암자
- 법당, 거실, 방3, 주방, 화장실
- 106평
- 가액: 8,500 ~ 9,000만원

010-3071-8199
011-812-1363

사 찰 안 내

- 위치: 포항시 해수욕장 방생지
- 대지 약 700평
- 총건물 120평(목재건물)
- 1층 요사채 60평, 2층 법당 60평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가격절충)

054)261-11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청학 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스님, 법사, 보살님 적합함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2층 : 법당과 스님방

010-3732-5237
051)412-0400

사 찰 안 내

- 위치: 포천시 해룡면 신평리
- 평수 73평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9천만원

010-2510-0955

초미니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 월드컵 경기장(팔달구청)정문 건너편
- 약 400M 주택 밀집가. 약10평
- 1층 : 철학 및 상담 사무실1
- 미니법당방1, 주방1, 화장실 따로
- 보증금 400만원 / 월 25만원
- 시설비 100만원(조절가능)

010-6223-8297
010-2499-0079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로변
- 2층 75평
- 전세 500만원 월 60만원
- 공양간, 찜질방
- 3층 75평
- 전세 1,000만원 월 60만원
- 법당, 산신, 관음전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071-3718

포교원안내

-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5분거리
- 대지 200평, 건평 35평
- 방 3개, 뒷곁에 텃밭 ●올수리
- 삼존불, 후불탱화
- 주변에 소나무 숲 저수지
- 전세 3천만원, 시설비 없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5만원

010-6253-6892
011-729-6011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제천
- 시내 중심가에서 포교하기 좋은 사찰
- 법당 48.7㎡, 요사채 59.5㎡대지 251㎡
- 목조로 완전히 리모델링하였음
- 스님이 연로하셔서 부득이하게 양도
- 가액: 1억 7천만원

010-3426-9393
010-7347-10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 IC 10분거리
-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
- 가액: 1억 5천만원(임대가능) (대출 5천5백만원) 실양도가 1억 2천5백

010-4910-6358
010-4572-1766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의 중심지인 수성구에 有
- 지하철 5분거리(도보)
- 평수 : 상가건물 4층(43평)
- 시설 : 일체 완벽(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 4000만원(월 30만)
- 시설비 : 답사 후 조정

010-2110-255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 지하철 입구
- 2층 약 30평(완벽한 시설)
- 위치, 환경좋음 (포교,상담,법회)
- 몸만 오시면 됨, 불사관계 양도
- 특히 비구니스님 최적
- 시설비+보증금 2,000만원, 월50만원 (상권 최고지)

010-9690-827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97평
- 건물 20평
- 대출 1천 1백만원
- 가액: 3천만원

010-4601-1255

포교원안내

- 위치 : 수원역부근 2층, 평수 23평
- 아미타, 약사, 관음, 지장불 후불, 신중, 지장, 칠성탱화, 산신, 영가단
- 월세 1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즉시법회 가능

010-9153-275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우암동
- 대지 : 56평
- 건물 : 2층(33평) , 부처님 도량 1층 : 35평(요사채)
- 영도 고갈산을 마주한 기도도량
- 몸만 들어오셔도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3억 5천만원

010-7723-7884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 임야(산) 8250평
- 옛 화전터
- 가액 : 8천만원

011-9583-3107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 남구
- 한옥 대지 75평 독채
- 방5개, 넓은 마당, 욕실 거실 완비
- 법당,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

010-4056-5677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 종교용지 : 5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 : 3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200평
- 법당 : 35평
- 전각 : 6채
- 가액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 168-2번지 4,130평 (총 5,830평)
- 건물, 대웅전1동, 요사채(1, 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 (조건 및 금액 결정)

010-4225-0012
02)403-33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소재
- 옆에 물 좋은 개울이 있고
- 연못에는 연꽃이 있는 청정지역 총 1,000평 (대지포함)
- 매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있음
- 가격: 3억 (꼭 필요한분에게 가격조절가능)

011-861-62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은평구 응암 3동 대림시장 맞은편
- 버스 정류장 앞, 4층건물 3층, 25평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
- 에어컨 2대 포함 집기 일체, 즉시 법회 가능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8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010-3209-0408

수행 정토 터(부지)

- 위치: 경북 영주 시내에서 15분 거리
- 산에 위치하나 지목이 밭으로 관리지역임(200m 위치)
- 산 정상까지 묘, 송전철탑 등이 전혀 없음
- 영구포란형(靈龜抱卵形)으로 백두대간이 보이며 전망 경치가 좋음
- 도로(주차장포함), 전기, 부지 정리 완료
- 11년생 금강송 9백그루(3억 상당) 무상 양도
- 총 5,300평(평당 7만원) (필요하신 분만 금 , 토 ,일 중 방문 요)

016 - 573 - 2032

사찰터(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왕산1리
- 한곳에 붙어있는 6필지 3천평
- 가옥60평,컨테이너 창고,화장실 각1동씩
- 주변 경관은 보기힘든 좌천룡 우백호가 뚜렷이살아있고 학자가 나온다는 감투봉을 마주보는터,청화대 뒤 배경과 같은 터로 써 특별한 인연이 아니고써는 구하기 힘든 곳으로 사찰불사나,기도처로는 최적지 인 소쿠리터 임

010-6253-310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1200만원(답사 후 절충)

010-4747-879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온천동 지하철에서 10분거리
- 법당 30평, 주방, 침실 20평
- 삼보전, 지장전, 칠성전, 신중전 5존불 모셔져 있음(소불 44분)
- 인테리어 새로 단장(3월 10일 부처님 점안)
- 본 포교원을 운영하실 참된 스님을 찾습니다
- 전세 500만원 / 월세 60만원 시설비 방문 후 절충

010-3036-7678

교리 먼저 공부…수행의 바른 길 이해

연중기획 마음산업

'신행 · 포교 地圖' 바꾼다

〈6〉 제따와나 선원



일묵 스님
제따와나 선원장

"억지로 내려놓는다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수행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요를 통해 바른 사유를 하면 정견이 생기죠. 이렇게 지혜가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버려지기가 돼요. 이해를 통해 버리기가 되어야지 억지로 내려놓으면 참는 것이 될 뿐입니다"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 스님은 수행의 원리와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수행의 힘이 생긴다고 말한다. 3월 27일 오전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제따와나 선원에서는 청정도론 입문과정 법문이 한창이었다.

이 과정은 팔정도 집중수행과정을 마친 후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수행을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9년 설립된 제따와나 선원은 도시민들에게 명상 수행의 나침반 역할을 해오며 꾸준히 회원을 늘려오고 있다. 일묵 스님은 "명상은 탐욕과 성냄 등의 고통을 주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속에서 이를 버리며 홀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제따와나는 수행을 하는 동안 만나게 되는 여러 장애요소에 대해 지도해주고 대중들에게 수행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자 한다"며 설립 취지를 전했다.

현재 제따와나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요 경전법회 및 화요 입문법회 △수요 중도법회 △목요 경전독송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명상 수행 프로그램으로 △마음명상 초보과정△팔정도 집중수행 △청정도론 입문과정 △2030명상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와 단기출가 △지도자 프로그램 △기업단체 연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제따와나 회원들은 수행의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일묵 스님은 "제도권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에게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는지 모른다. 초기불교는 이런 면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죠. 이를 통해 불교를 이해시키고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한다.

팔정도 수행 · 청정도론 등 공부
국제명상마을 건립 목표로 불사

3년째 제따와나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46) 씨는 수행을 통해 세상이 밝고 행복해졌다고 말한다. 김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누군가가 세상이 전쟁터라고 하더라. 그런데 정말 세상이 전쟁터가 되어야 할까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러던 중 방송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이곳에서 수행을 시작했다"고 전한다. 김 씨는 수행을 통해 '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화가 나면 내 마음을 먼저 살핀다. 그러다보면 상대를 탓하기 보다는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나를 내려놓으니 나도 주변도 모두 행복해진다"고 전한다.



제따와나 선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명상을 지도, 현대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3월 27일 청정도론 프로그램 명상 장면

오랫동안 해오던 요가의 한계를 느끼고 명상을 찾았다는 신명희 씨(44)는 수행을 통해 성격이 많이 유연해졌다고 한다. "제 마음을 들여다 보는 연습을 하다보니, 까칠하다 깔끔떤다 이런 주변의 지적이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제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 상대방도 저를 편하게 대해요. 질투심도 사라졌죠. 이제는 감정의 동요도 많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요즘 웃는 제 모습이 그저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제따와나 선원의 수행자들은 명상을 통해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힘을 얻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물며 법을 설하셨다는 기원정사를 의미하는 제따와나는 앞으로 기원정사와 같은 모범적인 수행공동체를 건립하고자 한다. 이에 제따와나는 국제명상마을 불사를 진행중에 있다. 특히 홀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 꾸띠를 통해 평생 수행공간도 기증받고 있다.(02)595-5115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초기 경전 배우며 불교 새롭게 알았죠

4년 명상 수행 신연희씨



신연희(58 · 사진) 씨는 오랫동안 불교신자였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명상을 찾다가 제따와나를 만난 것과는 상반되게 그녀는 집 근처에 사찰이 생겼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들렀다가 수행의 재미에 푹빠졌다.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불교에 대해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없더라구요. 제따와나선원에서 4년간 공부하면서 교리와 수행에 관한 이론을 하나로 정립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의 기둥이 세워진 느낌이에요"

물론 신 씨가 처음부터 수행을 한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법문만 들었고 이후 니까야 경전을 읽게 되면서 수행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저는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것이 상이 되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증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그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수행하며 이를 알아차리게 됐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수행을 통해 얻게 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인터뷰를 마친 후 명상을 하러 총총히 법당으로 향했다. 정혜숙 기자

서구의 마음수행 현장

〈4〉 프랑스 명상공동체 마을 '플럼 빌리지'

매년 수 천명 방문…눕거나 다리펴고 법문 들어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지방 근교에는 '영적인 오아시스'로 불리는 명상공동체 마을 플럼 빌리지(Plum Village)가 있다.

베트남 출신의 스님이자 시인이며 평화운동가인 틱낫한(Thich Nhat Hanh · 86) 스님은 1982년 '플럼 빌리지'를 세우고 인종과 종교에 상관없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1926년 베트남 중부의 행정관료 집안에서 태어난 틱낫한 스님은 우연히 사진 속 평화로운 스님의 모습을 보고 16세 되던 해인 1942년에 선불교에 입문 승려가 됐다.

이후 불교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모든 불교는 삶에 참여한다'는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운동을 주창하고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천적 사회운동을 펼쳤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간 스님은 프린스턴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을 강의했다. 베트남전쟁 때는 각지를 순회하며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해 사회청년봉사학교를 열어 계속 봉사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았으나, 불교 평화 활동으로 베트남 정부는 귀국 금지 조치를 했고, 틱낫한 스님은 1973년 프랑스로 망명했다.

스님은 베트남전쟁 후 프랑스로 들어오는 보트피플을 위해 수용소를 세워 봉사활동을 했고, 1975년 파리 근교에 '스위트 포테이토'를, 1982년 보르도에 미국 버몬트주(州)에 승원(僧院) '단풍림'과 수행원 '그린 마운틴'을 설립하고, 이후 프랑스 ·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을 오가며 계속 강연 및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틱낫한 스님은 매일 오전 마을을 돌면서 법회를 열고, 제자들을 이끌고 플럼 빌리지 내 오솔길을 일주일에 한 두번씩 걷는다. 또한 여름수련회 때에는 전세계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걷는다.



플럼빌리지에서는 정념수행과 종소리명상을 주로 한다. 플럼 빌리지 숲에서 수행하는 수련생들

베트남 출신 평화운동가
틱낫한 스님이 1982년 설립
5개 마을과 상주인구 100여명
여름 · 겨울 대규모 수행 열어

'플럼 빌리지(Plum village)'를 각각 세우고 명상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의 비구 · 비구니 스님들과 평화 및 참여불교 운동을 전개했다. 1990년에는

24시간 깨어있는 정념수행 정진

플럼 빌리지에는 만발한 해바라기와 1250여 그루가 되는 자두나무, 그리고 수백 년 된 보리수와 곳곳에 대나무 숲이 있다. 이곳에서 수련생들은 스님들과 함께 탁구를 하거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해먹에 누워 늘어지게 잠을 자기도 한다. 엄격한 시간과 규율로 진행하는 한국의 수련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플럼 빌리지는 틱낫한 스님이 거주하는 윗마을(어퍼햄릿)과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서쪽마을(웨스턴햄릿), 10분 거리인 아랫마을(로워햄릿), 30분 거리인 뉴햄릿(새마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승려들의 수행처 내원 등 5개 마을로 이뤄져 있다.

이곳도 아침 6시에 일어나 법당에서 함께 30분 좌선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틱낫한 스님의 법문과 오후 4시 30분 조별 모임에서 서로 깊이 경청하고, 마음을 터놓는 시간이 하루 주요 일과다.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하든 자유다.

틱낫한 스님은 매일 오전 마을을 돌면서 법회를 연다. 이때 법당 밖에선 다리를 펴거나 누워서 스님의 법문을 듣기도 한다. 또한 스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플럼 빌리지 내 오솔길을 일주일에 한 두번씩 걷는다. 여름수련회 때에는 전세계에서 온 참가자들과 함께 걷는다.

플럼 빌리지에서는 집중적으로 명상을 많이 시키지도, 법회를 많이 하지도 않는다. 팔정도의 하나인 정념(正念)수행을 한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깨어있는 눈으로 보고 깨어 있는 마음으로 24시간 실천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이다.

이런 정념 수행과 함께 핵심적으로 실천하는 수행이 있다. 바로 종소리 명상이다. 보통 30분 정도에 한 번씩 울릴 때마다 수련생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자신의 몸 안과 마음 안을 들여다보며 호흡에 집중한다.

플럼 빌리지에는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찾아드는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과 일반인에게 이곳을 완전 오픈하는 여름 1달 동안 찾는 사람만 1000여 명이 넘는다.

여름과 겨울 두차례 틱낫한 스님이 직접 참여하는 대규모 명상캠프가 한 달동안 열리며 명상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1주일을 머물러야 한다.

비용은 한 사람이 1주일간 드는 비용(음식값 포함)은 개인 텐트가 180유로(한화 약 26만원)이며 매트리스, 베개, 시트, 침낭 등이 제공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자정보 934호 |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사 찰 안 내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3평반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일본사찰안내
- 위치 : 일본 후쿠오카
- 대지 150평
- 건물 2층 약 70평 (1층 살림집, 2층 법당)
- 주차장 월 50만원 수입
- 납골당 30기
- 양도가 9천만원
- 노스님(한국인)노령으로 한국인에게 양도코저 함
- 거주권을 해드림
- 안정적으로 생활 수행 가능

010-5495-4678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남 양산시 통도사 근처
- 3층 건물중 2층 (4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6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 요망

010-6434-3389

사찰(급)안내
- 위치: 경산 와촌 갓바위 자락
- 경제 특구 공원
- 6차선 도로와 마을진입로
- 2차선도로와 맞물린 암자
- 대지 216평, 건평 1,2층 60평
- 가액: (융자 1억 5천 만원 포함) 4억 5만원
- 사두기만 해도 투자가치 100%

010-5419-7622

도심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운창동 (대전역에서 도보로 10분)
- 지하1층 60평, 큰법당 방2칸, 공양간 시설완벽
- 보증금 100만원 월 28만원
- 시설비 7백만원
- 상업지역, 아파트3천세대 최고요지
- 현 포교원 운영중,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9387-3679

지리산토굴안내
- 위치: 구례 지리산 온천 부근 토굴
- 산속 475평 산수유나무사이에 20평 현대식 건물
- 화엄사TG에서 10분거리, 구례읍 15분, 남원 15분
- 마을에서 500미터거리, 아주조용
- 스님 두세분이서 수행하시면 좋음
- 토지 안 마르지 않는 샘 2곳
- 양도가액 : 1억 9천만원

010-7242-0993

현재 전원주택 노인 요양원 적지 땅을 알고 터를 잡으세요
- 위치: 경남 사천시 사남면
- 주택: 스틸하우스 (29평)
- 대지: 554평, 정남향(명당터)
- 가액: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사 찰 안 내
- 현재 사찰 운용중 (다용도 (사용) 가능)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덕정리 (약수터내)
- 대지 197평 ●건물 2동
  1. 건평 98평 2층건물 (방11칸)
  2. 70평 1동 - 법당 약 30평 (공양 15평) 식당 15평
- 시설 : 아미타불, 관음, 약사, 지장 , 소불 후불탱화, 지장, 신중 삼선각(칠성, 나반, 산신)
- 양도가액: 2억 8천만원

010-3170-0183

토굴(급)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시설 : 전화상담
- 가액 : 4천만원

010-9849-772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경북 과학대학 근방
- 부지 2500평, 건물 70평
- 방6개, 폭포수 가까이 있음
- 경관 화려함
- 고사리 약 800평
- 가액: 3억 7천만원 (융자 1억 6천 포함)

011-556-5507

사 찰 안 내
- 위치: 영천시 북영천 IC 부근 (절골)
- 부지: 1,740㎡(527평)
- 법당: 109㎡(33평) 철근콘크리트조 단청 삼존불(청동불),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용왕, 약사, 지장, 십대왕
- 요사채: 132㎡(40평), 방3, 거실1, 다용도실 2, 차고, 창고 야외화장실
- 가액: 2억 5천만원(답사 후 조절가능)

054)336-4848

“초발심과 아난의 은혜 잊지 말라” 대애도 당부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14)

5백 명의 석씨 여인들이 출가를 청하다

유리왕으로부터 살아남은 한 석씨 여인이 5백 명의 여인들에게 말했다.

“내가 일찍이 듣건대 부처님 법에 ‘만약 사람이 아주 위급한 가운데서 일심으로 귀명(歸命)한다면 바로 평안함을 얻는다.’ 고 했습니다.”

이때 5백 명의 여인들이 다 함께 소리를 모아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석가모니를 염송했다.

“겨우 살아남았으나 저희들은 손발이 아프고 마음은 괴롭고 애통합니다.”

이때 공중에서 여래의 선근의 힘으로 대비의 구름이 일어났다. 대자비의 비가 내리더니 모든 여인들의 상처난 손발이 아물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여인들은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곧 여인들은 옷과 발우를 구해 왕원정사로 나아가 출가할 것을 청했다. 이때에 이들을 맞은 비구니가 석씨 여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것을 보고는 이들에게 세간의 5욕(欲)과 즐거움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더 되어서 출가하여도 좋지 않은가?”

“세간의 5욕에는 허물과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그 5욕을 우리들에게 권하는 것입니까?”

모두들 소리 높여 물으니, 한 비구니가 석씨 여인들을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때에 석씨 여인들은 슬픔과 기쁨이 마음속에 교차했다. 그리고 석씨 종족이 멸망하고 자신의 몸이 더럽혀진 사실을 모두 화상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들의 화상이 대답했다.

“너희들의 고통이 무슨 말할 거리나 되겠느냐? 내가 옛날 어려서 사위국에 살 때였다. 부모가 나를 북방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나라 풍속에 여자가 달이 차서 아이를 낳으려 하면 친정으로 보냈다. 아이 낳을 달이 다가와 우리 부부가 모두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다. 도중에 강이 있었는데 그 물이 느닷없이 범람해 길은 끊기고 도적들이 들끓었다. 강을 건널 수가 없어 언덕 옆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커다란 독사가 갓 난 아이의 냄새를 맡고는 곧장 나를 향해 기어왔다. 독사가 먼저 종을 물어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그 다음에는 소와 말까지 죽여 버렸다. 그 틈에 아이들과 겨우 살아남은 나는 며칠 동안 언덕에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강물이 줄어 등에 둘째를 업고 큰 아이를 앞세우고, 치마에 갓 난 아이를 담아서 입에 물고는 곧장 강을 건넜다. 강을 반쯤 건너가다가 큰아이가 안 보여 돌아봤더니 범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러 아이를 부르느라 그만 입에 물었던 치마를 놓쳐버렸다. 젖먹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고, 또 등 위에 있던 아이도 손을 놓아 그만 물에 떨어뜨려 죽게 하였는데, 범에게 쫓기던 큰 아이마저도 결국 범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나는 너무도 고통스러워 기절하고 말았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 나를 구했는데, 그 가운데 한 장자가 나의 부모를 아는 사람이라 내가 부모의 소식을 물었다.

‘어젯밤에 불이 나서 너의 집은 다 타 없어지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기절했다.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렸는데, 이때 5백 명의 도적 떼가 나타나 함께 있던 사람들을 헤치고 나를 잡아가 도둑의 아내로 삼았다. 그들은 내게 도적들이 밖에 나갔다가 쫓기는 일이 있거나 해서 급하게 들어와야 할 때 재빨리 문을 열어주고 닫아야 하는 문지기를 시켰다. 어느 날, 도둑들이 다 함께 노략질을 나갔다가 들켜 급히 돌아와야 했다. 그때 나는 집안에서 아이를 낳느라 제때 문을 열어주지 못했고 도둑들은 급하게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화가 난



삽화 · 강병호

도둑들이 내게 따져 물었다.

‘아이를 낳느라 그랬습니다.’

‘그깟 아이 때문에 우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단 말이냐?

그러고 나서 칼을 뽑아 아이의 손발을 잘라 버렸다. 남편은 계속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어느 날, 도둑질을 하다가 끝내 관리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는 곧 참해지고 아내인 죄로 나까지 산 채로 매장되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지닌 옥구슬을 탐내어 무덤을 파고 꺼내 가면서 나까지 데리고 가 살아났는데, 얼마 후 나는 다시 관리에게 붙잡히게 되어 다시 매장되었다. 숨이 끊어지려 할 때, 사람 냄새를 맡은 범이 이리저리 무덤을 파헤치다 돌아갔다. 나는 겨우 파헤쳐진 무덤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마을로 내려와 도움을 청했다. 이때 어느 장자가 가엾이 여기고 말했다.

‘일찍이 듣자하니, 부처님 법에 안온함이 있고 모든 쇠함과 고뇌가 없다 하던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나의 스승인 대애도(부처님의 이모이자 유모)비구니를 찾아 출가하고 부처님 법을 닦아 익혀 평안함을 얻고 도의 과위를 얻었다.”

석씨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고, 법안(法眼)을 얻었다. 이때 곁에 있던 대애도비구니가 말했다.

“나의 출가도 쉽지 않았다. 여래의 법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맡은 몫이 있는데도, 여래께서는 우리들 여인들을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혹이 많아 집착을 버리기가 어렵고, 어리석은 사랑이 마음을 덮어 애욕의 물에 가라앉아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어 현재 몸으로는 보리를 득할 수가 없다.’

그 때 아난 존자가 나를 위해 부처님께 간청했었다.

‘대애도가 여래의 육신을 젖을 먹여 기르셨기에 여래께서 성불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대애도가 마음으로 귀의하고 청정하게 여덟 가지 법을 닦는다면 출가를 허락하리라.’

나는 출가하여 부처님 법을 닦고 널리 미래의 여인들을 위해 거듭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미래의 착한 여인들이 저와 같이 여래의 법을 믿고 좋아하고 공경한다면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여인이 부처님 법을 지니고 닦는다면 계율 · 보시 · 다문 · 3귀 · 5계에서 구족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을 허락하리라.’

나는 언제나 지극한 마음으로 아난의 은혜를 생각하여 공양하고 공경하며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출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이니 처음 먹은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대방편불보은경〉 5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⑭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외손주와 미국 다녀온 사연

나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7년 전 어느 날 외손주와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히 “우리 미국 여행갈까?” 라고 말했다.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후의 상황에 달라졌다.

“할머니 우리 언제 미국 갈 거예요?”

아이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재촉했다. 나는 부산에 살고 손주는 서울에 살고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지만 그 당시는 초등학교 2학년 9살이었다.

나는 고민이 되었지만 거짓말쟁이 할머니가 될까봐 “그래 약속을 했으니 가는 거야. 떠날 준비를 하자구나.”

그해 8월에 손자와 단둘이 그 먼 미국엘 갔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곳엔 오직 한사람 거해 스님이 계셨다. 하루 한 끼의 공양을 드시고 위빠사나 수행을 하시는 스님은 아버지 때부터의 인연으로 가끔은 우리 집에도 오셨고, 안부 전화도 하던 터이기에 용기를 냈다.

스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갔기에 스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스님이 관음사에 계셨으므로 그 절에서 묵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관음사 주지 스님께서

약속은 빈말이라도 책임져야

자기와의 약속은 더욱 소중하다

위독하셔서 호텔에서 지내다가 한국인이 하는 하숙집에서 묵게 되었다.

관음사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생겼다. 장례일정을 피해 현지 투어도 하면서 여행을 잘 했다. 거해 스님께서는 시간을 내어 매일 직접 운전하여 곳곳마다 안내와 설명을 해주셨다.

어느 일요일 LA의 태국인 거리에 탁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동참했다. 우리는 준비된 것이 없어서 2달러씩 담은 봉투를 40개 정도 만들어 스님들이 우리 앞을 지날 때마다 발우에 올려드렸다. 평소에 늘 하고 싶었던 일을 손주와 함께 하게 되어 참 으로 뜻있는 일이었다. 그곳 스님의 법문을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표정으로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축원이었다. 아이도 그 일이 늘 기억에 남는다고 하니 불심이 살아있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헐리웃 영화의 거리며 기네스박물관, 유니버셜스튜디오, 레고공원, 해양박물관, 시월드고래쇼를 보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원의 갖가지 놀이기구도 탔다. 무서운 머미를 타기도 하고 청룡열차와 고속질주하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보트도 타면서 몇 번씩 기절을 해야 할 정도였다.

겁이 많아 자전거도 못타는 내가 아이와 함께 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와 달리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이 달라 자칫 헤어질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랜드캐년에서 경비행기만은 탈 수가 없어 혼자 타게 했다. 이렇게 보름동안을 여행하면서 그곳 사람들과도 인연이 되어 함께 다니기도 했다. 그분들은 손주와 둘이서 다니는 여행이 궁금했던지 물어보곤 했다. 거짓말쟁이 할머니가 되지 않으려고 왔다니까 “대단 하십니다 아이와의 약속 때문에 이 먼 곳까지…”라며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손주와 약속했던 미국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일이 있었다. 어제는 6살 손주와 전화하다가 아주 예쁜 말을 하기에 “만나면 선물을 해 줘야겠다”고 했더니 포켓몬 카드를 갖고 싶다고 했다. 물론 사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오늘 새벽부터 전화가 왔다. “할머니 그 포켓몬 카드를 사서 택배로 부쳐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도 밤잠을 설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린 것 같다. 어린아이와의 약속에 또 걸린 나는 말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다. 누구와의 약속이든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상대가 그 말을 믿고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실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남발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 볼일이다. 타인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자기와의 약속 또한 중요하다고 믿기에, 나는 남은 내 삶을 생에 멋지게 회향할 것을 한 번 더 다짐해 본다. 내년부터는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인이 되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전국 사찰 참배를 하면서 우리 불교의 더 큰 품에 안기고 싶다. 좋은 인연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꿈꾸면서….

매년 찾아오는 봄철 몸살

음력 2월이면 나는 늘 감기와 몸살을 앓는다. 날짜도 어기지 않고 찾아오는 빚쟁이 같다. 콧물이 흐르고 목이 아프고 기침도 한다. 의사는 알러지라며 계절병이라고 진단했다. 흔히 봄이 되면 꽃가루 알러지를 앓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계절에 엄마를 떠나보낸 아픔도 겪었고, 첫 딸을 낳은 행복도 만끽했다. 옛 어른들은 아기 낳은 달에는 몸이 편치 않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영향이 있는 걸까? 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의 쌓인 공덕과 부모님의 기다림이 있는가. 부모는 열 달을 기도로 가득 채워서 한 생명과 만나거늘 어찌 그 순간의 아픔이 이렇게 오래 여운으로 남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일정 기간 아프고 나면 아주 멀쩡하게 회복이 되곤 한다. 내 부모님도 이러 하셨을까. 나는 부모님을 잊지 않는 의미로 부모님의 극락왕생 축원을 올리며, 엄마의 고통도 느껴보리라.

따뜻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웠던 내 엄마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이 아픔을 숙제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이니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산 연꽃모임회장

스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목걸이



실용신안의 장 특허출원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대 구 포교사 (법일) 010-9591-8599

☆유*무선 겸용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법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내마음의 용광로에 놓기만 하면 모든 게 제거됩니다

이렇게 꽃 피고 새 우는 봄날에 같이 한자리를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음의 봄날이 온다면, 각계 각층 무엇을 막론해 놓고 다 녹일 수가 있고 얼릴 수도 있어서 자유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도록 서로 도반으로서 잘해 나가 봅시다. 오늘은 더군다나 또 서로 토론하고 서로서로의 모자라는 거를 메꾸면서 해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질문과 답으로써 서로 나누겠습니다.

질문자1(남): 스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공!' 하면서 정진을 할 때, 입으로는 '주인공!' 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생각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생각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처님을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다 하여 내 가슴속을 생각해야 하는지, 과연 어디를 생각하면서 주인공을 찾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큰스님: 인간이 태어났으면 본래 자기 뿌리와 싹이 동시에 같이 태어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질문할 줄 알고 이 염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하하…. 어떻습니까? 염주가 되려면 줄에다 알을 꿰어야 염주가 되죠? 그렇다면 사람도 염주와 같이 그렇게 겸해서 가지고 나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하고 어디를 믿어야 하고 이런 게 없이, 육신과 정신계가 본래 이렇게 꿰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주알은 어디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염주를 꿴 줄이죠? 이 줄은 정신계라고 비유할 수 있고, 이 알은 물질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주는 불가부득이 누가 믿어라, 안 믿어라 할 게 없이 이 줄을 믿어야 하겠죠. 그런데 믿는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그대로니까, 그대로 꿰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염주가 되듯이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해야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죠. 그럼으로써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같이 겸해서 있으니 그대로 믿어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다면 줄이다, 알이다 이런 이름을 찾을 필요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비유를 할 때에 싹은 뿌리에 붙어 있고 뿌리는 바로 싹을 살리기 위해서 생긴 거니까, 그렇게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믿어야지요. 아, 그 뿌리로 인해서 사는데, 다른 데 어디를 믿는다는 겁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도 떠나서, 부처님을 숭상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그대로 자기를 믿어야죠. 바로 싹을 내게 한 장본인이기도 해요, 뿌리가. 그리고 모든 것은 그 뿌리가 흡수해서 올려보내니까요. 싹은 또 모든 걸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고요. 이런 거니까 내가 '이걸 믿으시오!' 이러지 않아도 그대로 결집이 돼 있다니까요. 그대로 이렇게, (염주를 가리키시면서) 이거와 같이. 그러니 이 염주는 이 줄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립니다.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 은하계나 태양계도 그렇지만 지구도 그렇게 이 염주알처럼 줄에 매달려서 돌아갑니다. 이 마음의 줄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인간도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줄은 매듭도 없고 시발점 종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은 시발점이 있고 종점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이 안에서 훌떡 벗어나야, 정신계 물질계를 벗어나야 자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 물질계 테두리 안에서는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정신계로 무(無)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광대무변한 묘법입니다.

그러니 이걸 내가 믿으란다고 믿지도 말고, 믿지 말란다고 안 믿지도 말고, 또 누가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무조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지니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뜻과 돌아가는 인간 생활 자체와 진리가 바로 합류화되어야 진리지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이거는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믿어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뿌리를 자기가 믿듯이, 염주알이 자기 줄을 믿듯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염주알이 저절로 이 줄에다 꿰어져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꿰어졌기 때문에 염주알은 걱정도 안 해요. 줄 끊어질까 봐 걱정도 안 하고,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대로 줄을 믿고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이 그냥 하면, 그대로 움죽거려져요. 그러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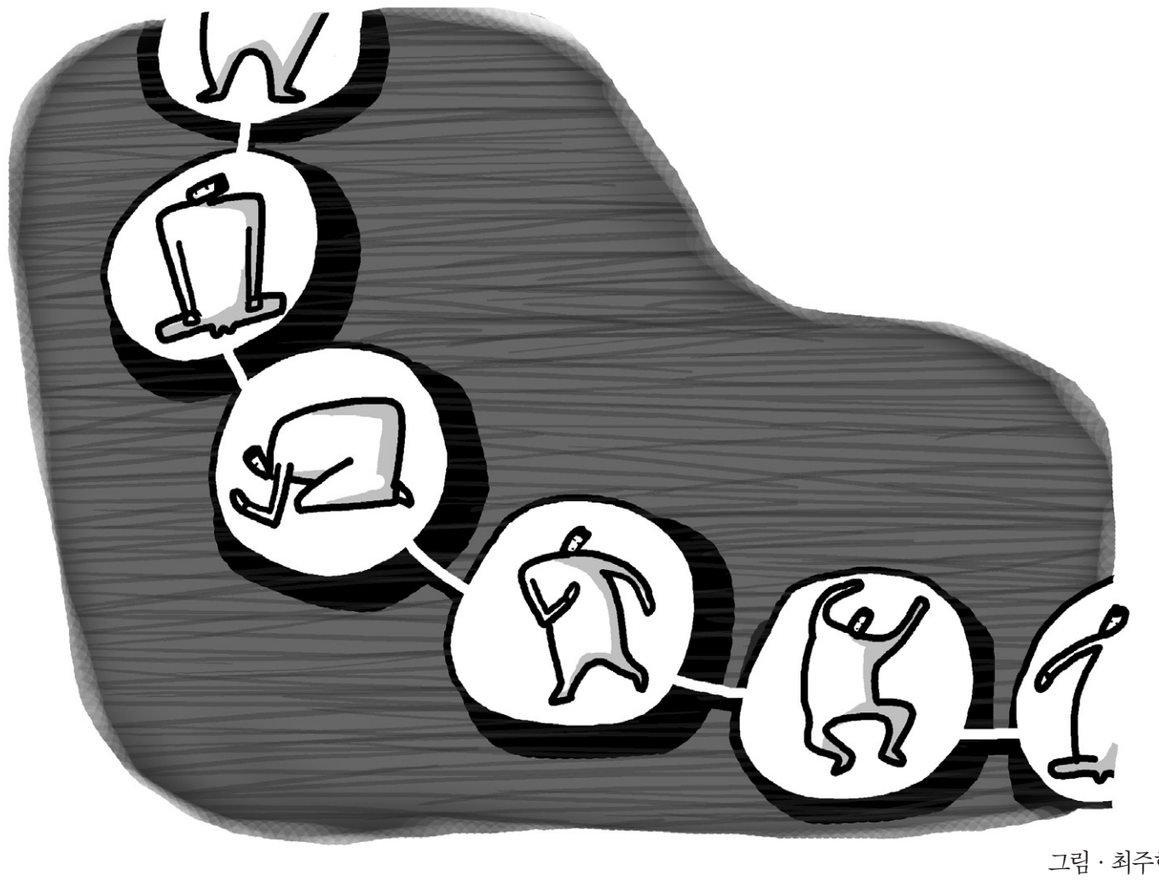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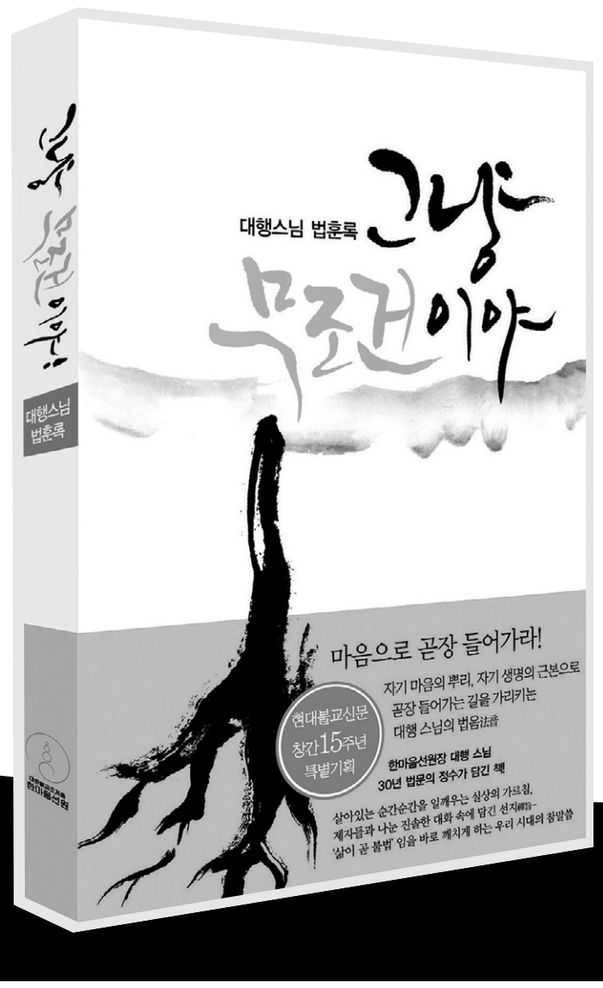
지금 여러분의 뿌리와 싹이 그대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 못 믿고 믿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고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맡겨 놨다가도 못 믿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한 번 맡겼으면 맡긴 그 자체가 아주 뚜렷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좀 시일이 가서 풀릴 수도 있고, 시일이 안 가고 단박 풀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바로 천차만별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서 "아이구! 요렇게 맡겨도 안 돼. 안 돼." 하는데 그렇게 못 믿을 것이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게 불찰이 아닙니까? 네? 뿌리로 인해서 싹이 났는데, 자기 영혼의 뿌리가 자기를 형성시켰는데 그렇게 못 믿어서야 어찌 삶을 보람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워 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꿰어져 있으니까 믿어라.' 이겁니다. (염주를 들어 보이시고) 이제 꼭 믿고 맡겨 놔야 할 데가 아주 가까운, 바로 내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마주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시겠죠? 하여튼 아주 타당합니다.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이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까? 아,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네? 부부한테도 할 말, 못 할 말 가려서 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슬프고 즐겁고 한 거는 자기 뿌리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내기 이전의 마음은 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 내는 건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마음을 내겠지만 마음내기 이전의 마음은 아주 정확합니다. 더하고 덜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낼 때 마음의 선장은, '잘못 내걸랑은 다스려서 거기 놔라. 잘 내걸랑은, 잘 내게 해서 감사하구나. 나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즐겁게 내 주니 감사하구나.' 그러고 거기다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주고 안 주고가 없습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지, 누가 '해라, 하지 말아라. 지어라, 짓지 말아라.' 이런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면 부처님 될 수 있는 능력이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자기 뿌리 믿고 이렇든 저렇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 29면에서 계속

99%가 됩니다. 이건 한 찰나 생각만 잘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무식하고 무식 안 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못나고 잘나고 간에 (염주를 들어 보이시며) 반드시 줄에 꿰어져 있는 염주알과 같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염주알을 꿴 그 줄을 믿어야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다스리고 행하고 거기 놓고, 잘못된 것도 거기서 나오는 줄 아시고, 바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줄 아시고 그 자리에다 되놓으신다면, 앞서의 게 없어지고 새 입력이 들어가면서 보람 있는 새 삶이 나온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왜 못 믿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나 사나, 죽을 병이 들었거나 죽을 병이 안 들었거나,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죽는다 하더라도 옷을 벗고 바로 승천이 될 거고, 얼른 쉽게 말해서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날 거고, 또 산다 하더라도 그냥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래도 건지는 거, 저래도 건지는 건데 왜 겁을 내느냐 이겁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누구나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지인데.

부처님께서도 깨달으신 과정과 열반하신 과정이 어땠습니까? 염주알을 시발점에서 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종점까지. 종점까지 오니까 다시 시발점이 되더라. 그렇죠? 다시 시발점이 되죠. 그러니까 종점이 됐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종점이 됐다 하면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 하면 그냥 한 찰나에 그대로, 마음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공부를 못 하고 바깥으로만 끄달린 사람은 그 안에서, 그 차안(此岸)에서, 즉 차단된 속에서, 감옥 아닌 감옥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세생생에. 그 의식, 관습, 인과에 그냥 매달려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우리가 개구리가 된다면 개구리로 살던 습이 그냥 누적이 돼 가지고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개구리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용광로에 다 놓으십시오. 이 줄은 용광로와 같고 바로 자가발전소와 같고 불바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겨 놓기만 하면 모든 거는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 놓고 맡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자기 싹의 자기 뿌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무조건 믿어야죠. 뭘 누가 믿어라 말아라 할 때까지 있어요?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금강경(金剛經)』에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이란 사구게가 있는데, 머무르는 바 없이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이 소소영영한 마음자리인가 합니다. 한생각 하기 이전의 마음이 한마음 주인공이 나투는 자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스님: 지금까지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마음내기 이전은 마음의 내 선장으로 섬기고, 마음내는 것은 바로 중생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다스려서 몰락 놓을 수만 있다면, 몰락 놓되 그냥 놓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놓고, 돌려서 놓고, 구정물을 새 물로 만들어서 놓고, 그러니까 '그 구정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런 말도 경에 많이 있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르치면 더디니까 아예, '그 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치해서 써라.' 이겁니다. 그 과정을 다 새삼스럽게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 먹고, 그대로 맛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생각내기 이전이 자기 뿌리니까요. 그대로 믿고, 양면을 다 거기다 믿고 놓으면 그 가운데서 아주 샘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 샘물이라는 것은 만법의 근본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이며 또 생활인 것입니다.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오늘은 마음공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의 유식론(唯識論)에 보면 인간의 인식은 대개 열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다섯 가지는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정신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범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아는 의식(意識)입니다. 그러나 여섯 가지는 보통 범인들이 느끼는데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되는 거는 우리 범인들이 일반적인 공부를 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보면 이러한 칠식(七識) 팔식(八識) 구식(九識) 열식(十識)에 도전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어 왔고, 또 일생을 바치는 고승대덕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인물 두어 사람에 대해서 조사어록(祖師語錄)에 나오는 것 한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달마어록(達摩語錄)에 보면 달마 조사와 무제의 대화에서 '심심상련(心心相連), 교외별전(教外別傳), 이심전심(以心傳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제 몇 식(識)에 해당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항상 여러분한테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얘기해 드리죠. 그건 열 가지든 백 가지든, 만 가지든 천 가지든 그건 하나로만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로만! 내 진실한 근본에서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체 만물이, 새는 새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말과 행이 그대로 이렇게, 뜻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통하죠. 전체가 통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심전심으로 사는 거죠, 그대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다 실현돼 있어요, 아주.

그런데 정신세계에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육감으로도 이렇게 통신이 오죠. 사람을 벌써 보기만 해도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구나. 아, 저 사람은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가 좀 어떻구나, 어떻구나.' 하는 거를 대략 짐작하죠.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 마음공부 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그대로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심전심이죠. 이 마음과, 즉 말하자면 영과 영이 한데 합쳐지면 그대로 없으면서, 맑은 물이면서도 그것은 둘이 아니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알고 있다. 꽃을 볼 때에도 이심전심이 되죠. '야, 너는 왜 낮이면 피고 밤이면 오그라드느냐?' 고 물어보세요. 반드시 대답이 있을 겁니다. 또 '왜 밤에는 피고 낮에는 오그라드느냐?' 고 물어보세요. 반드시 회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비밀의 행이면서도 아주 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기가 깨달아야만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버선목이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부처님처럼 금방 이 자리에서 요 문 바깥을 나갔다 들어왔다, 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또 물속의 생물들을 다 만나고 왔다, 한 찰나에 만나고 왔다 하더라도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심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이심전심의 그 묘한 도리를 체득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도리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서 알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아마. 그게 얼른 쉽게 말해서 '이심전심으로 통해서 천백억화신이 나투면서 각계 각층의 중생들에게 다 응(應)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심전심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질문자2(남):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칠식은 말나식(末那識), 팔식은 아뢰야식(阿賴耶識), 구식은 아마라식(阿摩羅識) 열식은 백정식(白淨識)인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백정식 정도 되면 생사 거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큰스님: 백정식은요, 그 의식까지도 없어야 백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아뢰야식이니 뭐 이것이 아주 몰락 다 없어야 백정식이죠. 그래서 백정식이라는 건 '아주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깨끗한 무(無)가 돼야, 이것이 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불러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그대로, 모르는 대로 그대로, (염주를 들어 보이시며) 이 알은 반드시 줄에다가 다 놔라 이겁니다, 의식까지도. 지금 직행으로 들어가는 코스지, 거쳐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본인은 '처처불법(處處佛法) 사사불공(事事佛供)'을 신행 신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뭐 달리 생각할 것도 없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시죠? 그러니까 처처불(處處佛)이에요, 처처불! 즉 말하자면 사무사유(四無四有),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그 생명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처불이죠. 그래서 처처불이며 사사불공이라고 했죠? 그 불공이라고 한 자체가 바로 처처불이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그냥,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공(空)했다는 겁니다. 찰나찰나 공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었는데 금방 돌아서면 저기 보고, 금방 돌아서면 저기 생각하고, 금방 돌아서면 딴 거 보고 이러죠? 내가 항상 말을 하죠? 가정에 들어가도 "여보!" 하면 남편이 됐다가, 금방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됐다가, "얘,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이 됐다가, "여보게!" 하면 사위가 됐다가, "형님!" 하면 형님이 됐다가 이렇게 그냥 찰나찰나 바뀌지 않습니까? 생활도, 일체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육체 안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도 작용하는 것이 전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땐 이런 게 들어오고, 어떤 땐 저런 게 들어오고, 어떤 땐 딱딱한 게 들어오고, 어떤 땐 물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작용하는 것도 사사건건이 달라요, 이건. 들어오는 대로 사사건건이 다르니까 어떤 건 이렇게 내보내고, 어떤 건 저리로 내보내고, 어떤 건 모자라는 대로 이렇게 메꿔서 내보내고, 그러다가 고장이 나면 메꿀 수가 없게 되는 이치가 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누덕누덕 붙여 가지고 긁어서 외려 부스럼을 만들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거는 일체가 다, 풀 한 포기도 불(佛)이다. 처처불이다. 또 일체가 다, 마음으로 통하고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는 게 교(教)다. 그런데 그 일상생활 자체가 그대로 불교요, 삼천대천세계가 공했다.' 고 했습니다. '공' 했는데 이걸 '평등불공'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공했다는 거예요. 공했으니 그 의의만 떼어 놓고서 자기가 깨달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편하게 배워야죠, 너무 어렵게 배우면 어깨가 무거워서 더 안돼요. 왜, 집안에서도 이런 게 있죠. 너무 닥치는 게 많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때에는 어깨가 무겁고, 그래서 그냥 '어휴! 멋대로 돼라.' 이러고 내팽개쳐지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무겁게 만들지 마세요. 무겁게 만들면 오히려 불성이 가려집니다. 발견이 돼야 할 텐데 오히려 척척 붙어서 눈을 가려 놔서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떼야 될 텐데 외려 붙이면 됩니까?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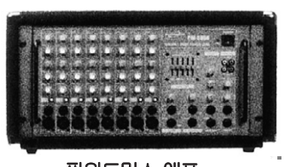
> 구정물을 맑은 물로 그냥 대치해서 써라.
> 그 과정을 새삼스럽게 다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한다면
>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대로 집어 먹고 그대로 맛을 알고
> 그대로 행하라 이소립니다.

※위 법문은1994년 4월 3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프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엠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광 명 사
- 법 명 : 선정 (서정란)
- 주 소 : 경북 안동시 서후면 이개리 194-1번지

위 사찰과 위인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일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대학 5, 6년생에게 띄우는 편지

진정한 주인 되는 길 찾으세요



마가 스님
두손모음 자비명상 대표

취업시즌을 맞은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100대 1의 경쟁은 기본입니다.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었지만 졸업하고 취업하기는 더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은 취업이 안돼 대학을 5, 6년까지 다니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대학 5, 6년 학생들에게 편지를 띄우려 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걱정이 태산같고 사회는 사회대로 걱정이지만 취업 못한 당사자야 말할 것이 없겠지요. 요즘 자신의 전공과 무관하게 취업하는 비율이 77%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호구지책으로 일을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100만시대인데 한국 대졸자는 취업이 안된다고 하는 이게 뭔 소리인가"라는 화두 아닌 화두를 가지고 몇날을 보냈습니다.

"아!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일 할 마땅한 곳을 못 찾아서이고 더 좋고 안정된 곳을 원해서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단순하고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성게에 나오는 '우보익생 만허공(雨寶益生 滿虛空), 중생수기 득이익(衆生隨器 得利益)'이라는 구절로 '이로운 법의 비는 허공에 가득하니 중생의 그릇에 따라 그 이익을 얻네' 라는 뜻입니다.

기업에서는 면접을 통해 취업 지망자들의 그릇의 크기를 보고 자기 기업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을 인성이나 대인관계를 무시하고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았습니다. 인간을 기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하지만 다행히 요즘 추세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미리 해놔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21세기에는 기업들이 획일화된 틀에 박힌 인물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등 기술혁신으로 성공한 일류 기업가들은 정보기술과 인문학, 예술을 접목시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돈버는 일꾼으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 취업하고 싶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서두르게 되지요?

지금 이순간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

획일화 된 인물 선별 안해
창의적 사고가 더욱 중요
'수처작주' 를 기억하세요

십시오. 불안, 초조,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취업은 될 것입니다. 가까운 사찰에 가서 108배를 해도 좋고, 등산을 해도 좋습니다. 사회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봄꽃이 한창입니다. 길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식물들이 피워내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계절입니다. 겨우내 방안에만 있었던 식물들은 꽃이 피지 않는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뎌내야 여러분의 인생에 꽃을 피워 낼 수 있습니다.

취업 안되는 것보다 무서운 건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바로, 자기 방청소부터 먼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엔 무엇이든 나로부터,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취업에 너무 연연해 마십시오.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하고 있으면 인연이 닿아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동, 말,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이란 말을 들려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엑스트라로 살고 있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1보 전진을 위해 2보 후퇴한다고 하잖습니까? 다만 오늘은 어제보다 좀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불자세상보기- 고위층 부패지수

도덕성 회복 운동 일으키자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전철 안에서 노인을 앞에 세워두고 졸고 있는 청소년을 가끔 본다. 필경 잠에 빠졌거나 너무 피곤하여 잠자는 척 하며 버텨보는 것이리라.

잠자는 척 한다면 저 청소년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 노인을 앞에 두고 아무렇지도 않은 자세로 태연하게 앉아 있는 청소년도 있다.

이러한 장면에서 청소년의 무도덕성(amorality)을 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조는 척 하는 청소년의 모습에서는 도덕적 나약함(moral weakness)을 본다. 도덕적 나약함은 자신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덕적 의지가 약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씨앗은 살아 있다. 반면에 무도덕성은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인식이 없는 것이다. 도덕적 씨앗이 말라버린 것이다.

'국민행복시대' 를 열기 위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의 일꾼을 검증하고 뽑는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행해 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무도덕성' 을 낱낱이 보고 있다.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전관예우 이용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다. 그들은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저 한 시대의 관행으로 여기고 있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누가 이들에게 돌팔매질을 할 것인가. 그렇다. 근대 백여 년 동안 한국인의 삶의 양식은 일종의 생존게임(survival game)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한국 전쟁,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게임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왔다.

이러한 정글사회에서 '돈' 과 '빽' 은 삶의 필수조건이었고 이를 만들기 위해 도덕성은 하나의 장애였을 것이다. 여기서 자유로운 한국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들의 화려한 삶의 여정은 생존게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태반이고, 자신의 비도덕성에 관한 성찰을 요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도덕공동체' 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많은 국민이 비도덕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1억 원을 준다면 감옥에 1년 동안 갔다 오겠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는 어느 청소년의 의식조사를 결코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왠지 자신이 없어진다. 윗물이

지도층 도덕감 상실했나
경쟁서 윤리를 장애로 치부
시민 주체 운동 필요성 절실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격언이 새롭게 다가온다.

정의로운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지도층과 엘리트 계층의 도덕심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신분에 따른 윤리적 의무이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노블리스들은 국민들에게 '죄송' 한 대상이 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우리의 사회 지도층은 사회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도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 한국사회는 계층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가치 통합이다. 가치 통합의 첫 출발은 윗물이 맑아야 할 수 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시민이 주체가 되고 바로 서는 제2의 의병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말의 의병 운동은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 즉 지도층과 엘리트 계층의 엄중한 책무정신과 선비정신이 표출된 것이다. 의병운동은 '실패가 예고된 운동'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실패가 예고된 저항을 계속한 것은 참으로 경이롭다 하겠다. 그래서 의병정신이 독립운동의 초석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지도층의 비도덕성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덕성 회복 운동을 제2의 의병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이다.

社說

대장경연구소의 21세기 역경 불사

고려대장경연구소가 창립 20돌을 맞았다. 3월 28일에는 이를 기념하는 행사들을 가지기도 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한명의 인간이 성인으로 자라날 정도의 시간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도 걸어온 시간만큼 적지 않은 족적을 남겼다.

설립 3년 만에 세계최초로 81,258판의 고려재조대장경을 전산화 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재조대장경 영인본과 초조대장경 이미지 DB를 구축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돈황프로젝트를 진행해 초조 및 재조 고려대장경 이미지DB와 돈황 문헌 이미지DB를 연동시켰다. 현재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내년까지 '한일 공동 고려초조대장경 복원 간행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려 교장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한편 대장경학회 창립도 추진 중이다.

고려대장경 전산화와 연구 작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성과이다. 루이스 랭카스터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경판을 목판으로 새기기 시작한지 천년이 지난 후 이 시대 불교인들이 최신기술과 방법으로 그 가르침을 새로운 그릇에 옮겨 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대장경 전산화 사업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스마트 폰이 일상화된 정보화 시대에서 디지털 대장경의 가치와 우수성은 세월이 가면 더욱 빛을 발할 것이 분명하다. 고려시대의 대장경이 천년을 이어왔던 현대의 전산화 대장경도 앞으로 천년을 이어갈 콘텐츠로 승화시켜야 한다. 향후 연구사가 추진하는 인지과학을 연계한 검색체계 구축, 통합대장경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20돌을 맞은 고려대장경연구소의 한결같은 원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사부대중의 관심도 필요하다. 21세기의 새로운 역경불사가 끊임없길 기대한다.

조계종 전법단, 후원조직 확대돼야

조계종 전법단이 4월 30일자로 출범 3주년을 맞는다. 전법단은 짧은 기간동안 군장병,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등 포교의 사각지대에서 전법활동을 펼쳐왔다. 이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직장직능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 포교역량을 결집시켰다. 지역별 · 분야별 특징에 따라 다양한 맞춤 포교전략을 구사하며 성공적으로 불교 포교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특히 대구경북전법단은 대구지방경찰청 및 청소년 교화와 학교폭력 예방활동인 117 감시신고단 활동을 펼쳤다. 병원전법단도 사찰음식 강연회와 불교임상지도자 심화교육과정, 명상치유 순례 등을 열며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법단이 나아가야할 길은 멀다. 현재 전법단은 스님들로 구성된 지도법사단과 재가자 포교사 중심인 전법지원단, 일반신도들의 후원전담조직인 전법후원단으로 구성돼있다. 총 11개 전법단에 소속된 지도법사 스님들은 총 384명이다. 이에 비해 스님들의 포교 활동을 보조하거나 취약부분을 보완해 줄 전법지원단은 97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향후 포교사와 재가불자가 중심인 전법지원단과 후원단의 조직과 규모의 확대가 관건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성화 된다면 전법단의 위상과 역할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생력 확보를 위한 후원조직 확보도 관건이다. 조계종 전법단 지원예산은 2억 5000만원 수준으로 전법단이 총 11개인 점을 감안하면 1개의 전법단 당 연간 지원 예산은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확실한 활동 영역이 있는 직능분야와 달리 지역전법단의 역할이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각 전법단의 영역 조율도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다.

특히 지역전법단은 지역 현실과 연계해 방과후학교, 지역불교대학 운영 등 장기적 사업 계획을 짜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생활속에 만나는 부처님 말씀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법구경
그 귀한 가르침을 법과에 담았습니다.
과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귀한 가르침.
부처님 오신 기쁜날, 신도들과 함께
그 참된 뜻을 기리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보세요.



법과란?

BUDDHA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는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법과전용 포장지에 포장되어 나가며
법과안에는 법구경의 지혜로움이 적혀있는 슬립지가 있습니다.


쿠키



포장지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법과의 효과

BUDDHA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 슬립지

BUDDHA



[앞면예시]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내용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뒷면예시]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 법구경이
각각 다른디자인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법과 法果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